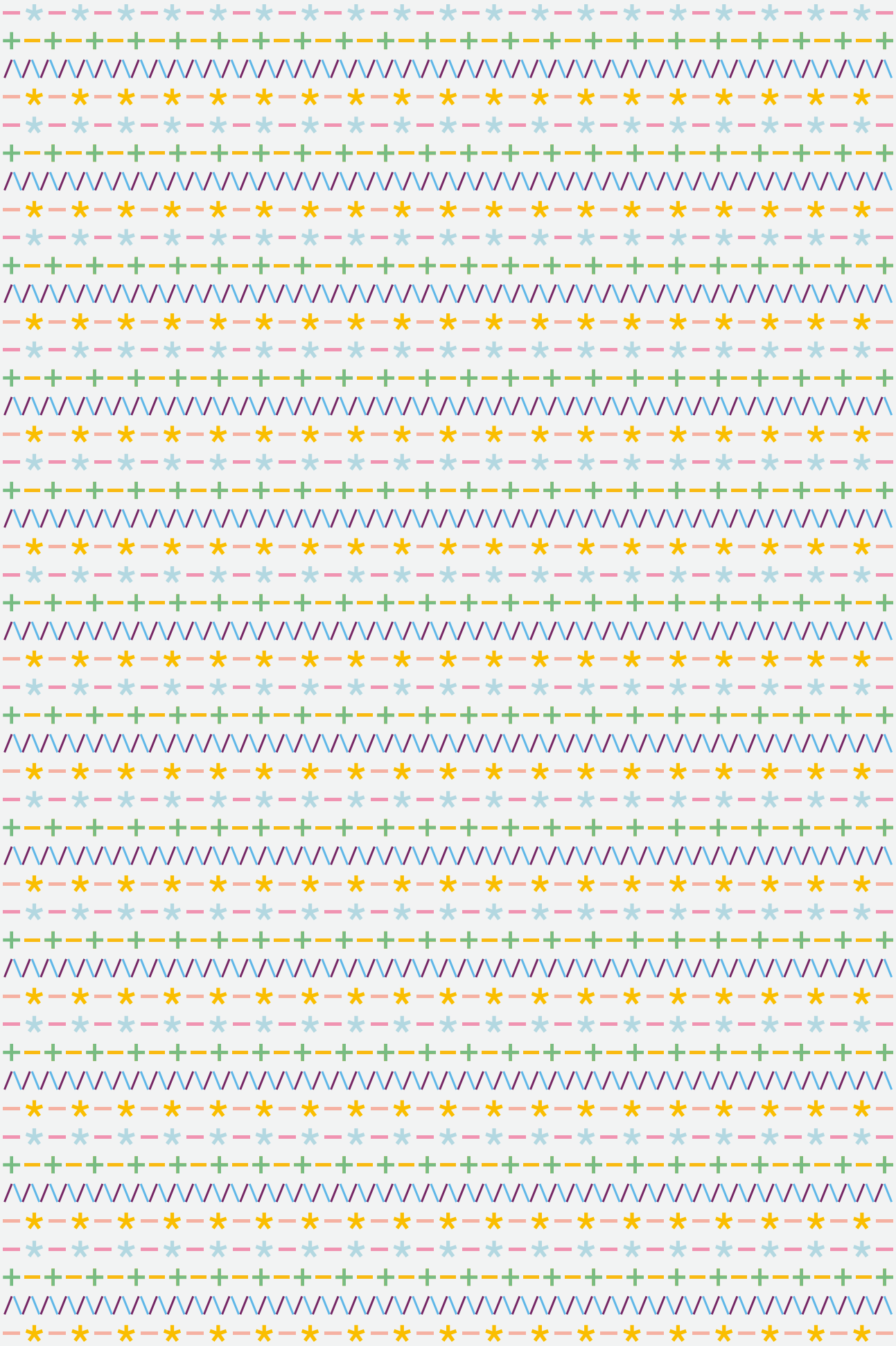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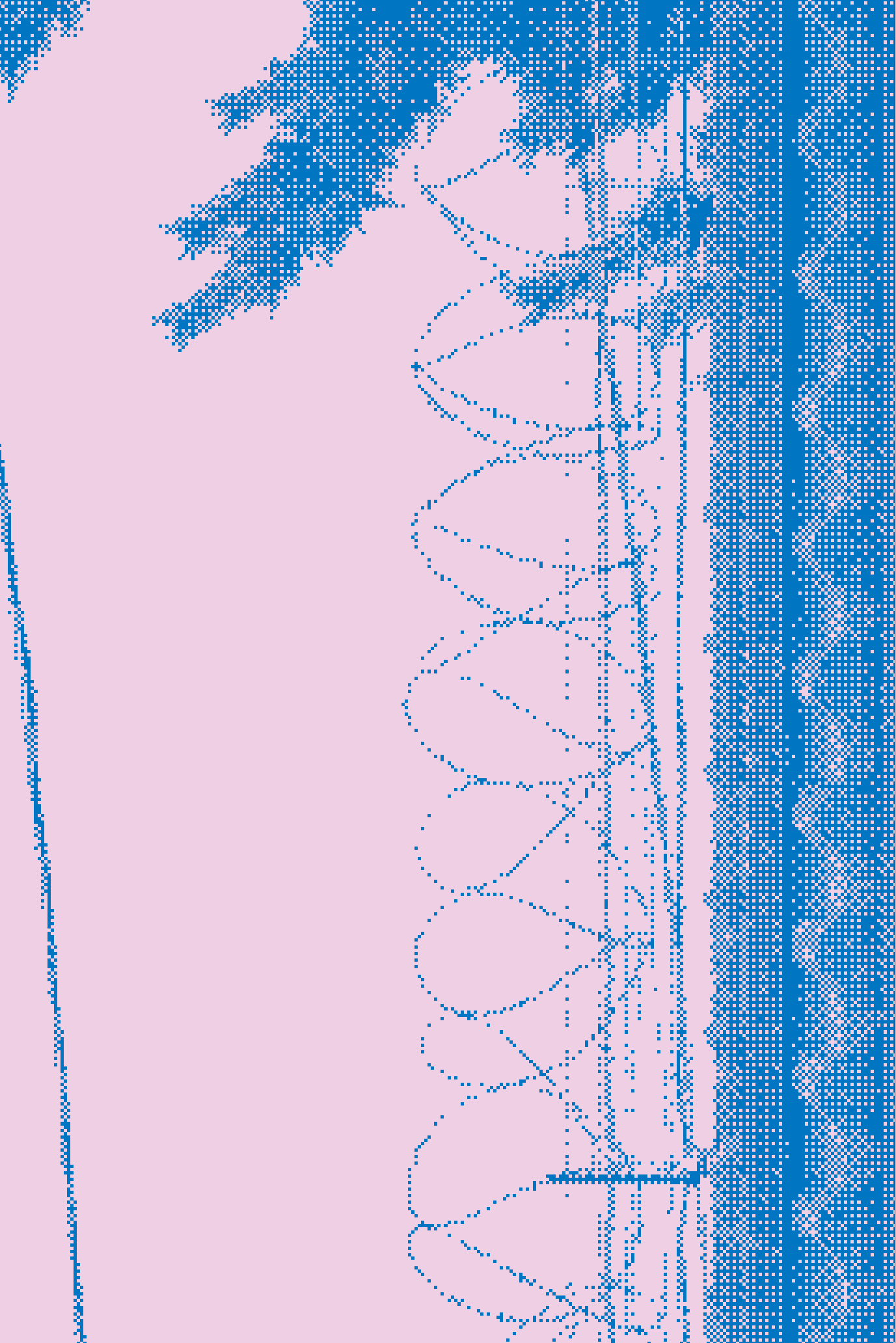
'13-'15 아저리 마을재생프로젝트



'13-'15 Anjeongri Regeneration Project



'13-'15 안정리 마을재생프로젝트



목차

The Table of contents

	4	여는 글	PREFACE
	6	3년의 항해 - 안정리	A THREE-YEAR EXPLORATION ART
	16	문화재생거점 아트캠프	CAMP FOR ANJEONG-RI
		프로젝트 개요	BRIEFING ABOUT THE PROJECT
1. 마을	24	안정리 그리고 안정리 사람들	K-6 HUMPHREYS AT MILITARY CAMP
VILLAGE		마을 풍경	TOWN IN ANJEONG-RI
			VILLAGE LANDSCAPE
2. 공간	40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PAENGSEONG ART CAMP
SPACE		바위와 씨앗 프로젝트	ROCKS AND SEEDS PROJECT
3. 커뮤니티	64	골목(木)공방	WOODCRAFT STUDIO
COMMUNITY		팽성시스타	PAENGSEONG SISTA
		커뮤니티 연극 워크숍	
		‘새빨간 백일몽’	
		수상한 의상실	THE SUSPICIOUS DRESSMAKERS
		오픈시니어카페	SENIOR CAFE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INTERNATIONAL CULTURAL AND ARTS
			EXCHANGE COMMITTEE
4. 마을자산	100	생활사박물관프로젝트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VILLAGE PROPERTY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	VILLAGE ART STORE PROJECT
		이웃상회 IN 안정리	
5. 환경	142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	BLOSSOMING ANJEONG RI
ENVIRONMENT		‘꽃피는 안정리’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	VILLAGE IS FLOWER
		‘마을이 꽃이다’	
6. 축제	160	마토예술제	MATO FESTIVAL
FESTIVAL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COSTUME PLAY FESTIVAL
	200	비하인드 안정리	BEHIND ANJEONG-RI



여는 글

경기도 평택과 충청도 둔포 경계에 ‘안정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 지역과 경기문화재단이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3년 2월부터입니다. 평택시청의 의뢰를 받아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위탁사업을 3년간 추진했습니다. 2017년까지 K-6 캠프 험프리스에 통합 미군기지가 조성될 것을 대비해 ‘거주민’과 ‘일시적 이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기반 조성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터이자 일터, 일상적 공간이 경제적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잠식당해 장기간 빈 건물과 버려진 물건들로 방치된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러한 마을 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시와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6천여 명이 거주하고 6만여 명의 이주민이 머무는 정도로 규모가 큰 마을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을이란 공간은 유기체와 같아서 그 안의 구성원들 간에 무수히 많은 부딪침을 통해 내발적 움직임이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자가 동력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년간 갈등의 골이 깊고 무관심하기만 했던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닫힌 대문을 열고 이웃과 낯선 이주민들과 노는 법을 경험했습니다. 미군기지가 생긴 1953년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화된 문화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지속된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회의,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된 활동은 점차 지역사회라는 공통적인 관심사 속에서 함께

‘안정리’를 고민하고, 공적인 활동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안정리가 겪은 문화적 경험이고 큰 이슈이자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묻고 싶은 기지촌 지역의 삶을 담아낸 안정리생활사박물관도, 예술상품으로 발굴된 지역의 가치도, 마을 커뮤니티들의 생성과 다양한 활동의 증가도, 4년 전 74개의 빈 점포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든 것도, 사심 섞인 주민 의견도 모두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 한계와 역부족으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은 군사기지에 의존적인 마을 구조에서 마을 구성원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생적 구조를 갖추는 데에 작게나마 조력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이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게 그 중책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접근 방식은 달라도 앞으로도 오랜 세월 상업유흥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마을 기능에서 이제 ‘안정리와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마을로, 마을이 마을답게 살아갈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3년간의 과정을 담아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무한한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평택시와의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2013-2015의 주요 활동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들어주신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위원님과 부대 측 커뮤니티 멤버, 마을을 고민하시며 늘 응원해주신 지역 관계자, 시청 관계자, 그리고 가장 고생 많았던 아트캠프 직원과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신 작가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reface

There is a village named ‘Anjeong-ri’ located in the boundary of Pyeongtaek in Gyeonggi Province and Dunpo in Chungcheong Provinc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tarted to forge ties with this close, yet distant area from February 2013. We carried out a consignment project upon the request of Pyeongtaek City Government for three years for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the basis for exchanges of local cultures. The main task was to pave the foundation for a cultural environment to facilitate exchang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emporarily settling newcomers’ in preparation for the formation of an integrated U.S. military base at K-6 Camp Humphreys by 2016.

Merchants and residents claimed that their most urgent issue was that their residential, working and daily living spaces have been left empty, abandoned and neglected by being encroached by investors for economic gains, and asked the city government and the foundation to refurbish the village environment. Despite budgetary support, it is not easy at all to artificially transform the appearance of such a village with 6,000 residents and 60,000 newcomers. A village space is analogous to an organism which ends up operating its self-autonomous engine only after internally driven movements take place after years of constant tensions and conflicts among members.

Residents that have been aloof about the issue and suffered from years of internal mistrust have finally experienced how to have fun with their neighbors and newcomers/strangers after opening their doors that have been closed for three years. It is truly significant that cultural ties have been made official for the first time within 60 years after 1953 when the U.S. military camp was established. Activities that kicked off through small gatherings and programs scaled up as official programs based on the common interest of developing ‘Anjeong-ri’ as a community. All this journey itself is the biggest issue and change as well as a cultural experience

that the village has experienced. These are some of the achievements manifes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village: Anjeong-ri Museum of Everyday Life reflecting the lifestyle of the U.S. military town village, which villagers had wished to bury deep in the history, the value of a region explored through artistic products, creation of village communities, increases in the number of their activities, current near-absence of about 100 empty stores lining up the streets four years ago and genuine feedback of villagers on their living environment.

True, there remain regrets due to limitations and some uncontrollable factors. Ye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trived to play a facilitating role for the village structure that used to depend on the military camp to recover its self-esteem among villagers and become self-sufficient. We have now passed on its roles for the past three years to the Pyeongtaek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Despite our different approaches, we hope that Anjeong-ri could become a village whose top priority is on ‘the village itself and its people’, away from its functions, for long, for commercial entertainment, and grow in the direction of recovering its rights to move on as a sound village.

The past three-year trajectory is now covered in a book. This project was made possible thanks to the partnership with Pyeongtaek City Government that proactively trusted and supported us. Key activities from 2013 to 2015 are included in the book. We would like to extend genuine thanks to the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s Exchange Commission for its full support, community members in the military camp, community members that have cared about the village and encouraged us all the way through, city government officials, Art Camp staff that have poured in the greatest efforts and sacrifice for this to happen, and artists that passionately have taken part in this journey.



3년의 항해— 안정리 문화재생거점 아트캠프



김윤환 평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총감독

들어가며

아트캠프가 들어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일본 강점기에 공군 활주로가 들어서고,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2년에는 미군 주둔기지가 자리 잡으면서 안정리는 군사기지 마을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지촌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마을은 2017년 또 하나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7년까지 한국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안정리를 포함한 평택지역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조용하던 농촌 마을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지나며 군대문화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기지촌 경제로 인해 경제적 활황을 누리다가 점차 상권이 쇠락하고 있고, 뉴타운건설 백지화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때에 2017년 미군기지 이전은 안정리 주민들에게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여겨졌고, 주민들은 그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가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는 안정리에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준비했다. 2011~12년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고, 2013년 초 경기문화재단은 평택시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2015년까지 3년간 ‘지역문화교류 기반사업’과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 사업’을 운영했다.

본인은 2015년 5월부터 8개월간 팽성아트캠프의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아트캠프의 사업과 안정리 공동체를 위한 크고 작은 예술문화사업을 진행했다. 8개월간 짧게 경험한 시각으로 3년에 걸친 안정리 사업의 결과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안정리 문화재생사업은 기지촌의 밤의 문화만 있던 안정리에 주민들의 창의성으로 빛나는 아침과 오후를 만드는 등 작지 않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울고 웃던 시간들, 서로 이해하지 못해 얼굴 붉히던 시간들, 작은 오해가 풀리면서 환한 웃음을 짓던 시간들. 3년간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은 언어와 문화, 인종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이 안정리라는 한 지역에서 문화를 통해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이해하게 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글은 지난 3년간의 아트캠프와 안정리 주민들의 도전과 실험, 매년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평가, 제언을 기록한 것이다. 3년간 아트캠프와 함께했던 안정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1.사업의 발단 : 기지촌마을의 흥망성쇠

안정리에서 팽성예술창작공간이 시작된 것은 기지촌 마을의 흥망성쇠와 직접 관련이 있다. 경기도 평택시 근교에 위치한 안정리라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활주로가 들어서더니 급기야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2년, 미공군이 일본군의 활주로를 주둔기지로 확장하면서 안정리는 군사기지 마을이 되었다. 농촌 마을이 기지촌이 되자 미군들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안정리는 북적거렸다. 기지 주변 로데오거리에는 한때 400여 개의 상점이 있었을 만큼 호황이었다. 그러나 뉴타운 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 고조(2010), 한때 호황을 누리던 로데오거리의 점포가 100여 개로 줄어드는 등의 쇠락과 더불어 주말에도 인적이 드문 쓸쓸한 마을이 되었다(2012).

다른 한편, 2017년 수도권 미군기지 이전·확장 계획은 안정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여겨졌고, 상인들과 주민들은 쇠락한 안정리를 보다 발전시키길 원했다.

이러한 안정리의 복잡한 현실과 문제의식 안에서, 문화기획자 집단 ‘기분좋은 QX’는 2011~12년 평택시의 요청으로 ‘미군주둔지 지역문화교류기반구축 전략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이때 ‘기분좋은 QX’는 안정리 거리 일대에 새로운 활력이 생동하게 하는 공감대 형성, 이종문화 융합지역으로서 문화교류와 창조활동을 매개, 문화를 통해 창조적으로 지역을 재생, 주민/상인 참여형 민관협력시스템 창출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한 8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상세 계획 및 통합추진 계획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주민들과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와 수요조사에 기반했다. 그 결과 시설환경 분야에서는 주차장 확충, 문화교류시설로 공연 공간, 주민생활 개선 시설로는 공원 조성을 선호했고, 미군(주민)과의 교류 분야에서는 상인, 주민, 미군 모두 교류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류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축제, 문화예술 취미 프로그램, 영어교류 프로그램을, 안정리의 미래상과 비전으로는 문화예술을 접목한 쇼핑거리, 이색 테마 거리, 국제문화교류 체험의 장 등을 희망했다. 안정리 쇼핑물 거리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도시 환경 개선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미군은 한국전통예술 체험, 다국적 음식과 음악 경험, 주민과의 교류를 희망했다. 안정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 이미지는, 평택 시민의 경우 외국인이 즐기는, 국제적인, 이국적인 이미지를 희망했고, 미군은 편리한, 한국적인, 정이 많고 친절한 이미지를 희망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방향이 수립되었다.

2. 과제의 설정 :

창의성 · 국제성 · 교류성 · 지속성

연구에서는 창의성 · 국제성 · 교류성 · 지속성을 안정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4대 요소로, 일상 교류 · 문화예술의 지역자원화 · 상가 활성화를 3대 전략 영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제토포장터 개장, 안정테이스트센터 설립(지역자원형성), 특화우수점포 육성사업, 안정리 사랑 프로그램, 안정마을미술관 만들기, 세계음식문화축제, 생활예술 · 디자인숍 육성, 피스가든 조성 및 운영 등이 제시되었으며, 상인협동조합 운영 · 마을 브랜드 구축도 2대 필요성 사업으로 요청되었다.

3. 2013년 사업 :

경기문화재단과 평택시의 만남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2013년 초 경기문화재단은 평택시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2015년까지 3년간 안정리 문화재생사업을 운영했다. 2013년은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가 개관되기 전이었지만, 마토예술제,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등 축제 성격의 문화교류 기반구축 사업에 주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팽성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아트캠프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했다.

2013년에 실행했던 두 축제에 대해 ‘기분좋은 QX’의 ‘평택 지역문화 기반구축사업 모니터링’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 마토예술제는 행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다소 높았고(65.5%), 지역 예술가 및 주민을 위한 행사(38.9%)라고 인식했으며, 인상 깊은 프로그램은 거리 공연과 체험 마당(32.7%)이었고, 향후 재참여 의사가 매우 높았다(86.7%). 행사의 짜임새도 양호하게 평가받는 등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으로 평가되었다. 개선점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홍보, 지역특성화 축제, 다양한 먹거리 제공, 편의시설 개선, 상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

[2]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를 보면, 축제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높았고(92.0%), 지역 예술가 및 주민을 위한 행사(49.0%)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인상 깊은 프로그램은 콘테스트(67%)였다. 그러나 향후 재참여 의사(43%)는 높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행사 만족도도 3.35(5점 만점 기준)로 낮은 수준이었다.

[3] 전문가들의 현장 평가는 안정리의 특성과 부합하는 축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행사가 마니아 층을 위한 행사로 느껴지는 점과 일반인 · 상인 · 미군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

방향은 미군 · 주민 · 상인이 사업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참여 조직 · 주민 참여 조직 · 상인 참여 조직 등 참여구조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참여를 위한 소통 방안으로 미군 장교 부인회 · 다문화 예술가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형성, 국제성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타 지역과 차별화할 것을 제시했다.

[4] 안정리 사업단은 2013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인 체험을 확대하고, 야간 프로그램이나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4. 2014년 사업 :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 개관

안정리 문화재생사업은 2014년 3월 옛 팽성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를 개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아트캠프가 탄생함으로써 기존 마토예술제,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등의 축제 외에도 일상적으로 지역과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정리 사업단은 ‘아트캠프’라는 커뮤니티 거점을 기반으로 한 ‘오픈키친 · 쿠킹클래스’, ‘업사이클링 골목(木)공방’, ‘여름방학 프로그램’, ‘다문화 마을정원 만들기’, ‘크리스마스 파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특히 2014년 5월에는 ‘한미문화예술교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지역주민 · 상인 · 미군이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지게 되었다.

2013년에 이어 추진된 마토예술제와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2014년 [1] 마토예술제는 전년도(3.81/76.2점)에 비해 행사 접근성 · 행사 시설 · 행사 서비스와 행사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소폭 향상된 것(3.87/77.4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서 “관람객이 생각하는 마토예술제의 지역 기여”를 묻는 항목에서는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79점), 문화 향유 기회 제공(79.6점), 지역 경제 활성화(78.4점)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의 경우 행사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2013년 68.8점에서 2014년에는 78.6점으로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4년 축제는 안정리 로데오거리 내 미군 · 지역민의 유입 증대로 상점의 매출 증가, 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영어 학습 기회 제공, 다국적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지역문화교류의 소통 공간 마련,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라는 이미지 구축, 건전한 ‘낮’ 문화의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5. 2015년 사업 :

골목(木)공방, 골목환경 개선, 오픈 시니어카페, 시니어들의 치어리딩팀 팽성시스타,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발족 등

2015년 ‘지역문화교류 기반사업’은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다문화정원 조성(계속 진행), 골목환경 개선 ‘꽃피는 안정리’를, 마을 축제로 마토예술제와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을, 안정리생활사박물관(계속 사업)을 추진했다. 다문화정원 조성은 팽성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로 완성되었고, 골목환경 개선사업은 안정리의 오래된 골목 중 일부 구간을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정겨운 골목으로 바꾸고자 한 사업이다. 주민과 미군 가족이 미술 수업과 도자기 수업을 하며 모은 작품으로 골목갤러리를 조성하고, 부조벽화 · 벽화 · 벤치 · 화단 등을 함께 만들었다.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에 맞춰 골목길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마을 축제로서 마토예술제는 지역민, 외국인들과 경기지역 일원에서 온 셀러들이 평소에 제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과 문화체험프로그램, 다문화 푸드코트, 문화예술 공연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5년 마토예술제는 진행 월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메인 프로그램과 공연 · 전시의 비중을 늘려 문화행사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으려 노력했다. 2015년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은 앞선 두 번의 행사의 장점을 모아 전문가와 일반인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 여기에 공간운영 프로그램인 ‘수상한 의상실’을 연계하여 주민들과 아이들이 헬러윈 의상과 박스로봇을 만들어 축제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팽성상인연합회 가게 150여 곳의 참가를 유도했다. 상인들의 의견에 따라 처음으로 전야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미군부대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일정을 헬러윈 데이에 맞췄다. 작년에 이은 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는 안정리 일대 마을 경로당 노인들의 초상 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한미 양국 중심의 협의체인 ‘한미문화예술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다국적 협의체인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다국적 다문화 협의기구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 사업은 거점 공간 중심사업으로서 2015년에 들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1] 1층에서는 시니어카페, 마을브랜드 ‘안정맞춤’의 제작 · 판매 숍 ‘이웃상회’, ‘수상한 의상실’, 주민들의 봉제 · 의상 교실인 ‘췌매소잉’을 운영했고, 수시로 1층 공간에서 작은 파티와 공연을 열었다. 시니어카페는 안정10리 경로당 노인회 회원분들, 부녀회 등에서 주관하여 오일장마다

열었고, 시니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이웃상회’ 프로젝트는 작가, 디자이너가 봉제기술을 가진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자긍심을 재생하기 위한 마을 예술상점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수상한 의상실은 주민들이 코스튬 축제용 의상과 소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췌매소잉’ 프로그램으로 연장하여 운영했다.

[2] 2층 공간에서는 생활사박물관 상설전시관, 도자기교실, 팽성시스타 등을 운영했다. 생활사박물관은 2014년 추진됐던 ‘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 결과물을 모아 상설전시장으로 꾸민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평택 농업과 어업의 생명줄인 안성천을 따라 이어진 마을들을 걸으며 만난 마을과 사람, 그들의 생활사를 통해 평택의 ‘어제와 오늘’을 담아냈다. 생활공예교실에서는 미군과 주민을 대상으로 도자기 수업을 진행했다. 시니어 치어리딩팀인 팽성시스타도 꾸준히 운영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KBS전국치어리딩대회 일반댄스 부문에서 금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와는 별도로 소규모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한 업사이클링 골목(木)공방은 목공 수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했다. 습득한 목공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골목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화단 보수, 벤치 만들기 등에도 참여했다.

2015년 사업 평가는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 간담회(FGI)를 통해 평가와 의견 수렴을 거쳤고 운영직원들의 자체 평가도 진행했다.

[1] 지역 유지 및 상인 간부들이 생각하는 아트캠프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불모지였던 안정리에 따뜻한 문화를 들여왔다’는 점을 꼽았다. 한계점으로는 아트캠프의 활동이 아직은 도시재생적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안정리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고 아트캠프 활동의 한계에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고 참여 층과 연령대를 다양화해야 하며, 주부층 특히 스쿨맘들과 학부모회, 봉사단체들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행사 시 일회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먹거리 부스 등 지역 상인 ·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장사하고 즐기면 좋겠다는 의견, 특히 안정리만의 먹거리 상품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골목(木)공방 회원들, 골목환경 개선, 이웃상회, 오픈 시니어카페, 시니어 치어리딩팀 팽성시스타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1] 골목(木)공방은 기술습득, 힐링 등 개인적 성취에 더해, 지역사회에의 기여 부분에서 높은 성취감을 주고 있었다. 공방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협동조합 등 독립적인 운영은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2) 골목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 개개인보다 동네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으로 평가받았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주민 간의 단절된 대화가 시작되고, 골목 미관도 개선되었다. 골목의 분위기가 활기차졌으며, 가드닝 사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자신의 동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골목 조성 후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유대를 지속할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골목환경 개선 뿐 아니라 로데오거리 등의 주요 도로에도 환경 개선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이웃상회’ 참여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매장이 꾸러지며 많은 관심을 받아 매우 기쁘고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봉제 워크숍, 브랜드를 위한 아카데미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 좋겠다, 미군 주부들과 동남아 이주 여성까지 아우르면서 다문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심는 것도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다양한 디자인 실험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용 아트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안정맞춤’ 일이 고정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되길 바랐다.

(4) 오픈 시니어카페는 안정10리 경로당 할머니들과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사랑방을 운영하는 것 같다, 주변의 반응도 좋고 손님도 많아서 재미있고 보람찼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의 협력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말했다.

(5) 시니어 치어리딩팀 팽성시스타는 KBS 방송에 출연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스타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팀 유니폼이 한 벌쯤은 필요하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무대화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아트캠프의 운영직원들은 (6) 마토예술제가 지난 3년간 운영되면서 안정리가 ‘불건전하고 낙후되었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축제하는 동네’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계점으로는 축제가 상가거리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당들 외에는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앞으로 주민·상인·미군의 참여를 늘리고 행사 때마다 새로운 셀러들과 공연·체험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다.

(7) 코스튠플레이페스티벌은 전문플레이어와 주민 참가자 위주 행사 각각의 장점을 합쳐 전문가와 일반인이 모두 누리는 행사를 지향했고, 미군들의 큰 축제인 핼러윈 데이에 맞춤으로써 행사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아트캠프의 공간프로그램인 ‘수상한 의상실’과 골목환경 개선사업의 결과발표회와 연계하여 코스튬 축제의 장에 모두 모음으로써 축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축제의 성향이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으로 경도돼 있어 좀 더 안정리의 특성을 살린 코스튬 축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과, 지역 주민과 미군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6. 안정리 문화재생 3년, 그리고

안정리에서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 운영과 지역문화교류 기반사업은 미군기지 마을에 대한 문화재생이자 동시에 도시재생 사업이다. 낙후된 안정리에 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넣음으로써 경제적·사회적·공동체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정리에서의 문화적 재생은, 쇠락한 마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군기지의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해오며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주민들에 대한 치유와 관계의 회복, 뉴타운 추진 등으로 인해 갈라진 민심의 화합, 미군 중심의 기형적인 상권에 대한 성찰을 통한 건강한 국제적 상권 재구축, 다국적 문화도시에 대한 미래지향적 준비 등이 주요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총평해보면, 첫째, 마을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진행한 다문화정원 조성과 골목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마을환경 개선의 기본방향은 잡힌 셈이지만 전체 마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원인은 아트캠프 역량의 한계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체념’이 더 큰 이유였다. 둘째, 공동체회복 분야에서는 군사시설 이전과 뉴타운개발 백지화 등 구성원 간의 해묵은 갈등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트캠프의 사업이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아트캠프가 주민의 일반적인 문화 향유와 소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문화의 불모지 안정리에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팽성시스타’, ‘시니어카페’, ‘골목(木)공방’ 등 다양한 주민 문화활동을 발굴·육성할 수 있었다. 넷째, 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축제를 통해 로데오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빈 점포도 다소 줄어드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식당 외 다른 점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부재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3년간 아트캠프 사업은 안정리를 ‘자포자기한 마을에서 문화행사가 있는 마을’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주민과 상인들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재생과 상권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7. 3년간 아트캠프의 실험 그 이후를 위한 제언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아트캠프는 각 이장들과 주민대표들·상인회·지역 풀뿌리단체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 공동체 복원을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축제의 경우 연초부터 주민·상인·미군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아트캠프 운영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예술가·주민을 비롯한 지역 자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시는 상인회와 아트캠프의 협력 속에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안정맞춤’ 등 마을브랜드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는 국제문화예술타운의 전망 속에 아트캠프, 예술인광장 조성을 연계하는 소규모 문화거점들을 다수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의 “사람이 보물이다!”라는 표어처럼 안정리 문화재생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를 많이 남기는 일이다. 3년간의 실험을 거친 안정리공동체가 보다 즐겁고 명량한 다인종/다문화/국제공동체가 되기를, 근현대사 속에서 변화와 부침을 겪어온 주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A Three-Year Exploration — Art Camp for Anjeong-ri to be a Hub for Cultural Regeneration

KIM Yun-hwan Director of Paengseong Art Camp

Anjeong-ri Village is waiting for another transformation. It was decided that the U.S. military camps scattered in Korea were to be relocated to Pyeongtaek which includes Anjeong-ri by 2017. A rural village that used to be tranquil underwent ups and downs in line with the military culture throughout the contemporary and modern history of Korea. The village once enjoyed economic prosperity thanks to a high profit from brothel services for U.S. soldiers, but is now financially struggling, and as the New Town Construction Project was scrapped, conflicts among local residents intensified. So the relocation of U.S. military camps to the village, meanwhile, was deemed as an opportunity for a new leap forward to facilitate its economy and community for Anjeong-ri villagers, who were ready to prepare for what was to come by themselves. Against this backdrop, Pyeongtaek City Government extended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village: its plan kicked off to transform the village by carrying out an outsourced research from 2011 to 2012, and in early 2013,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igned an MOU with Pyeongtaek City to run the 'Backbone Project for Exchanges of the Local Culture' and 'Art Camp Project for Paengseong Art Camp' for three years by 2015.

Anjeong-ri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 I believe, has made some achievements including creating a bright 'morning and afternoon' culture with the residents' creativity in the village that used to embrace only the 'night culture in its brothels. The project was replete with moments of crying and laughter, moments of frowning with a lack of understanding with one other, and moments of a bright laughter as trivial misunderstandings got overcome. The period of three years – neither long nor short – enabled heterogeneous groups in language, culture and race to be closer to each other through culture in the same region, understand one another better and share the communal psychic that they were living in the community together.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everyone that was with the Art Camp for three years as lovers of the village.

'Given Zone QX', a group of cultural planners, executed 'a service of devising strategies to establish a basis for exchange of local cultures in the U.S. military camp' upon the request of Pyeongtaek City Government from 2011 to 2012. 'Given Zone QX' came up with tasks to be addressed: forming consensus to bring life back to streets in Anjeong-ri, linking cultural exchanges and creative activities in the village where heterogeneous cultures are converged, regenerating the region creatively through culture, and creating a private-public cooperative system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merchants. This research was based on a survey on status quo of the residents and U.S. soldiers and a survey on their demand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ey wanted parking space to be expanded for their facility environment and a performance space for their facility of cultural exchange, and preferred a park as a facility to improve their lifestyle. In the area of exchange with U.S. soldiers (residents), many claimed there is a high need for exchanges, be they merchants, residents or U.S. soldiers. In the exchange program section, they wanted festivals, culture and art hobby programs and English exchange programs. For Anjeong-ri's future direction and vision, they demanded shopping streets with the combination of culture and art, streets with special themes an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The urgent task to be done was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to revitalize shopping mall streets in Anjeong-ri. Meanwhile, the U.S. soldiers wished to experience the Korea traditional art, and multi-cultural food and music, and to exchange with local residents. As for the image they wanted for the future of the village, Pyeongtaek citizens wanted a foreigner-friendly, international and exotic image, while the U.S. soldiers were in favor of an image that is convenient, Korean-style, affectionate and kind. Based on the survey findings, the following business directions were set: four elements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of Anjeong-ri were creativity, globality, exchangeability and continuity, and three strategies were daily exchanges,

turning culture and art into local resources and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buildings.

The year 2013 was before Paengseong Art Camp was opened but it was when the focus was on projects to establish the basis for cultural exchanges in such forms as Mato Festival and Costume Play Festival. The former Paengseong Health Clinic was remodeled to become the Art Camp. The Paengseong Art Camp was opened in March 2014 to revitalize communication opportunities through culture and art. Communication opportunities flourished through culture and art with the community in everyday life. Such community programs as ‘Open Kitchen/ Cooking Class’, ‘Upcycling Street/Woodwork Studio’, ‘Summer Holiday Program’, ‘Multi-cultural Village Garden Making’ and ‘Christmas Party.’ In May 2014, the ‘Korea-U.S. Culture and Art Exchange Committee’ was formed to act as a stable platform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local residents, merchants and U.S. soldiers. The Village Environment Refurbishment Project covered the formation (work in progress) of a multi-cultural garden, making of ‘Flower Blossoming Anjeong-ri’ by improving the street environment, organization of Mato Festival and Costume Play Festival as village festivals and initiation of building Anjeong-ri Museum of Everyday Life (work in progress) by phas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garden was comple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local youths in alignment with Paengseong Youth Culture House. The project to improve the street environment was intended to refurbish some sections among old streets into beautiful and heart-warming ones. Local residents and families of U.S. soldiers took part in art class and ceramics class to produce artworks which ended up forming a street gallery, and made relief wall paintings, wall paintings, benches and flower beds together. A street concert was even held in parallel with the Costume Play Festival.

‘Paengseong Art Camp’ performed diverse community activities for each space. On the first floor, the Senior Café was opened along with ‘lutsanghwoe (Neighbor Market)’ producing and selling the village brand of

‘Anjeong Machum’ (customized for Anjeong-ri), ‘Susanghan Uisangsil (Suspicious Dressmakers)’ and ‘Ggaemae(Needlework) Sewing’, a sewing and fashion class for residents. There were frequent mini-parties and performances on the first floor. The Senior Café was opened whenever the five-day outdoor market was held as it was organized by members of a seniors’ club at the community house for the elderly at Anjeong 10-ri and the Women Association of the village. It created jobs for senior women. For the ‘lutsanghwoe (Neighbor Market)’ project, artists and designers collaborated with residents skillful in sewing to turn the market into a village art market to revitalize the community viability and self-esteem. Moreover, ‘Suspicious Dressmakers’ is a program where residents learn how to make clothes and props for the costume festival and are induced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After the festival ended, the residents gave feedback to continue on with the program, so there was an extension program titled ‘Ggaemae(Needlework) Sewing.’ On the second floor were a permanent exhibition hall of the Museum of Everyday Life, a ceramics class and Paengseong Sista, etc. The Museum of Everyday Life was in the form of a permanent exhibition hall housing outcome of the 2014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The project embodied the ‘past and today’ of Pyeongtaek based on the village itself, its people and their life story who were encountered as interviewers walked along Anseong-cheon Stream, a lifeline of agriculture and fishing in Pyeongtaek. At the Living Craft Class, ceramics class was held for U.S.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Paengseong Sista, a senior cheerleader team, was steadily up and running, so enjoyed the honor of winning the gold prize in the general dance category at KBS Nationwide Cheerleading Competition last year and this year. A small space was also leased to run ‘Upcycling Street/Woodwork Studio’ to contribute to the cultural enrichment in the community through woodwork class. They also took part in repairing flower beds and bench making in tandem with the ‘Street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so that residents who learned woodwork skills could be

used for the betterment of the community.

Cultural regeneration in Anjeong-ri aimed for the following object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by improving the shabby village environment, cure residents that have been psychologically wounded through ups and downs amid the changes in the U.S. military camps, restore their relationship, reunite the residents in conflicts due to the New Town Project and the life, re-establish a sound shopping district with globality in retrospect of the deformed shopping district driven by U.S. soldiers, and make future-oriented preparation for a multi-national cultural city. To sum up the activities of the past three years, first, in the area of improving the village environment, basic directions were set to improve the village environment through ‘Multi-cultural Village Garden Making’ and ‘Street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2014 and 2015. However, they were not sufficient to make a great impact on the whole village mostly because of ‘residents’ abandonment of hopes on the village’ along with the Art Camp’s limited competency. Second, in the sector of community regeneration, there were limitations to approach long-term conflicts among members due to the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and the scrapping of the New Town Project. There were limitations for the Art Camp Project to serve as programs to solve conflicts because the Art Camp focused on the cultural enrichment and communication among residents. Third, in the field of raising the quality of residents, diverse cultural programs were offered to Anjeong-ri that used to culturally barren. Consequently, such diverse cultural activities for residents were explored and fostered including ‘Paengseong Sista’, ‘Senior Café’ and ‘Street Art Studio.’ Fourth, in the sector of revitalizing the shopping district, festivals were held to bring life to Rodeo Street, positively impacting the facilitation of a shopping district and somewhat reducing the number of unoccupied stores but not to the extent of merchants feeling the difference. In particular, measures to revitalize restaurants and other stores were lacking. In other words, the Art Camp Project of the past three years generated

some achievements 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image for Anjeong-ri – from a village that has given up on hopes to the one with cultural events. There were limitations to culturally regenerate and revitalize the shopping district in the region by mobilizing residents and merchants.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he Art Camp must proactively proceed with the following projects: improving the village environment based on enthusiastic communication with village heads, resident heads, the Merchant Association and local grassroots groups, and engaging in community design for community restoration. Festivals had to be prepared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by residents, merchants and U.S. soldiers. For the Art Camp management program, local resources including artists and residents must be proactively engaged to create a structure to be operated together. Aiming to facilitate a shopping district, Pyeongtaek City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ntensify industry-specific competitivenes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Merchant Association and the Art Camp. Efforts must be underway to develop the village brand including ‘Anjeong Machum.’ Small-scale cultural gateways must be secured to a great extent aligning the Art Camp and the formation of the Artist Plaza in line with prospects for an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town in order to culturally regenerate a city. Just like a slogan of the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People are the Treasure!’, the ultimate goal of Anjeong-ri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 is to generate as many ‘good people and good relationships among people’ as possible. I hope that Anjeong-ri community that has gone through three years of experiments could become a more joyful multi-national and multi-cultural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sidents that have withered changes and fluctuations in the contemporary and modern history of the region could now become the drivers of a new culture.



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안정리 마을재생 프로젝트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

위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사업기간

2013년 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주요사업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조성 및 운영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마을축제(마토예술제,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마을자산 발굴 및 브랜드 개발
마을환경개선

주최

평택시

주관

경기문화재단



대상지 현황

위치 평택시 팽성읍 K-6 미군기지 앞 안정리 일대

면적 2,276,803㎡

인구 6,727명 (미군 6만명 이상 주둔 예정)

마을구성 안정리 12개 리

군사기지에 의존하는 마을, 마을 기능의 상실

· 일제강점기 1942년부터 비행장이 건설되고 1952년 미군이 K-6로 주둔하면서 기지촌이 형성됨. 1970-80년대 유흥 및 미제 유통업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1990년대부터 점차 쇠퇴함. 2004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발표와 개발투자 붐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상권 쇠락, 주거환경 노후, 시설 낙후, 주민들의 이주로 마을이 급격히 슬럼화 · 안정리 일대(2,276,803㎡)에 12개 리 6,727여 명 거주, 약 428개의 점포 위치.

기지 앞 상권 현황

· 인구 및 주택 밀집도보다 상업 밀집도가 높은 상업 중심 지역임.
· 대상지 일대는 쇼핑 로데오거리, 유흥거리, 가구거리, 5일장거리, K-6 신정문 거리로 군사기지 주변마을로서의 흔적이 남아 있음.
· 쇼핑 로데오거리는 기지 앞에 위치하여 미군을 대상으로 특수업종(타투, 미군 대상 옷가게, 환전소 등)이 존재함. 소비가 거의 없고 문화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리, 상품과 상점 모두 낙후됨. 유흥거리는 미군 전용 클럽이 산재한 클럽거리 역시 이용객 감소로 소수의 클럽만 남은 상태임(400개→11개) 가구거리는 70-80년대에 성수기를 누렸으나, 업종이 쇠퇴해 대다수 빈 점포로 남아 있음(10여개). 5일장거리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으로 3일,8일에는 비교적 활기를 띰.

배경

평택으로 미군기지 통합에 따른 미군 증가 대비

2017년까지 미군기지 확장에 따라 미군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미군 주둔지 앞 안정리 상가지역을 활성화하고 미군 수요를 받아들일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함.
※ 용산,동두천,의정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6만여 명 주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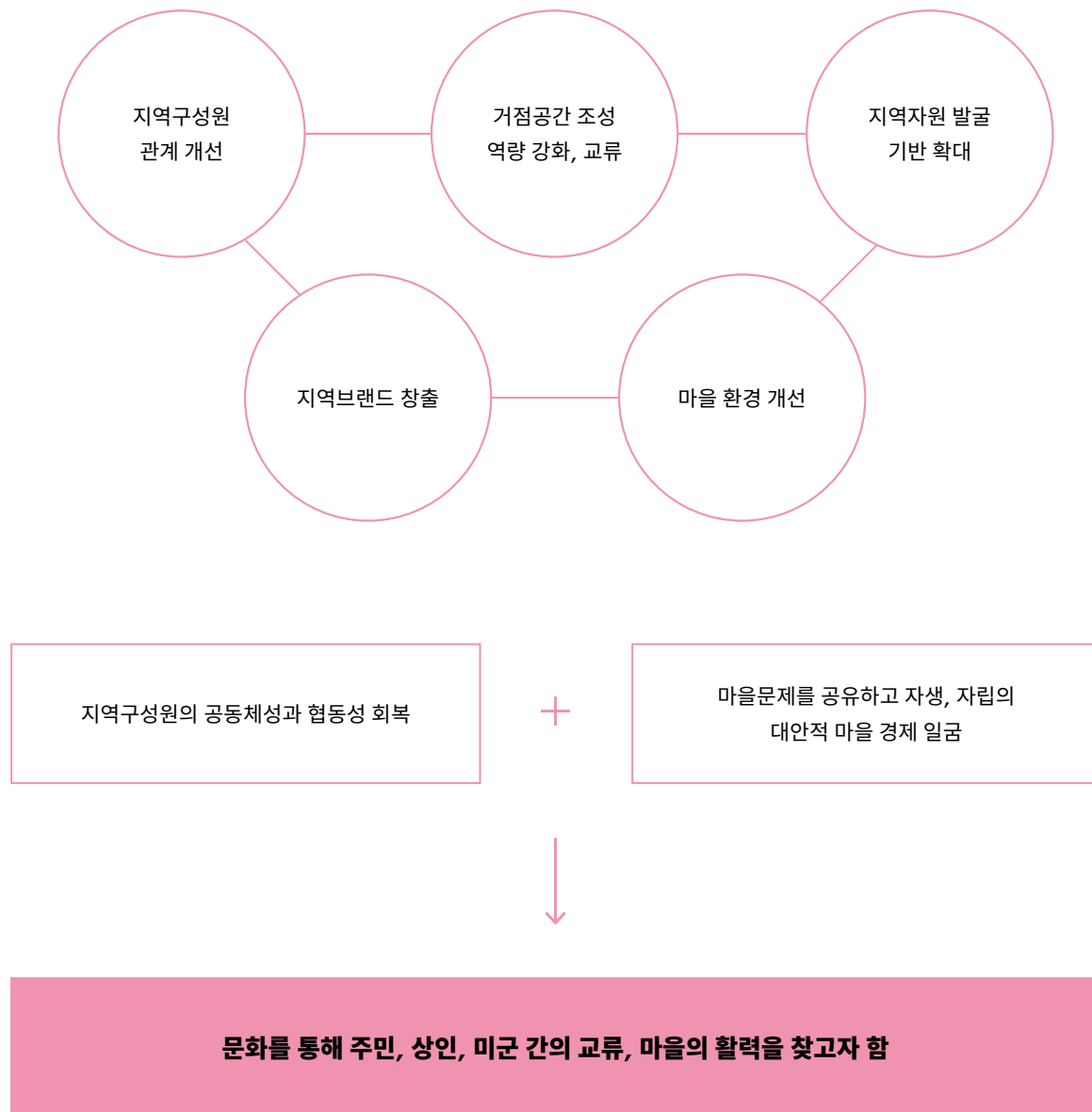
미군기지 주변마을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주민, 미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다문화공동체 형성 및 투자개발로 고조된 주민 갈등 해소.

오랫동안 방치된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 교육과 지역상품 개발이 절실함 빈점포가 많고 유동인구가 적어 지역의 특화된 상품이 없는 등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있음. 미군의 문화생활, 소비, 교류 등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

추진방향



추진전략

전략목표

1단계

관계형성을 통한
이해와 교감
(2013년)

전략과제

지역구성원 소통, 지역관계도
개선
교류기반 구축(거점공간 조성)

안정리 알리기[시급과제]

주요 사업

주민 워크숍, 주민설명회, 마토예술제

팽성예술창작공간 조성 (옛 보건지소 리모델링)

평택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평택바이크축제

2단계

자생적 향유
(2014년)

지역구성원 역량 강화

교류 증진

마을환경개선

지역자원 형성

한미문화예술위원회 구성(추진 체계 구축)
상인, 주민, 지역예술가, 미군 가족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마토예술제(상인, 지역예술가, 미군가족 네트워크 운영)
예술창작공간(카페) 커뮤니티 프로그램
평택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미군, 주민 교류강화)
마을이 꽃이다
다문화 마을정원 만들기1
안정리 생활사박물관/마을잡지 발행
가구 골목 연계 프로젝트(폐가구 업사이클링)

3단계

지역브랜드창출
지역경쟁력강화
(2015년)

지역구성원 자립 활동

자생적 교류증진

마을환경개선
지역브랜드 창출
지역자원 기반 확대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활성화
시니어카페, 골목(木)공방
커뮤니티별 공간 자치운영 및 프로그래밍화 (팽성시스타, 수상한
의상실 등)
마토예술제(주민 자치 운영 확대)
평택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다문화 커뮤니티)
꽃피는 안정리, 다문화정원 만들기2
생활사박물관리서치, 상설전시 운영
마을브랜드제작소 및 예술상점 오픈 상설운영
골목(木)공방 운영

Briefing about the project

TITLE

Anjeong-ri regeneration project

LOCATION

Anjeong-ri Paengseong-eup Pyeongtaek-si

DURATION

2013. 2. 1 – 2015. 12. 31 (3 years)

MAIN PROJECTS

Creating Art Camp(remodeling old health center)

Revitalizing communities

Village festival(Mato fest, costume play fest)

Developing local brands

Exploring local resources

Improving the village environment

HOST

Pyeongtaek-si

MANAGEM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TARGET SITES

Anjeong-ri near Camp Humphreys in Paengseong-eup Pyeongtaek-si

2,276,803m²

6,727people (The nearly 60,000 U.S. troops will stay)

Residential composition 12 villages in Anjeong-ri

A village depending on the military camp, and its loss of functions

As an airfield started to be constructed from 1942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U.S. soldiers were stationed in K-6 in 1952, a military base village began to form. The village enjoyed its economic peak with sexual entertainment industry and U.S. goods retailing business in the '70s and '80s, but gradually declined in the '90s. Conflicts emerged among residents amid the announcement of th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into Pyeongtaek in 2004 and the booming investment for area development projects. Moreover, the village suddenly turned into a slum area as commercial districts went downhill, residential buildings became obsolete and resident moved out.

6,727 residents live in 12 villages in and around Anjeong-ri, and there are about 428 stores.

Current Status of the Commercial District in front of the Military Base

· A commercial center with a high density of commercial buildings compared with the density of population and housing
· Target sites include Shopping Rodeo Street, Entertainment Street, Furniture Street, Five-Day Market Street and K-6 Shinjeongmun Street, showing the legacy as a peripheral of the military base.

Shopping Rodeo Street is located in front of the military base with the presence of specific businesses targeting U.S. soldiers (tattoo, clothes shops for U.S. soldiers and money exchange stations, etc.). There is almost no consumption or cultural activity, lacking in vitality on streets. Products and stores alike wane in quantity and

quality. As for Entertainment Street, Club Street has only a few clubs (from 400 to 11) due to a drop in the number of visitors although U.S. soldier-exclusive clubs lined up there in the past. Furniture Street used to flourish in the '70s and '80s but most of them are empty (10 of them) as the business itself is shrinking in size there. Five-Day Market Street is a traditional marketplace frequented by local residents, which tends to be relatively lively on the third and eighth days every month.

BACKGROUND

Increases in U.S. Soldiers with the Integration of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As the U.S. military base is expected to expand by 2016, the number of U.S. soldiers stationed in Pyeongtaek will increase, so the area needs to facilitate the Anjeong-ri commercial district in front of the military base and be ready to embrace the demand from U.S. soldiers.

※ As U.S. military bases in Yongsan, Dongducheon and Uijeongbu are related to Pyeongtaek, 60,000 soldiers are expected to be stationed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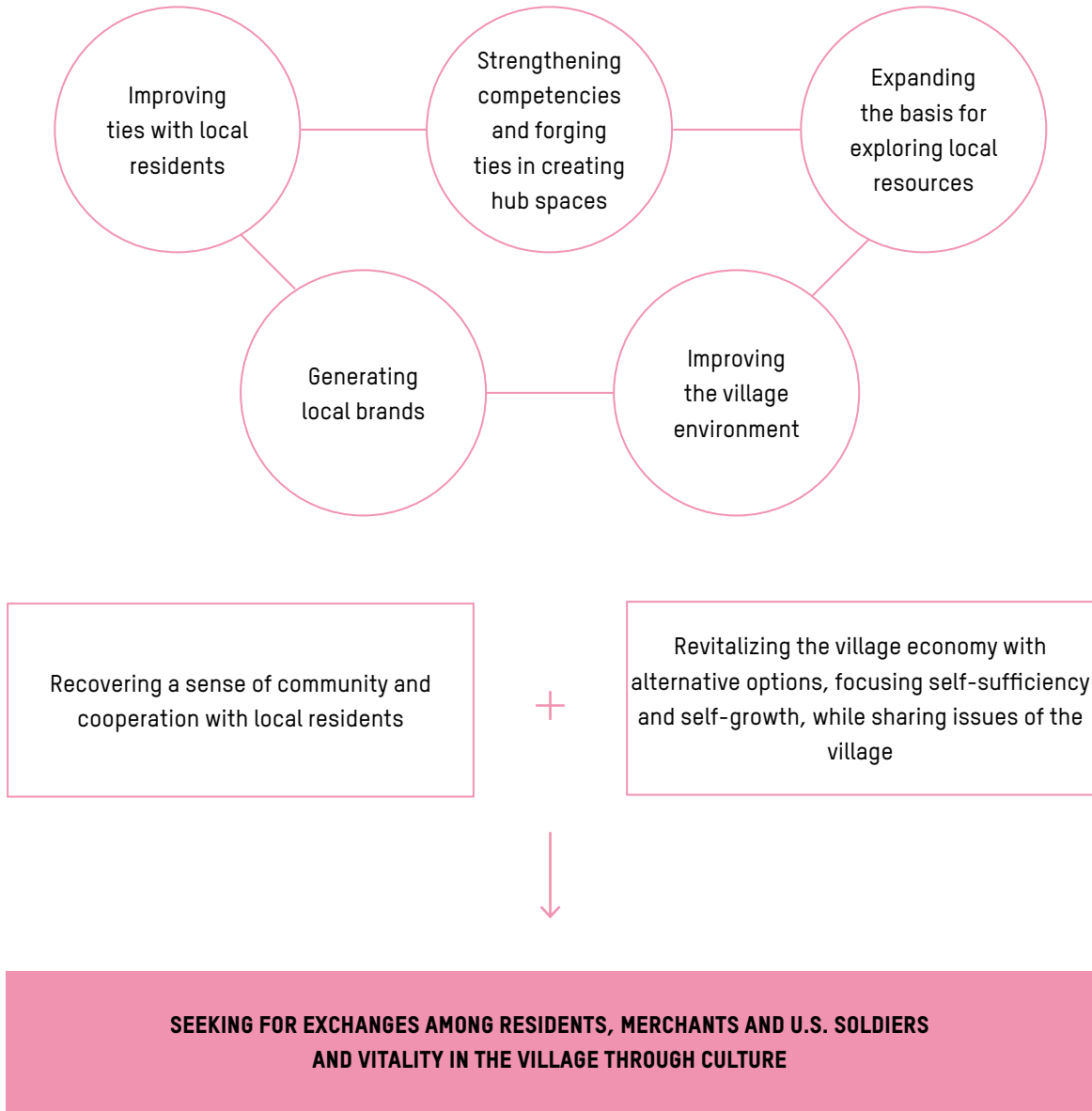
Turning Around the Negative Image of Villages Around the U.S. Military Base

Easing the negative image as 'a U.S. military base town',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residents by forming a multi-cultural community where residents and U.S. troops are happy and healthy, and encouraging investment development

Merchant Training and Local Product Development are Essential to Refurbish a Long-neglected Village Environment and Revitalize the Depressed Local Economy

· Due to many empty stores and little foot traffic, there is a lack of locally exclusive products, which has slowed down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 Identifying and reflecting the demand in terms of cultural lifestyle of U.S. soldiers, their consumption and networking, etc.

DIRECTIONS



STRATEGY

STRATEGIC TARGETS	Subjects of strategy	Main businesses
STEP 1. UNDERSTANDING AND COMMUNION THROUGH BUILDING RELATIONSHIPS (2013)	Communication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Building bedrock for exchange (Local base) Publicizing Anjeong-ri [urgent issue]	Residents Participating workshop, Presentation for residents, MATO festival Creating Art Camp (remodeling old health center) Pyeongtaek Costume Play Festival, Pyeongtaek Motorcycle Festival
STEP 2. SPONTANEOUS ENJOYMENT (2014)	Strengthening of residents abilities Improvement exchanges Improvement of village environment Formation of regional resources	Organizing Korea America Culture and Arts Committee (Building management system) Operation of programs for residents, artists, members of Camp Humphreys MATO Festival (Setting up network for Residents, Artists, Members of Camp Humphreys) Art Studio(Cafe), Program for Communities Pyeongtaek Costume play festival (Exchange between American, residents) Blooming in Anjeong-ri project / Making village garden 1. Anjeong-ri life history museum/Village newspaper Wood up-cycling program
STEP 3. CREATION OF LOCAL BRAND AND STRENGTHENING LOCAL COMPETITIVENESS (2015)	Independence movement of residents Promotion of spontaneous exchanges Improvement of village environment Creation of regional brand Expansion of regional resource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s Exchange Committee Senior Cafe, Woodwork shop Self-governing for each spaces (Paengseong Sista, Sewing class) MATO Festival(Expansion of self government) Pyeongtaek Costume Play Festival (Multicultural Communities) Blooming in Anjeong-ri, Making Village garden 2 Researching for life history museum, Running permanent exhibition Art Shop, Woodwork shop



VILLAGE

110



안정리 그리고 안정리 사람들



김해규 평택지역문화연구소 소장

1. 안정리의 형성 그 변화

조선시대 안정리는 송화리, 대사리, 석근리와 함께 평택현 남면에 속했다. 18세기 초에 편찬된 ‘평성지’에는 당시 안정리에는 안현리와 서정자리 두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안현(鞍峴)의 자연지명은 ‘길마재’다. 안정리 입구 구 극동주유소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산등성이가 길마와 같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서정자는 소당산 서남쪽(신정문 안쪽 급수대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 서정자는 ‘평성지-누(樓)와 정자(亭子) 조’에 “서정자(西亭子) 본현의 서쪽 오리쯤에 있는데, 여기는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와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으로 드나들 때에 머무르던 곳인데, 뒤에 이곳은 민촌(民村)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을 드나들 때’는 통일신라 시기 포승읍 만호리 대진이 대당무역항으로 역할을 할 때이다. 그 때는 정자(亭子)만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 갔는데 나중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므로 서정자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고려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안현과 서정자 외에 안정리를 상징했던 것으로는 안정4리 부근의 ‘농성(農城)’을 들 수 있다. 평성지에는 농성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둘레는 2리(약 1,200미터)쯤 된다고 말하며, 그 기원을 “삼국이 전쟁할 때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감추어 두기 위해 쌓았다는 설”과 “승려 도선이 지맥을 가라앉히기 위해 쌓았다”는 설이 있다고 말한다. 19세기 말에 편찬된 ‘평택현 읍지’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군량미를 쌓아두기 위해 쌓았다는 설을 추가하여 ‘농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을 사실로 여겨 농성을 ‘이성(夷城, 오랑캐성)’이라고 불렀으며, 농성 옆을 지나 평성을 동창리와 내리로 넘어가는 야트막한 고개를 ‘이성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조선시대 평성을 지역은 충청도의 변방으로 마을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간척지와 메마른 황무지뿐이었다. ‘평성지’에도 “고을이 자리 잡은 지역은 손바닥처럼 편편한 땅이라 모두가 메마르고 질퍽거려 쓸모가 없고 면적은 아주 작은 땅으로 아득한 풀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가난한 백성들이 살았던 평성읍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1942년 일본 해군이 안정리와 함정리 일대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청도에 속했던 평성읍은 경기도로 이속하여 진위군 부용면과 서면으로 나뉘졌다. 안정리는 진위군 서면에 속했던 마을이다. 서면에는 대추리 · 두정리 · 본정리 · 안정리를 비롯하여 모두 13개 마을이 있었다. 비행장 건설은 일본군이 조선인 2만여 명을 징용 및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징발해 이루어졌다. 평성을 신대리 망해산과 평택시 세교동 은실마을 앞산의 석재를 캐내 일본군 기지 건설을 위한 비행장을 만들었다. 일본군이 건설한 비행장은 해방 후 미군이 접수했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는 K-6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를 건설했다. 미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안정리와 본정2리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두정2리도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정착하면서 마을 규모가 확대되었다.

2. 일곱집매에 기지촌이 만들어지다

1952년 미군기지가 건설되기 전 안정리에는 안현, 서정자, 세집매가 있었다. 안정1리 안현(길마재)은 안정리 동쪽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다. 본래는 30, 40호 내외의 아담한 마을이었지만 미군기지 주둔 이후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530세대가 넘는다. 이 마을은 전주 이씨 덕천군파 동족마을이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18세기 전반에 편찬된 ‘평성지’와 18세기 후반의 ‘호구총수’에도 기록되었으므로 최소 300년 가까이 된다. 예로부터 주민들은 구릉과 들판을 중심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밭이 전체 경작 면적의 70%가 넘었다. 마을의 주 경작지는 미군기지 신정문 일대였다. 해방 전후 마을의 대지주는 이견0 씨였다. 이 씨는 소작료 5, 6백 석을 거두는 마을 지주였는데, 머슴도 여럿 두고 정미소까지 운영했다. 이 씨의 토지는 농지개혁 때도 소작농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농지가 분배되기 전 미군기지가 주둔했기 때문이다. 농지개혁 때 자영농이 될 기회를 잃은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주둔하자 너도나도 취직을 서둘렀다. 남의 땅 소작 짓는 것보다 적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주민 이견0(1942년생) 씨는 많았을 때는 마을주민 70%가 미군기지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서정자마을은 본래 신정문 안쪽 급수대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 동북쪽으로는 소당산이 보호하고 남서쪽으로는 야산과 경작지가 펼쳐진 소담한 마을이었다. 마을 앞으로는 계양(노양리 일대)과 야산으로 나가는 큰길이 지났다. 기록으로 볼 때 서정자마을이 형성된 것은 1천 년 가까이 된다. 조선 전기의 지리서에도 먼저 서정자라는 누정이 있었고 나중에 누정 주위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기록됐기 때문이다. 서정자마을은 60, 7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마을을 잃게 된 주민들은 고향이나 경작지가 가까운 안정1리 안현(길마재)이나 송화3리 큰말 그리고 구 정문 앞 일곱집매로 이주했다.

일곱집매는 K-6캠프험프리스 구 정문 앞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본래 삼형제가 함께 살다가 떠난 뒤 다른 사람들 일곱 집이 들어와 살면서 일곱집매가 되었고, 미군기지가 주둔할 때 서정자마을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30여 호의 큰 마을이 되었다. 미군 주둔 초기 미군기지 정문은 평성을 함정1리와 본정2리 방향에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 후 기지정문이 안정리 방향으로 나면서 일곱집매는 미군기지촌으로 탈바꿈했다.

1952년 10월경 K-6캠프햄프리즈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구 정문 앞 일곱집매 일대에는 상가들이 들어섰고 주변의 구릉지대와 논밭에는 판자촌(하꼬방촌)이 형성되었다. 하꼬방은 서정자마을 서쪽 소당산 기슭에도 있었다. 기지촌의 상가들은 구 정문에서 로데오 거리의 수정약국까지 약 150m 사이에 많았다. 상가의 대부분은 지붕이 낮은 한옥들이었다. 이들 상가에는 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양복점, 금은방, 사진관, 구멍가게 등이 많았다. 로데오 거리와 안정2리 방향의 뒷골목에는 미군클럽이 많았다. 미군클럽은 많을 때는 12개까지 운영되었다. 미군들은 로데오 거리와 클럽 골목에서 유흥을 즐겼다.

1950, 60년대만 해도 ‘기지촌 드림’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미군기지촌은 직장을 얻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전쟁 피난민,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생존과 돈 벌 기회를, 미국 이민을 꿈꾸는 도시 여성들에게는 미군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기회를 얻기 위해 안정리 기지촌으로 몰려들었다. 미군기지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지와 가까운 안정1리 안현마을과 송화3리 큰말에 많이 거주했다. 아무래도 걸어 다니던 시절에는 부대정문과 가까운 곳이 출퇴근에 편리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에서 허드렛일이나 노무자로 일하던 사람들, 기지촌 여성들, 일부 상인들은 주로 안정2리 구릉지대에 거주했다. 안정2리의 인구가 증가하면서‘농성’앞 물탱크 주변에도 민가들이 들어서 나중에 안정3리가 분동되었다. 그 뒤쪽으로 형성되었던 마을들은 1980년대 초 안정4리와 7리로 나뉘졌다. 본래 7리는 한국전쟁 뒤에 건설된‘피난민수용소’였다. 수용소의 피난민들은 일부가 미군기지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마을 주변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3개 자연 촌락에 불과했던 안정리는 1980, 90년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마을들이 분동되었다. 1리와 2리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5리가 만들어지더니, 성재 너머의 마을들이 6리로 독립했다. 안정2리에는 기지촌 여성들이 많이 거주했다. 포주들은 이들에게 방과 침대, 화장대 같은 가구들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했다. 그래서 산등성이 도로 좌우에는 이들을 상대로 가구를 파는 상가, 일명 가구점 골목이 번창했다. 이처럼 기지촌 인구가 급증하고 마을이 확대되면서 안정2리는 8리와 9리로 분동되었다. 또 안정6리 앞에는 10리가 분동되었고, 1980년대 후반 안정주공아파트가 건설되면서 11리가 되었으며, 영동아파트 일대가 개발되면서 12리가 되었다. 안정9리에는 1970년대 초 시장이 개장됐다. 안정시장은 오일장이 아니라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상설시장이었다. 시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지만

안정리 인구가 줄고 상권이 축소되면서 문을 닫았다. 대신 2005년경부터 안정10리 단위농협 안정지점과 구 안정출장소 골목을 중심으로 오일장이 개장되었는데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지만 아직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안정리 기지촌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구 정문에서 객사리로 나가는 도로 하나 뿐이었다. 비포장의 도로는 매우 질퍽해서 비가 오기라도 하면 장화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다.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비포장도로에는 트럭과 16인승 미니버스가 많이 다녔다. 주민들이나 미군들도 평택 시내로 나갈 때는 미니버스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신정문을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곧게 뻗은 6차선 도로가 건설되었다. 그 뒤에도 안정리 기지촌 일대를 둘러 도로망이 조성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3.기지촌의 풍경들

1950, 60년대 안정리 기지촌은 전쟁 피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땅이었다. 지식인들은 그들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들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1973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군은 징병제였다. 국방이 의무였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모든 미국 남성들은 일정 기간 군대에 복무해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1973년 이전의 미군들은 학력 수준이 높았고 돈의 씬씀이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컸다. 당시 기지촌 상업의 번창은 미군들의 소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기지촌에서는 미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았다. 주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미군들의 사치품이나 귀국할 때 가져갈 기념품이 많았다. 미군들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가구점도 성업했다.

안정2리 골목에는 미군 전용 클럽이 생겼다. 미군클럽은 중심거리(로데오 거리)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정2리 방면 뒷골목에 많았다. 규모가 컸던 맥심클럽은 길 건너 안정10리에 개업했다. 안정리에서 특수관광업을 했던 김0 씨(1942년생)는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클럽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개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1990년도부터 경기도지사가 발급했고 현재는 평택시장이 발급한다. 전성기 시절 미군클럽은 16개나 되었다. 미군클럽에는 흑인클럽과 백인클럽의 구분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흑백갈등이 심해서 흑인들끼리도 싸웠지만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안정리 클럽 가운데 흑인클럽은 두 개였고 나머지는 백인클럽이었다. 특수관광에 종사했던 이00 씨(1953년생)는 백인들은 흑인클럽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흑인들은 백인클럽 출입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인클럽의 주인들이

속칭 물관리를 한다며 흑인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서 언쟁이 많았다고 한다. 미군클럽 종업원은 각자 역할이 있었다. 먼저 주인 아래에 지배인이 있었다. 지배인은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였다. 그 아래에는 기도라는 직책이 있었다. 기도는 힘도 있고 얼굴도 잘생겨야 했지만 무엇보다 영어로 읽기, 쓰기가 가능해야 했다. 클럽에는 디제이도 있었다. 디제이는 전임 디제이와 보조가 한 명씩 있었다. 클럽의 최하층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언어소통은 되지만 배움이 적어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월급도 적었고 주인에게 홀대를 받았다.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클럽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술은 주로 맥주와 양주를 팔았다. 1970년대 이전의 미군들은 돈이 많아서 양주도 잘 마셨다. 곁에 기지촌 여성들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양주를 마셨다고 한다. 클럽에는 기지촌 여성들이 많았다. 전성기 때는 한 클럽에 약 150여 명 내외의 여성들이 일했고, 1970년경에는 등록 여성 1,500명, 미등록여성 400여 명 등 2,000여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일했다. 기지촌 여성들도 정부가 관리했다. 기지촌 여성들은 클럽에 등록하고 보건소 정기검진을 받아야 공식적인 활동이 보장되었다. 혹여 성병이라도 걸리면 클럽의 기도들이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했다.

기지촌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었다. 주민 박화일 씨(1928년생)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에는, 쌀 한 말에 180원 하던 때에 방세가 800원에 달했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나 토착민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방을 늘려 세를 놓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집은 말집처럼 길게 지어진 건물에 개미집처럼 방안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많았다. 기지촌 여성들의 경우에는 포주가 방안에 침대와 화장대, 장롱 등 세간을 마련해주고 방세와 세간살이 값을 따로 받았다.

미군기지촌의 특이한 풍속 가운데 하나가 군표(軍票) 사용이었다. 군표는 해방 후 맥아더 사령부가 처음 발행했다.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지급보증용 군표를 발행한 것이다. 군표는 원칙적으로 미군기지 영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안정리나 송탄, 이태원, 동두천같이 미군기지촌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이것은 화폐 가치로는 달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미군기지의 사정에 따라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문제였다. 군표가 바뀌면 기존의 군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지촌 상인들은 미군기지 내 사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군기지 내 정보는 기지촌 상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미교류협회가 수집했다. 그래서 군표가 바뀔 때에는 사전에 소문이 돌았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재빨리 환전하여 피해를 막았다. 골목에는 군표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도

있었다. 일종의 암달러상이었던 환전상들에게 환전된 군표는 다시 부대로 흘러들어갔다. 미군기지촌을 특징지었던 군표는 1973년부터 사용이 중단되었다. 정부가 군표를 대신하여 달러를 사용한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1960, 70년대 미군기지촌의 가장 큰 문제는 식수와 교통문제였다. 당시만 해도 식수는 우물이나 관정을 박아 끌어올린 펌프가 아니면 얻을 수 없었다. 안정리 상인협회 회장을 지낸 김기0 씨(1944년생)는 1967년 충남 강경에서 올라왔는데 물 길을 곳이 없어서 얻어먹고 사 먹었다고 말했다. 땅이 질퍽대서 통행이 불편했던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라고 자조했다고 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꿈은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지촌에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의 업무 대행업체들이 많았다.

안정리 미군기지촌의 상업은 20여 년 전부터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원인은 미군 감축과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가난한 병사들이 장기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오거나 미국 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징병제 때와 달리 씬씀이가 알뜰하다. 2000년 9.11테러 이후 미군기지 담장이 높아지고 미군들의 외출이 제한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기지촌의 가외 수입원이었던 미군기지에서 반출되는 상품들도 이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근래 미군클럽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는 것도 경기 후퇴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층 높아진 반미의식도 부자유스럽게 하는 요소다.

*‘안정리의 기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터뷰는 <생활사박물관프로젝트> 자료집에 실림.

K-6 Humphreys at military camp town in Anjeong-ri

Kim Hae-gyu History scholar

1. GILMAJAE-GIL, SEOJONGJA AND ILGOPZIPMAE

Anjeong-ri is a military camp town. Straw and reeds live side-by-side just as the Pyeongtaekfield, 100 of years agricultural farming has cultivated the land, an new korean society aroused within an american military camp town, where work became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symbiosis of an special community.

Before 1914 Anjeong-ri part of Pyeongsaeng up belonged to Chungcheong-do old Pyeongtaek. The residents of Anjeong-ri speak very slowly with sluggish movements which can be led back to their Chungcheong roots. In former times in Anjeong there was an influx of seawater in the north and a road passed from the centre of the city of Gaeksa-ri into Gyeyang. In the south run the Chungcheon Suyeong road from Hanyang to Chungnam Boryeong's Suyeong. In the north was an important road passing Lee Sung Jae, Dongchang-ri and Naeri to Daechu-ri. Daechu-ri also called 'Gonzimori'(Gonzijin), in Noyang-ri was a port called Kyungyang-po. The citizens of Anjeong sailed from Gonzijin or Kyungyangpo, Nosan-po crossing the Ansung river coming and going Hyeondeok-myeon or Anjung.

In former Anjeong-ri there were two villages called Seojeong-ri and Anhyun-ri. Seojeong-ri usually called Seonjeong-ja and Anhyun was usually called Gilmajae. The village Seojeong-ja was within the new front door of the K-6 military base (southwest of Sodangsan). In the early geographical books of the Joseon Dynasty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Seojeong-ja is mentioned "In the era of the Three States it is traced chinese delegates rested in residence." The road mentioned started with the road to China past the former residence, passing through the Capital of Silla Gyeongju to Gyeripryeong, Chungju, Cheongju, Jiksan crossing the Anseong River to Pyeongtaekhang(port) nearby Poseung-eup, Manho-ri connected with Daejin. This path was in the time of the Unification War in 660 the main track from Silla to China. Wonhyo's and Euisang are also said to have followed the path to study abroad. The citizens of Seojeong-ja and Gilmajae are mainly farmers. In

the north from Wonjeong-ri on the way to Anjeong-ri are Lee Sung Jae and Nongsong-i. Lee Sung Jae is flat and long and the land around Wonjeong-ri is hilly. Long time ago in the area below Nongsong seawater merged from Hakdari-gol to Nongsong-gol. That is why in the early Joseon era there has been little farmland. The expansion of the farmland in Anjeong-ri has been able by reclaiming additional land area from the sea. Municipals and authorities mobilized poor farmers to reclaim land from sea promising to give them agricultural land to cultivate and settle on the land.

Anjeong-ri has dramatically changed over the period of colonization. In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authorities cultivated an area with tideland and wasteland in the size of Paengseong-eup and converted it into agricultural land. Until today Anjeong-ri is known for its agricultural land named "Deokjjeonnongzang". Deokjjeonnongzang sold seedlings, watermelons, oriental melons and other vegetables. Working on a japanese plantation was even better than to be a tenant farmer, with better salary and no unnecessary interference. The citizens reclaimed their land back in the course of the first Republic farmland reform. The government at that time granted tenant farmers land for 5-10 years. They sold a part of their yieldings and achieved by this way their own farmland. Thanks to tenant farmers became farmers with own property and started a new life.

2. PEOPLE SPEND THEIR WHOLE LIFE WITH FARMING

Anjeong 1ri Gilmajae is the last farming village. Apart from the row houses of the foreigners the houses from 30-40ho are part of the village community. The village with the name Jeonju "Deokchungunpa" is a village on the eastside. Even today the natives are mostly people from Jeonju. The history of the village since its earliest moments cannot be clearly traced back but is mentioned in documents 300 years ago. The condition of the soil in Gilmajae is characterized by hills and slopes. The landscape

has the form of a straw basket and was therefore named “straw basket-village”. The natives earned a living from farming and irrigated rice production. The soil condition was better suitable for farming than rice growing. In addition to grains and beans, sweet potatoes and other vegetables were cultivated. The village lasted for centuries without any change since the construction of an Japanese naval air base in 1942 and the military camp town K-6 in 1952. With that change the neighboring village Sejongja was deported and Ilgopzipmae disappeared in the military camp town. The mountain and the land in front of the old main gate of the military camp town changed to “Hacobangchon”. With the building of a american military camp town 70% of the population was getting a job, all jobs were related to the american base. During the second half of 1970 the military camp town expanded and a huge number of people moved to other villages. With the foundation of the military camp town in place of “Ilgopzipmae” a new village Anjeong 2ri emerged. The population increased and shortly after 2ri and 3ri was founded. Before 1980 there were 3 villages. After 1980 an apartement building(Shinhung) was built in “Gilmajae” and “Songhwari”. With the construction of Anjeongju apartement building 2 additional villages emerged with total 5 villages. 4ri was founded in Songto village, usually called Leesungjae or Sungjae, was a place with no housing. But after the Korean War refugees managed to construct huts, this is how the village was launched. 6ri was launched during the Korean War. They moved and launched the village. Except 4ri and 6ri all other villages emerged due to the increasing urbanization and fierce election campaigns. Until today there are 12 villages and more villages are emerging.

3. THE STRANGE MODIFICATION OF THE LANDSCAPE AS A RESULT OF THE MILITARY CAMP TOWN

As the end of the era of Japanese colonization came the construction of a military camp town began. In 1942 Deokjjeonnongzang and an Japanese naval base were launched. The naval air base(302 unit)

was constructed by 20.000 Joseon draftees, who were forced into military service. After World War II the Japanese occupying forces were forced back and the U.S. forces came. After their independence the land lay fallow for 5 years after Camp Humphreys was constructed. After the military camp town emerged the territory expanded. In Anjeong- ri was a main- and a back gate located. In Bonjeong 2-gil the military base was settled and many emigrants moved in front of the gate of the military base. The road merged in the military base in direction of the old gate and Gaeksari has “Ilgopzipmae” to its right and left.

Eunma was famous(“Never come to Eunma”) for alcohol, women, clubs, shops and houses. There were tailors, jewelries and photo stores. U.S. soldiers primarily appreciated the cheap but good quality of the tailored suits and also liked amethysts that were sold at local jewelries. 1950, in the 60ies, the number of Hachouses increased within the military camp town. Normal citizens lived with the whole family under one roof with a small attic on the roof, where normally household was stored. 1960, in the 70ies, the number of prostitutes for the Americans increased. For this purpose slim buildings with many little one rooms close to each other were built. Hachouses burnt easily. The dwellings of carton and paper covered with a simple roof easily caught fire, if the houses came in direct contact with a flame and burnt up in seconds. A number of people died in this way. In early stages of the military camp town, there was a lack of many things. The search for housing was unimaginable in its extent. There was not enough apartments and the rental rates were comparatively low, therefore people with plenty of land and money constructed many small accomodities for rental which looked like chicken houses. Rental prices rose at top. Mr. Park Hwa Il(2002, 75years) citizen of Anjeong-ri remembered that the monthly rent was 800Won when 1 mal(8kg) of rice was 180Won, but plenty of people had trouble finding an accomodation and were always on the look out for a room. Also the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and the urban infrastructure was very bad. There was a lack of drinking water, that is why many had to buy drinking water. Also the sealing of the

roads were very bad. After raining even the main rodeo became very muddy and without rain boots it was impossible to walk on the road. Hope died off in the dark sidestreets of the military camp town.

4. FINDING HOPE IN THE DARKNESS

After the Korean War many poor and hungry people dreamt of living in a military camp town. U.S. army base offered plenty of jobs and around the camp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to make money. The power of the U.S. Dollar was not to be underestimated in a time where money had been very valueable. One could find ham, sausages and bacon, which were hardly available in other areas, but there were also plenty of other useful supplies. On the streets and in the sidestreets a blackmarket with american goods flourished and the famous “Gulgulijuk” was sold, a porridge that was made of leftovers. This porridge made of the food residues from the military camp town was highly unsanitary but western food and high in protein.

In the military camp town lived a mixed population of former War refugees, poor farmers, people who spoke a few english words and people who were seeking employment. Many of them were laborers or civilian workers but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started their own business. In the beginning most of the shops were based in Anjeong 2ri. In the north of the rodeo one block north there were lots of nightclubs for American soldiers. According to executive director of the Special Sight-seeing Association Kim Woong(2008, 67 years) in 1960, the 70ies, the Minister of Transport had to stamp an official seal before starting a club business. In 1990 the governor of Gyeonggido issued the license and today the mayor of Pyeongtaek issues it.

In times when american nightclubs went well, there were up to 13 clubs. Among the 13 clubs the “Peace-Club” and the “Seven Club” and clubs for the most part were supposed to caucasian/white soldiers. The were also clubs for black people at the back gate. In the second half of 1990 black and white soldiers didn’t violate the sphere of the

other and sometimes it came to ethnic conflicts. At the weekends the soldiers were streaming out of the main gate and went clubbing, drinking alcohol, dancing and listening to music always in company with women. In 1968 about 10 clubs were opened and the number of visitors was so great, many people had no seats and drink and eat where they were. Even curious korean citizens who wanted to visit the club were not allowed to enter the club. The so called “Western brides” or “Western princess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ilitary camp. 1960, in the 70ies, a research across the social classes showed that the number of the female population dominated. According to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Special Sight-seeing Associatoin Kim Woong, in 1960, the closing of the military bases in Paju, Dongducheon, Yeongcheon led to an boom in the increase of the female population in the military bases in Anjeong and Songtan. That is why in early 1970 the number of registered women was 1500, unregistered females 400, total 1900 females were living and working in Anjeong. The women in the military camps required an health examination at the health center to work officially in night clubs. Working in the clubs was one side, many lived with american U.S.

Soldiers together. Many women in the military camp dreamt of marrying and emigrating to America. In fact many made their way to America. But some returned due to social conflicts, domestic violence or language barriers. In the second half of 1970 there was a brothel in the military camp town Anjeong, where they rented several rooms and sold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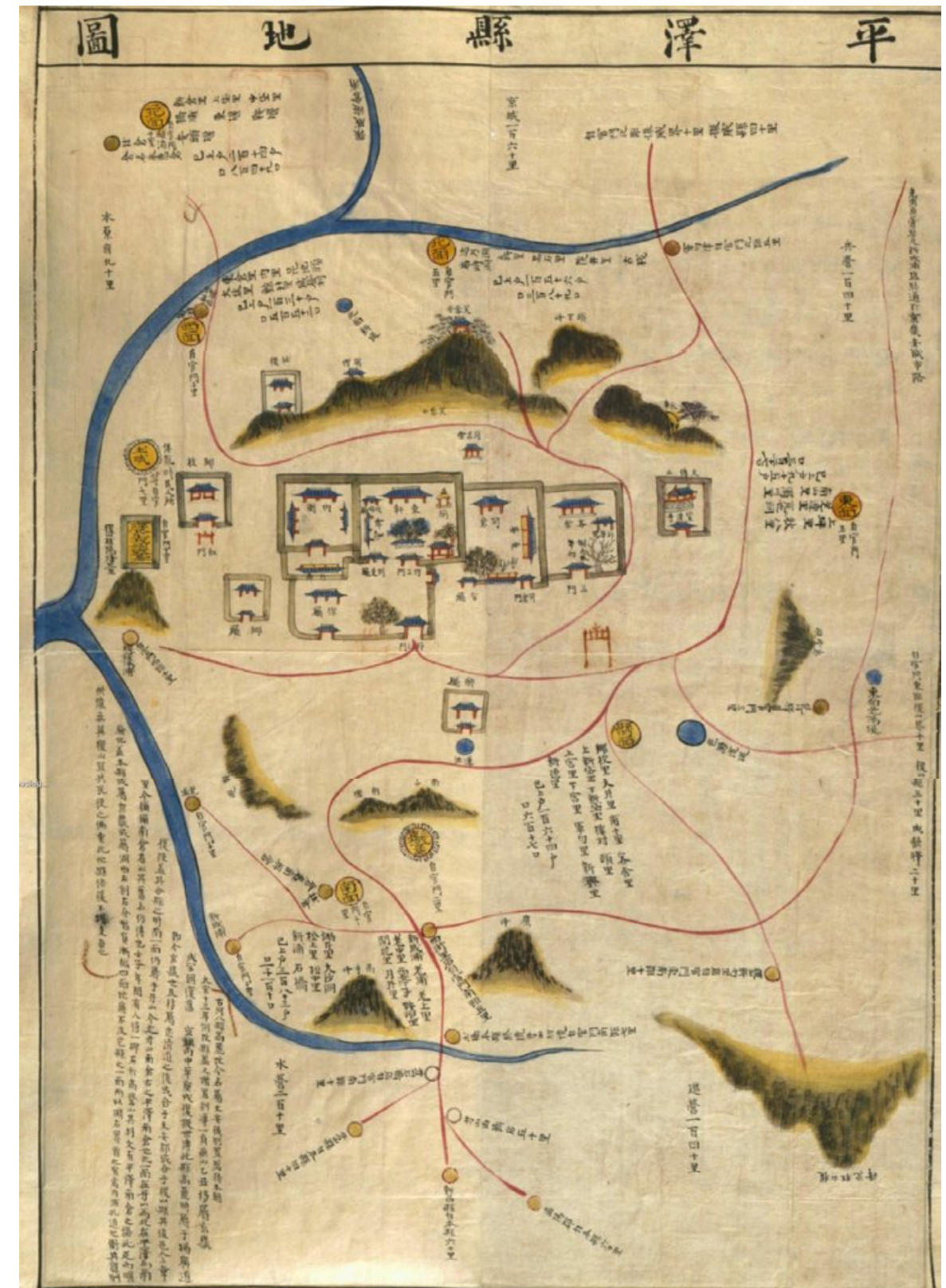
5. THE FACT THAT HOPE DISAPPEARS IN THE MILITARY CAMPS

Koreans drank alcohol at the pub or a open bar. Among the pubs “Jejuok” was one of the most famous ones. Instead of beer and whiskey “makgeolli” was sold at the pub and many guests were laborers. In the korean area were shops located which sold clothes and american supplies/ food, a hairdresser and a barber. In clothes shops

suits coming from the military camps were sold and also blankets.

Until 1970 U.S. soldiers were very wealthy. At that time money was highly valued and the US dollar was very strong. Due to obligated military service U.S. soldiers were wealthy and highly educated. Before 1990 military notes had the same value as banknotes. Although the military notes had the same value in particular the military camp town changed the rules which sometimes became a problem. If the military note changed the old military note became worthless just like a piece of paper. Therefore traders had their informants in order to receive the news early enough. On the sidestreets were money changers that changed military notes into bank notes. The military notes went back to the military camp and were used again by the U.S. soldiers. The boom phase of the military base ended within 20 years. American soldiers were called back and the military system changed into an volunteer military system. Thus poor people reported voluntarily for military service and came into the camp. Since the terror act in 9.11 U.S. soldiers are especially target for terrorist attacks, hence U.S. soldier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ir military camp. After the War in Iraq the number of soldiers decreased. In 1980 the anti-american sentimen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military base as well. Even the dollar became weaker and the once popular american supplies were not popular anymore. Most of the in the meantime 16 nightclubs shut down. In the second half of 1980 when the economy was faltering the number of females in the military camp town rapidly decreased. Nowadays women from russia and east asia are taking their place. In 2000 the rodeo was constructed, to attract tourists, but did not bring any change. Also the market in Anjeong-ri was opened. In the light of such developments the community in Gyeonggido and Pyeongtaek are from now on monitoring the vitalization of the economy.

* 「2014 Anjeong-ri Museum of Everyday Life」 Selection.



마을 풍경





K-6 부대 앞 로데오거리



로데오거리



가구거리



클럽거리



SPACE

2

공간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PAENGSEONG ART CAMP
바위와 씨앗 프로젝트 ROCKS AND SEEDS PROJE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engseong Art Camp



Paengseong Art Camp is a cultural art space which was established by Pyeongtaek City Council and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t the former Anjeong ri health center. In 2014, installation artist Choi Jeonghwa remodelled this abandoned place in traditional 5 Korean colors. Our camp's focus is communication through art and creating a space for sharing the concept of 'The old&The new' and 'Art in daily life'.

ART CAMP

The Art Camp supports the creative activities of local artists and channels the active dialogues through the culture and arts.

The Art Camp aims at new, yet sophisticate cultural trends that everyone can share and enjoy.

The Art Camp promotes the artistic and cultural activities planned, organized and implemented by the residents living in and around Anjeong-ri.

The Art Camp is composed of two, three-story buildings. These spaces have been designed in the traditional 5 Korean colors like Yellow(黃), Blue(靑), White(白), Red(赤), and Black(黑).

YELLOW : BOGGLE BOGGLE CAFE(1ST FLOOR)

This yellow(黃) space represents the center of the universe & light. We hope that the Art Camp will become the cultural center of Pyeongtaek City.

BLUE : STAIRCASE

Blue(靑) represents the blue spaces of creation, energy coming from the ground moving up toward the sky, and the representation of abundant new life in the spring.

RED : WAGLE WAGLE PRACTICE ROOM (2ND FLOOR)

Red(赤) represents creation, passion and vitality. This room was designed(intended?) for community activity.

GREY : TTUKTTAK TTUKTTAK ATELIER, SOGON SOGON MEETING ROOM(2ND FLOOR)

Grey is a mixture of white(白) and black(黑). These places come together as a united grey space with the white color representing pregnancy, truth and purity, and the black color representing wisdom and creation.

ROOFTOP GARDEN AND MAIN OFFICE (3RD FLOOR)

The rooftop garden is a serene resting place for contemplation & quiet. The main office is located on the next to Rooftop garden.

OPEN GALLERY(2ND FLOOR)

'Millennium Present' is an installation by artist Choi Jeonghwa for Paengseong Art Camp. This piece is a red column artwork using the traditional red color of Korea representing 'East and West', 'Old and New' and 'Harmony of daily life and art'.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아트캠프는 주민과 미군 가족들의 교류 및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년 동안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운영하였다. ‘쿠킹클래스’는 아트캠프 초창기 미군 가족과 주민들의 활동을 증진시킨 아트캠프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요리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준 있는 한국의 음식문화를 알리고자 진행했다. ‘한미문화예술위원회’의 미군장교 부인들을 주축으로 메뉴를 구성했고 모집 및 공지도 협력하여 진행했다. 쿠킹클래스는 설 명절을 맞아 떡국을 만들어 주변의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도 했고, 한국 전통음식 및 궁중음식 만들기,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어린이 쿠킹클래스(일명 아이쿱)를 진행하였다. 1년 넘게 진행하면서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참여자가 늘고 인기가 높아졌다. 그러나 쿠킹클래스 외에 활용도가 낮은 ‘카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했다. 또한 아트캠프에서 멀지 않은 인근에 2014년 신설된 팽성국제교류재단에서도 쿠킹클래스, 한글교실을 중복 운영하고 있어 쿠킹과 한글교실 등 미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과 교육을 팽성국제교류재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트캠프는 커뮤니티 중심의 생산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고 1층은 시니어들의 카페, 안정리 브랜드제작소, 수상한 의상실 멤버들이 나누어 사용하며 수업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어졌다. 부엌 공간에서 작업공간으로 전환한 ‘수상한 의상실’은 중국, 대만, 독일, 미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참여하며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바느질은 여성들의 규방 문화를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매체이자 장치였다. 이 밖에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선호 분야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멤버 중심으로 활동을 기획하였다.

아트캠프에서는 5월에 진행한 도자워크숍을 통해 주민과 외국인들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7월 성인반과 주말 어린이 도자공예를 정규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어린이 도자수업은 마토예술제 부스 참여를 목표로 하고 성인도자교실은 마을환경개선과 연계하여 도자벽화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워크숍 진행 당시 어린이 도자공예 참여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인이었던 반면, 두 달 일정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에는 외국인 대부분이 참가를 꺼렸다. 대신 원데이 클래스를 요청했다. 여행 등 이동이 많은 미군 가족들은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꺼려했고, 신청을 하더라도 출결석을 반복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고려해 주말수업을 계획했으나 예상과 달리 참가자들은 미취학 아동들이었다. 때문에 소품을 만들어 판매부스까지 운영하는 것은 무리로 판단되어 8월부터는 월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해 단순 도자수업으로 운영했다. 성인반은 이와 달리 소수였지만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며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다만 도자 벽화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하다 보니 강사도 참여자도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참가자들을 위해 간단히 소품도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갔다. 벽화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도자강사와 마을 환경개선 프로젝트 작가와 협의하였고 디자인과 드로잉은 전적으로 강사가

진행하였다. 도자벽화는 두 종류로 제작되었는데 꽃이나 구름 같은 소품 일부는 어린이들이 참여해 제작하였다. 도자벽화 시공에는 성인 참가자도 모두 참여하였다. 시공 후 참가자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후미진 골목 노후한 건물을 벽화로 아름답게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막상 멋진 작품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릴 수 없는 곳에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팽성시스타, 수상한 의상실, 시니어카페 등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졌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한 관계자들이 서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아트캠프 건물 전체를 아카이브로 전시하고 팽스파티를 열었다.

주민과 미군 가족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티, 골목(木)공방이 제작한 가구 기부식 등이 함께 개최되며, 팽성시스타(시니어치어리딩), 수상한 의상실, 마을이 꽃이다(마을골목길 환경개선), 마을브랜드제작소 등 아트캠프에서 배출한 주민 커뮤니티들의 활동 기록이 입구부터 계단, 옥상까지 전 공간에 꾸며졌다.

2층에 자리한 ‘안정리생활사박물관’(감독 박이창식)은 2년간의 마을 리서치를 통해 안정리의 지리·역사·문화와 함께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사라져가는 풍경과 마을 문화를 담아냈다. 작가들에 의해 진행된 인터뷰 및 기록사진, 기증유물, 채집유물, 재현유물을 통해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기억,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삶의 단면을 살필 수 있다.

1층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작품과 제품들을 전시하고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하였다. 지역 장인들의

마을브랜드 제작소에서는 가방, 파우치, 쿠션 등 미군들에게 인기 품목으로 꼽히는 핸드메이드 예술상품 ‘안정맞춤’ 시리즈와, 다문화 여성들의 수상한 의상실은 코스튬·리폼 의상과 크리스마스 소품을, 골목(木)공방에서는 1년간 목공기술을 배워 협동하여 제작한 책장, 벤치, 테이블 등 목공품들을 전시하였다.

2층 연습실에서는 아트캠프의 시니어치어리딩 팽성시스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과 시범 공연이 있었으며, 마을 축제에 참여했던 플리마켓 부스도 함께 운영하였다. 복도 계단에는 오래된 안정리 골목마다 예술 꽃을 피운 과정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이 꽃이다’프로젝트는 폐가를 위한 그림을 제작하고, 골목 갤러리,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의 설치에 지역 청소년과 미군 부대 내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였다.

아트캠프로 기능이 바뀌기 전 이 공간은 보건소였다. 미군 기지촌에서 유희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여성이 보건증을 발부받고 병을 치료했던 공간이자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했던 곳이다. 지금은 ‘Art Camp 아트캠프’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여성들이 모여 ‘안정리’와 ‘안정리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교류 공간이다.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생산적인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 성장하길 바란다. 최정화 작가의 ‘바위와 씨앗’프로젝트의 바위처럼 아트캠프가 10년 뒤 문화로 꽃을 피울 안정리 마을을 떠받칠 존재로 남길 기대한다.

2, 4 Art Camp 아카이브 전시
1, 3 팽큐파티



1

2

3

4

PAENGSEONG ART CAMP

The Art Camp was planned and run centered on programs for exchanges and experiences for two years with an aim to reinforce exchanges between residents and families of U.S. soldiers and competencies of residents. The ‘Cooking Class’ was an iconic project of the Art Camp that enhanced activities of U.S. soldiers’ families and residents in the initial period. The intent was to promote the Korean culinary culture for many Americans interested in the Korean food. Menus were decided based on the suggestions of wives of U.S. commissioned officers in the Korea-U.S. Culture and Art Committee, and gathering people and giving notices were jointly with them. The ‘Cooking Class’ made tteokguk, a rice cake soup usually for the New Year’s Day on the New Year’s holidays and donated to nearby welfare centers. There was also a cooking class for children (named ‘AiCook (‘ai’ means children in Korean)) for families as well as a class to make the Korean traditional cuisine and royal cuisine. More participants came than what the space could handle as the programs were run for over one year, gaining higher popularity. However, modifications had to be made so that the inherent functions of the ‘café’ that was not used besides for cooking classes could be restored and it could be more diversely utilized. The Art Camp decided to focus on productive culture and art activities driven by the community. On the first floor, members of Senior Café, Anjeong-ri Brand Production Studio

and Susanghan Uisangsil (Suspicious Dressmakers) took classes in turn, and such activities as volunteering work and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took place. The Suspicious Dressmakers, a kitchen-turned-art studio, was participated by multi-national women from China, Taiwan, Germany, U.S. the Philippines, etc. and gained popularity. In fact, sewing is a medium and instrument to enable women to experience the boudoir craft culture and network themselves. Besides, programs and activities mostly engaging members that can make continued participation were planned after selecting preferred fields through pilot programs. In line with the Villag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Ceramics Class’ was opened to set up a ceramics studio later. Ceramic wall paintings were produced in two types, and some of props including flowers and clouds were produced by child participants. Construction of ceramic wall paintings was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every adult there. All the participants, after the construction, must have felt a great pride. Yet, participants felt it regrettable that the wonderful works were installed in a place that is not so easy for many people to see and enjoy, unlike the intent to make old, secluded buildings beautiful with wall paintings.

Operation of the Art Camp programs led to such community activities as Paengseong Sista, Suspicious Dressmakers and Senior Café. The achievements made so far were shared and participants congratulated one another by exhibiting

the entire Art Camp building as an archive and holding a thanks party. Along with it, a networking party was held joined by residents and families of U.S. soldiers, and a donation ceremony for furniture produced by ‘Street/Woodwork Studio’ was also organized. Every space from the entrance, stairs and rooftop space were filled up with activities of resident communities generated from the Art Camp including Paengseong Sista (a senior cheerleading group), Suspicious Dressmakers, Our Village is a Flow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village streets) and Village Brand Production Studio.

‘Anjeong-ri Museum of Everyday Life (directed by PARK-LEE Chang-sik) sitting on the second floor exhibited the stories of the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 of Anjeong-ri and its people through research on the village along with its landscape and village culture that were waning. Artists were involved in the interviews, photography, data collection, and study on donated, collected and represented relics, which revealed one facet of life through the remains and memories of life and banal everyday life. On the first floor, works and products made by residents were showcased, some of which were donated to the local community. The ‘Village Brand Production Studio’ run by local artisans produced ‘Anjeong Machum’ series regarded as popular items for U.S. soldiers. The items included bags, pouches and cushions. The ‘Suspicious Dressmakers’ of multi-cultural women made costumes and re-formed clothing. The ‘Street/Woodwork Studio’ presented woodwork

pieces including bookshelves, benches and tables which are results of collaboration of members who learned woodwork techniques for one year at the studio. The studio on the second floor showed a video and a demonstration with activity highlights of ‘Paengseong Sista’, a senior cheerleading group in the Art Camp, and ran a flea market booth that took part in village festivals. Stairs in corridors were with artistic trajectories in each of the old streets in Anjeong-ri. The ‘Our Village is a Flower’ project, meanwhile, was formed based on the lives of residents and their stories. For old unused houses, paintings were produced, a street gallery was shown and benches were made for residents to rest on. The project was joined by local youths and those in the U.S. military camp.

Before it turned into the Art Camp, the space was a medical clinic where prostitutes in the U.S. camp village were given a medical service card and received treatment, and where residents’ health was looked after. It is now called the ‘Art Camp’ where multi-national women get together to know more about ‘Anjeong-ri’ and ‘Anjeong-ri people’ by exchanging ideas about their own culture with each other. Hopefully, the space could prosper as a space for productive cultural activities for residents. Just like the rocks in artist CHOI Jeong-hwa’s ‘Rocks and Seeds Project’, the Art Camp could serve as a rock to support Anjeong-ri Village so that flowers of culture could blossom in 10 years down the road.

- 1 Cooking class
- 2 Korean paper craft
- 3 Gayageum workshop
- 4 Performance



1



2



3



4

프로그램 2015

커뮤니티 강화	수상한 의상실	2015. 8-12 아트캠프 1층 보글보글 카페 특수 의상(코스튬) 만들기(23회), 박스로봇 만들기(6회), 로봇가면 만들기 워크숍 퀘매소잉(마을환경개선과 연계한 재봉작업)(8회) 강사: 이재영, 김현순, 조은경, 이제준 참가자: 총 68명
	도자공예	2015. 7-11(35회) / 아트캠프 2층 똑딱똑딱 공방 성인 도자공예, 주말 어린이 도자(Clay Play), 참가자: 138명 활동: 도자벽화 설치(10/22) 대상지: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29번길 69-4
	어르신치어리딩 '팽성시스타'	2015. 2-11(주 1회) 총 45회 아트캠프 2층 와글와글 연습실 참가자: 18명, 코치 고은선
	시니어카페 '오픈다방'	2015. 6-11 바리스타 교육 (5회), 카페운영 (21회), 참가자: 6명
다문화교류	오픈키친 쿠킹클래스	2015. 2-5(총 9회 진행) 아트캠프 1층 보글보글 카페 떡만두국, 오색비빔밥, 어린이궁중떡볶이, 잡곡밥, 꼬마김밥, 구절판 외 참가자: 총 287명
	한글교실	2015. 3-4 (주 1회 총 8회) 아트캠프 2층 똑딱똑딱 공방, 참가자: 15명
	전통공예 한지램프 만들기	2015. 3(주 1회 총 4회) 아트캠프 2층 똑딱똑딱 공방, 참가자: 6명
파일럿	워크숍	2015. 4. 20/5. 11(2회) 아트캠프 2층 똑딱똑딱 공방 프랑스자수 가방 만들기, 프랑스자수 파우치 만들기, 참가자: 15명, 25명 2015. 4. 25 아트캠프 2층 연습실 가야금 워크숍, 참가자: 25명 2015. 5. 9 (1회) 아트캠프 2층 똑딱똑딱 공방 어린이 도자공예, 참가자: 52명
	제멋대로 아트캠프	2015. 5. 9 (1회) ‘어린이이야기콘서트’, 퓨전국악연주와 함께 미국인 엄마가 들려주는 전래동화 ‘흥부놀부’ 한국인과 외국인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 참가자: 35명
전시, 파티	아카이브 전시 댕큐파티	2015. 12. 8 아트캠프 1층 - 3층 전실 감사패 증정, 축하, 바비큐파티, 포토월 사진 촬영, 레고 만들기, 3년간의 성과 전시, 참석인원: 200명



1



2



5



4



3

- 1, 2 자수 워크숍
- 3 도자공예 수업
- 4 어린이 도자수업
- 5 도자공예 벽화 설치

프로그램 2014

다문화 교류	오픈키친·쿠킹클래스	2014. 8-11(총 6회 진행) 아트캠프 1층 보글보글 카페 한국요리교실(김치 겉절이 & 보쌈, 오이소박이, 녹두전), 미국요리교실(초코칩 쿠키, 불고기 한상, 애플파이) 참가자: 회당 약 20명
	생활한글/예절교실	2014. 10. 6-11. 21(주 2회) 아트캠프 2층 소곤소곤 회의실 참가자: 지역 주재 외국인 약 10명
	생활영어 캠프	2014. 5-12(주 2회) 아트캠프 2층 소곤소곤 회의실 참가자: 지역 상인 및 주민 약 48명
주민 커뮤니티	어르신치어리딩 ‘팽성시스타’	2014. 3-12(주 2회) 아트캠프 2층 와글와글 연습실 참가자: 지역주민 14명
	어린이 연극교실	2014. 5-8 아트캠프 2층 와글와글 연습실 어린이 심리치유를 위한 연극 놀이 참가자: 지역 어린이 18명
	크리스마스 파티	2014. 12. 12 금 아트캠프 1층 보글보글 카페, 2층 소곤소곤 회의실 아트캠프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파티, 크리스마스 음식 만들기,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 트리 점등식, 공연 발표(심쿵 어린이 무용단, 비보잉 동아리, 매직 드래곤) 참가자: 아트캠프 프로그램 참여자 70여 명
예술창작	아뜰리에 똑딱똑딱	2014. 8-10(주 1회) 아트캠프 2층 똑딱똑딱 공방 한지 등 만들기, 한지 그림 그리기 참가자: 회당 약 10명
	여름방학 프로그램	2014. 7. 28-8. 13(매주 월-수, 총 9회) 팽성예술창작공간[Art Camp] 보트만들기 & 띄우기, 비닐공작놀이, 친환경 재활용 장난감 만들기 참가자: 지역 어린이 및 학부모, K-6 미군가정 어린이 및 학부모 총 292명
기타	행복수업	2014. 5. 21, 5. 28, 6. 10 아트캠프 1층 보글보글 카페 최민준(남아미술연구소 소장)-‘남자아이는 다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최정금(최정금 학습클리닉 소장장)-‘학습놀이, 공부를 놀이처럼 즐겁게’ 손양열(중앙대학교 교수)-‘어린이 외국어 교육’ 참가자: 지역 학부모 총 203명



개관식

2014년 3월 7일, 안정리 옛 보건지소를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팽성예술창작공간[Art Camp]이 개관하였다.
식전행사[길놀이-평택농악보존회, 주민 연극 ‘새빨간 백일몽’, 비나리]
본 행사[개회식, 내빈 소개, 시루떡 자르기 등]



프로그램2013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찾아가 마을의 행사, 일상, 우리
마을의 이슈와 연관된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코스튠플레이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진행한 <코스튠플레이, 우리들의
쇼쇼쇼>, 겨울 농한기에 옹기종기 모여 생활예술품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진 <예술로 겨울나기>를 지역 내 상점에서 진행하였다. 이때는 아트캠프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로데오거리 음식점가 공간을 빌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사전 수요
조사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코스튠플레이, 우리들의 쇼쇼쇼		2013. 10. 28	팽성읍사무소 3층 다목적실
예술로 겨울나기	한땀한땀 가족공예	2013. 12. 20	피노이 바&그릴 (로데오거리 상점)
	어린이 미술놀이	2013. 12. 27	이태리 피자(로데오거리 상점)





바위와 씨앗 프로젝트

기간

2013년 4월 - 2014년 3월

주관

가슴시각개발연구소
(최정화)

사업 내용

옛 팽성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마을의
예술창작교류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지역구성원들 및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오픈키친
카페, 사랑방, 공방,
다목적 연습공간, 회의실,
옥상정원으로 공간 구성



사업개요

안정리의 바위와 씨앗

K-6부대의 이전으로 안정리 로데오거리의 상권이 침체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상인들이 로데오거리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날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빈 점포 수가 늘어나면서 로데오거리 일대는 점점 슬럼화되어 갔으며, 기대했던 가장 큰 소비자인 미군들도 썰렁한 안정리 로데오거리를 찾기보다는 근처 송탄이나 기차를 타고 1시간 거리인 서울로 올라가 주말을 보내 안정리의 상황은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리를 되살리기 위해 최정화 작가는 빈 점포에 살아 있는 씨앗들을 심으려 합니다. 서로 다른 많은 씨앗을 ‘살게 하는’ 안정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테이스트센터를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이 씨앗들은 센터를 거점으로 싱싱하게 자라 안정리를 살아 있는 생활사박물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겉은 겸손하게 속은 건강하게

최정화 작가가 제안하는 안정리 보건소는 부수고 새로 쌓아 불편하게 자리하기보다는, 착하게 바꾸고 예쁘게 고친 편안한 공간입니다.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내용보다는 외관 중심의 화려함을 지향했다면, 최정화 작가의 ‘바위와 씨앗’ 프로젝트는 겉보다는 속을 채우고자 합니다. ‘겉은 겸손하게, 속은 건강하게’ 바뀐 보건소는 향후 안정리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보건소는 안정리의 주민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공방으로 사용될 것이며, 지역 작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안정리의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센터의 녹색 공간을 직접 가꾸기도 하고, 카페 운영도 하고, 전시도 하는 등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센터를 생생하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위치한 카페나 전시 공간에서는 작가들의 전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시 기간 외에는 상인과 주민, 미군들의 소모임 공간이나 워크숍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정리 보건소는 ‘바위와 씨앗’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의 씨앗으로 안정리 전체를 이어주고 엮어주어 침체된 이곳을 싱싱하고 생생하게 만들어나가는 중심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안정리 보건소는 앓은 채로 기다리겠습니다.

바위와 씨앗 프로젝트

설치미술가 최정화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Art Camp는 1987년에 지어져 2008년까지 사용된 팽성보건소와 안정출장소 2동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우리 전통의 색으로 꾸민 이 공간은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 다섯 가지 오방색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층의 노란색 황은 우주의 중심, 중앙, 빛을 상징하며, 이곳이 평택의 문화 중심으로 발전할 것임을 의미한다. 계단실의 푸른색 청은 천지창조의 푸른 공간, 땅에서 하늘로 솟는 기운을 상징하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이다. 2층의 붉은색 적은 생성과 창조, 정열과 생명력을 의미하며 발전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2층의 또 다른 공간인 백과 흑, 흑과 백이 만난 현재진행형의 회색 공방은 잉태, 진실, 순결을 뜻하는 흰색과 지혜 및 창작을 의미하는 검은색이 합해져 융합의 회색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이 공간 작업은 ‘바위와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옛것과 새것’, ‘일상과 예술’의 조화는 최정화 작업의 주요 모티프이다.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가 향후 ‘안정리 마을재생 프로젝트’의 작은 씨앗이 되고, 10년 후에는 튼튼하게 받치고 서는 바위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정화

플라스틱과 비닐, 바가지, 타월 등의 현대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재료들로 작품, 상품, 진짜와 가짜, 예술과 일상, 상업과 통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여왔으며, 국내 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설치미술 뿐 아니라,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가구, 아트디렉팅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5년 제7회 일민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Rocks and Seeds Project

ROCKS AND SEEDS IN ANJEONG-RI

Many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hopping district on Rodeo Street in Anjeong-ri has been on the downhill. Despite the enormous efforts of merchants to restore it, the shopping district is losing vitality every day. The number of empty stores increased, and the area around Rodeo Street turned into a slum town over time. U.S. soldiers that used to be expected as went to Songtan, a nearby bustling area or Seoul via train taking one hour to spend their weekend, instead of empty-looking Rodeo Street in Anjeong-ri, which continuously worsened the situation there. Artist CHOI Jeong-hwa is about to plant 'live' seeds in empty stores to restore the village. The first idea proposed was a data center so



that many different seeds could live in Anjeong-ri. These seeds are to grow healthy as at the center so that Anjeong-ri could become a Museum of Everyday Life that is alive.

HUMBLE OUTSIDE AND HEALTHY INSIDE

Anjeong-ri Health Clinic proposed by CHOI is a comfortable space that has become friendly and pretty through repair instead of a space with discomfort resulting from demolition and rebuilding. While other existing projects pursued the glamour of the exterior instead of the interior, CHOI's 'Rocks and Seeds Project' is to fill up the inside. The health clinic has become 'humble outside and healthy inside' as a community space wishing for a facet to be changed in the future in Anjeong-ri.

The health clinic is going to be used as a training site or a studio that can be used at any time by residents. The space is wide open to not only local artists but also residents. At the clinic, the villagers will take care of the green space, run a café and hold exhibitions: they will give life to the center even after the construction. In the café or exhibition space in the health clinic, artist exhibitions will take place and it will be also used as a multi-purpose space when exhibitions are not held for small gatherings or workshops for merchants, residents or U.S. soldiers. Anjeong-ri Health Clinic is expected to serve as a central space to revitalize and refresh the currently waning area as young artists at the 'Rocks and Seeds Project' could reunite the entire village through a one single seed. Anjeong-ri Health Clinic is going to wait for that to happen.

ROCKS AND SEEDS PROJECT / INSTALLATION ARTIST CHOI JEONG-HWA

Paengseong Art Camp is a space remodeled after Paengseong Health Clinic built in 1987 and used until 2008 and two buildings of a resident community center. The space is uniquely decorated with five traditional colors of Korea – yellow, blue, white, red and black. Yellow on 1F symbolizes the heart, center and light of the universe, implying that this will develop as the cultural hub in Pyeongtaek. Blue of the stairs is a symbol of the blue space of the Creation, the energy exuding from the land to the

sky and the color of spring when everything starts to blossom. Red on 2F means generation and creation, and passion and vitality for a space created for constructive community activities. There is another space on 2F, a grey studio in progress with white, black and the encounter of the two. It is a combination of white meaning conception, truth and purity and black meaning wisdom and creation to be newly interpreted as a convergent grey space. Work in this space was carried out in the name of 'Rocks and Seeds,' whose main motif is the harmony is 'what is old and what is new' and 'banality and art.' It is hoped that Paengseong Art Camp could become a small seed for 'Anjeong-ri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for the future, and a reliably supporting rock in 10 years' time.

CHOI Jeong-hwa

CHOI Jeong-hwa has been a prolific artist using materials representing the contemporary materialistic civilization including plastics, poly, buckets and towels,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artworks vs. products, real vs. fake, art vs. banality and commercial vs. vernacular, pursuing his artistic path at home and abroad. His world of art is diverse, encompassing installation art, design,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furniture and art directing.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in Hongik University, he won the 2006 Art of the Year Award and the 7th Ilmin Art Award in 2005.

추진과정



3월

늦봄 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에 마을 답사에 나선다. 수차례에 걸쳐 안정리 거리를 탐방했다. 빈 점포와 폐가도 적지 않고 거리의 행인도 드물어 침체되고 쓸쓸한 분위기를 지울 수 없지만, 가공되지 않은 마을의 꾸밈없는 생활과 일상 속에서 안정리만의 내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의 외관을 이루는 다양한 모습들 마을의 건축구조, 독특한 색감과 마감, 마을 곳곳에 식물을 키우는 화분과 텃밭이 인상적이다.

4월 9일

첫 번째 안정리 보건지소 공간 및 안정리 일대 답사.

안정리 보건소만이 아닌 안정리 전체의 가치를 살리는 방법 논의.

4월
17일 -
30일

마을재생 프로젝트를 맡은 경기문화재단 사업추진단, 보건지소 공간재생을 진행할 최정화 작가와 가슴시각 개발연구소 담당자, 평택시청 문예관광과장, 주무관 등과 함께 안정리 거리, 오산기지 신정동까지 일정이 날 때마다 마을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났다. 미군부대 기지촌에 위치한 팽성보건지소의 역사적 가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안정리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다.

5월

최정화 작가와 젊은 작가들이 안정리 답사 및 상인회 미팅, 안정리 클럽과 빈 점포를 둘러본다.

안정리가 가진 가능성 및 안정리에 대한 생각 공유.

현재 이태원-해방촌 일대가 기지촌에서 어떻게 문화의 거리로 바뀔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공간디자인, 콘셉트, 구성안에 대해 논의.



6월 20일

공사 담당자, 경기문화재단 담당자, 공간 디자이너, 팽성읍사무소 담당 미팅.

당초 설계는 민원증계소 1층에 노인정을, 보건지소 1층에 카페와 음식 교육 조리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각 기능별 공간 규모가 너무 작아 활동공간 확보가 필요했다.

노인정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1층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 · 검토.

팽성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공사 가림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현수막 수거.

6월 28일

1층은 노인정과 카페의 공간으로 확정하고 카페는 조리교육 기능 포함하여 조성하기로 확정함.

당초 카페 및 음식 조리 공간이 작고 외부 방문객의 출입이 힘든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노인정 공간과 맞교환하기로 함.

당초 설계를 변경하고 시 건축과에서 진행하던 공사 일체를 공간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관함.

7월

공간 디자인 및 콘셉트 보고회.

재설계 진행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



8월 26일

폐현수막으로 만든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나 마을 이장의 반발로 설치한 날 오후에 철거함.

아파트 분양, 세일 광고 등 현수막이 다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마을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강력히 철거를 요구함.

이 건을 계기로 이장단을 비롯한 마을 대표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함.

당초 시 건축과에서 일괄 진행하던 단계에서 작가의 공간재생 프로젝트로 이관되어, 공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는 주민 대표의 요구가 있었음.

9월 4일

마을 이장단 및 마을대표, 상인 사업 설명회.

일부 이장은 미군 가족과 교류하는 공간보다 주민의 편의·체육시설이 우선 조성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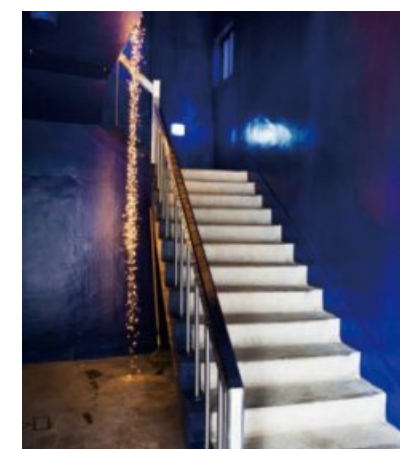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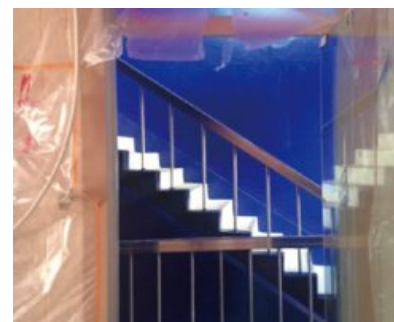
그동안 미군과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는 상인회와 마을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이장단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음.

가장 큰 쟁점은 아트캠프 공간 주변으로 오일장이 열리는 데 공중화장실이 전체 면적에 비해 규모가 커서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이장의 반발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함.

9월 12일

현장 답사, 공사 문제점 확인 및 공간 디자인 보완.

철거할 내외벽 확정.



10~12월

공사 진행.

디자인 확정 및 공사 진행.

방수, 보강공사, 전기통신, 내부 인테리어, 소방 인허가.

2014년 3월 7일

아트캠프 개관.



3

커뮤니티

골목(木)공방 WOODCRAFT STUDIO
팽성시스타 PAENGSEONG SISTA
커뮤니티 연극 워크숍 '새빨간 백일몽'
수상한의상실 THE SUSPICIOUS DRESSMAKERS
오픈시니어카페 SENIOR CAFE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INTERNATIONAL CULTURAL AND ARTS EXCHANGE COMMITTEE

골목(木)공방

장소

안정리 골목(木)공방(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227)

참가자

홍순명(목수/ 상반기),
김승환(목수/ 하반기),
강원구, 김재호, 김연제,
문선민, 김현희, 고지연,
이수정, 정미자, 권태연,
한종희, 이현숙, 조은정,
황경숙, 김갑수, 오혜원,
최승미, 정연서, 정보람
(총 20명)

활동

안정리 골목(木)공방은
2004년 7월부터 업사이클링
목공방, 공방가게를 운영할
목적으로 기술수업을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부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운영
모임이다. 목공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마을에 버려진
가구를 수집, 나무를 만지며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가구와 소품을 제작한다.
판매, 홍보, 체험활동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연말에는 가구가 필요한
곳에 그동안 만들었던
목공품과 수요를 반영하여
공동으로 제작한 가구들을
기증하여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한다.

WOODCRAFT STUDIO

Woodcraft Studio formed in July 2004 is resident's autonomous club engaged in donation activities aligned with the community driven by skill training in order to run an upcycling woodwork studio/store. Residents interested in woodwork collect the furniture discarded in the village, touch the wood, learn the skills and produce new furniture and props. They sometimes raise a fund for operating cost through sales, promotion and experience-based programs. At year-end, they donate the furniture they co-produced, considering the wooden products and the demand for them, to where furniture is needed, practicing sharing and conducting charity work in the community.

안정리 마을은 K-6 구 정문 맞은편으로 길게 뻗은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클럽거리와 가구거리로 나뉘지는데, 가구거리 대부분의 점포는 셔터가 내려져 있고 두 곳만 중고가구점을 운영하며 가구거리의 명맥을 잇고 있다. 이 거리는 옛 거리의 흔적이 남아 1980년대 좁은 골목길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한때 이전해온 미군들의 수요에 맞게 맞춤 가구점이 생겨났고, 가구거리를 형성할 정도로 소비, 거래가 증가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침체된 마을 분위기만큼이나 마을 공터마다 버려진 가구들이 쌓여갔고 재개발을 기다리며 셔터가 닫힌 채로 다른 주인을 기다리는 듯하다. 2014년 7월에 시작된 골목(木)공방은 마을에 버려진 가구와 나무를 모아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는 목공방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날 가구거리의 부흥을 꿈꾸며 시작한 모임이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으니 공방과 이곳을 운영할 커뮤니티에게 거는 기대와, 더 나아가 가구거리 골목경제에 보탬이 될 만한 1호점 가게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바람 속에서 출발했다.

2년 동안 골목(木)공방에서 목공이라는 관심사를 가진 지역 주민 30여 명의 목공기술 연마, 공동 작업, 기부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 내 다양한 축제에서 목공품 판매,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각 구성원들의 의지와 자발성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방의 상시 운영이 입소문이 나면서 외부 방문객이 증가했다. 물론 서로 다른 구성원이 만나 한 모임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 없다. 강사, 구성원 간에 소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이것 역시 과정으로, 골목(木)공방은

구성원 간에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자라나고 있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골목(木)공방에 대한 질투 어린 질책을 하기도 했다. 소수의 인원에게 공적 지원이 편중되는 데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우려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골목(木)공방의 기본원칙은 구성원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고, 수혜를 받은 구성원들은 이들의 노동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환원하게 된다.

이런 원칙에서 구성원 개인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맞닿아 있어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커뮤니티가 유지될 최소의 운영비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마을 공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추진과정 2015

목공수업	상반기	매주 수, 목	오리엔테이션 (목공에 관심이 있어요!)	3월	18, 25 (수)
		오전 9시 - 오후 1시	목재기본이론 공부		19, 26 (목)
			주먹장 맞춤/연습	4월	1, 8, 15, 22,
			목공기계 다루기		2, 9, 16, 23 (목)
	하반기		마토예술제 준비		30 (목)
			[도마/휴대폰 거치대/시계/컵받침 제작]	5월	6, 13, 20, 27 (수)
			장부맞춤		7, 14, 21, 28 (목)
				6월	3, 10, 17 (수)
					4, 11, 18 (목)
		매주 월, 목	개인 사물함 만들기	7월	13, 20, 27 (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원형스тол 만들기		16, 23, 30 (목)
			4단 서랍장 만들기 , 도면/조립/페인팅	8월	10, 17, 24, 31 (월)
					13, 20, 27 (목)
				9월	3(목), 7(월)
목공수업	상반기		9월 마토예술제 준비		10, 17, 24 (목)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 연계 - 야외벤치,		14, 21 (월)
			1인의자 만들기 (도면/목재재단/조립)	10월	1(목)
			울타리 만들기 이론 이해하기		5, 12, 19, 26 (월)
			울타리 제작 및 마을텃밭에 설치		8, 15, 22, 29 (목)
			평택 평생학습축제 참가 준비		
	하반기		[모니터 받침대, 도마, 우드스피커 제작]		
			나만의 수납장 만들기(기획/도면/조립/페인팅)	11월	2, 9, 16, 23 (월)
					5, 12, 19, 26 (목)
			기증가구 제작 (도면/재단/조립/페인팅)		30 (월)
목공수업	상반기		기증가구 전달	12월	3, 10 (목)
					7 (월)

- 1, 2 목공기계 다루기
- 3 소풍
- 4 평택시지역아동센터에 가구 기증



1



2

지역사회 공헌활동	가구 제작	칠판/테이블/우드스피커/모니터 받침대/휴대폰 거치대/우드목걸이 등 제작 → 판매를 통해 기증품 제작비용 마련
	가구 수리	2015. 5-12 상시 운영 시계/의자다리/책장 수리
	프로그램 지원	‘평생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재료 및 설치인력 지원
	가구 기증	2015. 12. 10 기증처: 평생지역아동센터(책장), 노아지역아동센터(벤치), 섬기논지역아동센터(테이블), 꿈나무지역아동센터(책장)
목공품 전시 및 체험활동	마토예술제	2015. 5. 16(1차)/2015. 9. 26(2차) 체험 참가자 수: 약 70여 명(1차)/약 80여 명(2차) 내용: 목공품 전시 및 판매 & 냄비받침대, 열쇠걸이 만들기 체험 # 두근두근 마토예술제에서의 첫 판매! 예상보다 뜨거웠던 반응에 열정 넘치는 회원들, 팔다 말고 추가 제작하러 공방으로 가버리심~
	평택시 평생학습축제	2015. 10. 31 체험 참가자 수: 약 40여 명 내용: 목공품 전시 및 판매 & 테이블, 모니터 받침대 만들기 체험
	아트캠프 연말파티	2015. 12. 8
	목공 작품 전시	장소: 아트캠프 1층 보글보글 카페 내
선전지 답사	1차 2015. 4. 29	MBC건축박람회, 협동조합 마을공방 사이
	2차 2015. 8. 25	협동조합 메리우드, 국립현대미술관
골목(木)공방 정기 운영회의	1차 2015. 2. 13	공방 거처 및 운영방안, 추가 모집 논의
	2차 5. 7	5월 마토예술제 참가를 위한 준비 논의
	3차 6. 18	판매금 관리, 자율 목공모임 규정 제정, 강의진행 관련 논의
	4차 8. 13	9월 마토예술제 참가준비, 회비관련, 폐가구 수집 논의
	5차 11. 05	기증품 제작활동 준비, 공방이전 관련 논의



3



4

추진과정 2014

업사이클링 목공 수업	2014.7-12(주 1회) 참가자: 1기 동호회 (김정란, 강원구, 윤은경, 남상희, 정보람, 장혜경, 김봉환, 김연제, 최병대 외)
재활용 공예 프로그램	2014.8-9(총 10회)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대상으로 재활용 공예 프로그램 운영
선진지 견학	2014.10.29. 성북예술창작센터 하늘공방, 창신동 공방카페(000간), 경기창작센터
아카이브 전시	2014.12 빈 점포(안정리 136-4)에서 공방 작품 전시
작품 나눔 봉사활동	2014.12.22 기증처: 팽성청소년문화의집, 안정리 통합경로당 기증내용: 책장 및 테이블 등



1



2



3



4



5



6



7



8

- 1,2 골목(木)공방 공간구성
- 3 문패 만들기
- 4 회원들과 함께
- 5,6,7,8 목공 작품 전시



1



목공 작품 전시

- 1 아트캠프 1층 카페(2015.12.8)
- 2 마토예술제 참가(2015.5.16 / 9.26)
- 3 로데오거리 빈점포(2014.12.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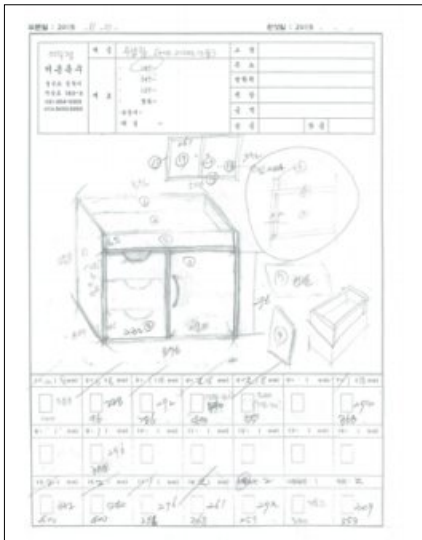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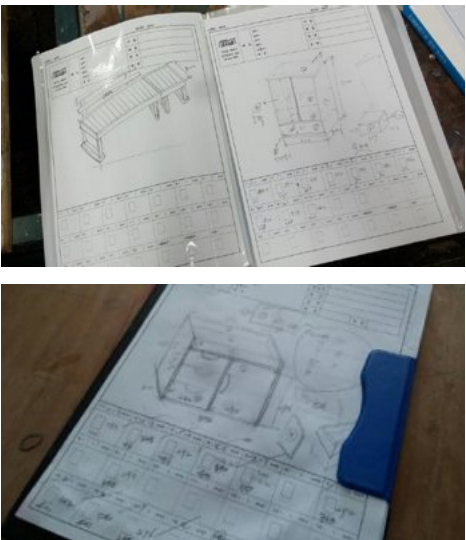


- 1 목재 기본이론 공부
- 2 정기 운영 회의
- 3 선진지 답사
- 4 평택시 평생학습축제 체험활동
- 5 가구 기증 기념식
- 6, 7 도면 스케치
- 8 모집 포스터

6



7



간담회 리뷰

2015. 11. 23 13:00 아트캠프 2층
똑딱똑딱 공방

김윤환(아트캠프 총감독),
김세미(매니저), 김승환(강사), 황경숙,
김재호, 고지연, 이수정, 문선민,
조은정(참가주민)

황경숙: 목공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에 만족도가 높다.

김재호: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고, 즐거운 활동을 함으로써
힐링이 된다.

고지연: 지역사회에 기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긍정적으로 임한다.

황경숙: 수업 시간 내에 제작되는 모든
목공품이 기증된다. 그러나 작품마다
개인의 공이 따르는 만큼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큰 법, 가져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다.

김윤환: 들어보니 공이 들어간 만큼
아쉬움이 클 것 같다.

김세미: 마지막 수업 작품은 개인이
원하는 가구를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해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김승환: 직책과 책임이 주어짐에
따라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의 요인이 된다.

김윤환: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금으로
시작하는 모임은 대부분 차후에 동호회
모임과 수익단체 성격 사이에서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므로, 예산 지원이
단절됐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승환: 마을환경 개선 프로젝트와 연계
진행했을 때 도면 작업부터 좀 더 공을
들여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울타리 작업을 할 텃밭 주변 정리나
이웃들의 동의 등의 사전준비가 좀 더
되었더라면 작업 시 어려움이 덜했을
것이다.

김윤환: 주변에 폐가가 많은데
집주인들을 수소문하여 연락을
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채로 진행한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원
활동과 동시에 뚜렷한 목적과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낼 명목이 필요하다.



팽성시스타

장소 아트캠프 2층 연습실	활동 및 수상 주1회 총 45회 수업. KBS스포츠예술과학원 학장배 전국치어리딩대회 일반댄스(POM) 부문 금상, VJ특공대 778화 ‘극과 극 20대 치어리더 vs 할머니 치어리더’ 출연, 9월 마토예술제 공연, 10월 평택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공연 (총 19명)
참가자 코치 고은선, 이종숙, 백옥선, 김응연, 김기분, 김인숙, 이순자, 정성옥, 최은서, 김기분, 전보애, 정영은, 이순자, 정성옥, 김효희, 박인실, 정은자, 김진희, 이혜정 (총 19명)	

‘팽성시스타’는 국내 최초의 시니어 치어리딩팀이다. 팽성시스타의 출발은 2년 전, 2013년 12월 아트캠프 개관에 앞서 커뮤니티 연극을 진행하며 지역의 끼 많은 여성시니어 몇 분과 관계를 맺으며 시작되었다. 개관식에서 ‘새빨간 백일몽’이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시니어는 후속으로 마련된 치어리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런데 왜 안정리에서 치어리딩인가? 스포츠 팀이 있는가? 팽성시스타는 스포츠 팀을 위한 치어리딩팀이 아니라 안정리 마을 주민을 위한 치어리딩팀이다. 안정리 지역의 많은 노인 인구를 수용해 젊고 활기찬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친 군사기지 마을에서 노년기 여성들이 젊은 활기를 찾도록 하는 게 치어리딩팀 ‘팽성시스타’의 기획 취지다.

이렇게 시작된 팽성시스타는 오랜 수련의 과정을 거쳐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치어리딩 전국대회에 출전, 연속으로 금상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작년에는 주 2회 수업에서 1회 수업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참가를 앞두고는 참가자들 스스로 연습 시간을 따로 정해 연습하고 수업 중에 촬영한 영상을 보며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대회에서도 여느 참가자들과 다름없이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까지 계속 연습했다. 지난 9월 마토예술제에서는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고 그간의

노력으로 실력도 늘어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왔으며,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스타가 된 것 같다, 출세한 것 같다, 치어리딩 때문에 불편했던 관절도 좋아졌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치어리딩은 일반 운동 프로그램과 달리 안무가 정해져 있고 대회나 공연이 있을 때 반복하여 안무를 연습하기 때문에, 중간에 합류하면 적응이 어려워 신규 참가자의 이탈이 많았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열심히 연습하다가도 무대에 나가기 싫거나 사진 찍히는 것이 싫어서 그만두기도 했다. 어떤 이탈 참가자는 텃새가 있더라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2년 넘는 활동기간 동안 회원들은 연습에 전념하느라 운영 뒷바라지는 아트캠프 매니저의 몫이었다. 직접 대회를 등록하고 의상과 차편을 마련하는 등 팀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팽성시스타는 대회뿐 아니라 마토예술제,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같은 안정리 마을 축제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다면 새로운 시니어 리더의 모습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



PAENGSEONG SISTA

‘Paengseong Sista’ is Korea’s first senior cheerleading team. It started two years ago in December 2013 prior to the opening of the Art Camp. A community play was in progress that came to introduce talented senior women, which kicked off the project. At the opening ceremony, the seniors introduced a performance called ‘White Daydream’, who participated in a cheerleading program prepared as a sequel project to carry on the milestones. Paengseong Sista came into being to show a youthful and energetic facet of the elderly life by embracing many senior citizens in Anjeong-ri, and to give youthful vitality to senior women in the tough military camp village. Paengseong Sista went through a long training period, and in 2014 and 2015, it entered a nationwide cheerleading competition and won the gold prize for two consecutive years, exerting their brilliant talent. The group stages performances continuously not only in a competition but also in village festivals including

Mato Art Festival and Costume Play Festival. If they steadily carry on their activities, they will be able to present a new image of senior leaders.

- 1, 2 치어리딩 연습
- 3, 4, 5, 6 KBS스포츠예술과학원장배 전국치어리딩대회 일반대스(POM)부문 2회 연습 금상 수상(2015/2014)
- 7, 8 KBS VJ특공대 778화 '극과 극 20대 치어리더 vs 할머니치어리더'출연(9.18)
- 9 마토예술제(2015.9.26) 오프닝
- 10 사회인야구대회 응원



1



2



3



4



5



6



7



8



9



10

커뮤니티 연극 워크숍 '새빨간 백일몽'

일정
2013. 12 - 2014. 3

장소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
2층 연습실

내용
평택 안정리 중장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고 연극으로
재구성하는 공동창작 워크숍

주관
극단 몸꼴



활동

2. 6 사전 간담회(오리엔테이션)
- 8 특별한 만남, 특이한 인사
- 11 마음속 이야기 나누기
- 13 시와 함께 텅굴기
- 15 음악 표현하기
- 18 '새빨간 백일몽'의 주제곡 연습 및 짧은 연극 창작하기
- 20 플래쉬 몼 — 다른 사람들의 일상 속에 침투하기
- 22 마을로 나가기
- 25 마지막 발표를 위한 작당모의
- 27 본격적인 장면별 연습
3. 1 발표 장면 점검 및 수정
- 4 발표 장면 점검 및 수정
- 5 최종 리허설
- 7 최종발표 공연 — 유쾌한 제의, 해괴한 일탈 속으로!, 간담회

커뮤니티 연극 워크숍은 평택 안정리 중장년 여성들과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굴곡진 여성들의 삶을 반추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유쾌한 연극 커뮤니티로 발굴,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축제와 연계하고자 시도했으며, 개관식에 맞추어 '새빨간 백일몽'이라는 퍼포먼스를 해냈다.

참여자들 모두가 창작자로서 의미를 지니고 한 편의 커뮤니티 연극을 완성시켜나가는 공동창작 과정으로 12회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세 중장년 여성들의 일탈을 코믹하게 담아 아트캠프의 전시, 소개 시 매번 상연되었던 인기 영상물로 남아 있다.

각 프로그램들은 연극의 장면을 만드는 데 밀접하게 연계되어 연습/제작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움직임의 배우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표현함으로써 움직임의 원리를 익히고, 이를 통해 각자의 감각을 담아 나만의 움직임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움직임이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 일상에서 생기는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말로는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한다.

이때 만난 중장년 여성들은 팽성시스타 치어리딩 멤버로 합류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 1, 2 연습 — 마을 속 이야기 나누기
- 3 플래쉬 몼 — 마을로 나가기
- 4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
- 5, 6 '새빨간 백일몽' 개관식 퍼포먼스



수상한 의상실

장소 아트캠프 1층 카페	참가자 강사 이재영, 김현순, 조은경, 이제준.
활동 평택코스튬플레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의상수업,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재봉수업, 특수의상 만들기 23회, 박스로봇 만들기 6회, 껌매소잉 8회(총37회)	송세원, 한혜진, 한희정, 최미애, 이예원 김명옥, 신동주, 이수정, 윤지연, 임미경, 송윤찬, 조용선, 장고경, 정미자, 이영숙, 이수민, 이서준, 조형준, 조원준 김민찬, 신현정, 박영미, 김지예, 김미란, 이인숙, 최혜옥, 이은주, 정영서, 박경숙, 조은정 Antonia, Zaidalyn Tariq, Annie Ho, Norma, Adome Yose, Valentina Ruiz, Sandie Repinski, Ashley Sennet 외 (총68명)



수상한 의상실은 안정리에서 열리는 마을 축제 ‘평택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에 지역 주민이 직접 의상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공간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 이전에 아트캠프에는 재봉 관련 문의와 요청이 빈번했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1층 카페에 브랜드제작소를 오픈하고 재봉틀이 설치되고 지역 장인이 ‘안정맞춤’ 가방과 쿠션을 제작하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방문 문의가 폭발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심 속에서 미싱 수업을 결합하여 의상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수상한 의상실’의 취지를 사전에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미싱 수업으로 이해했다. 첫 수업에서 참가자와 강사에게 지난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에 대해 브리핑하고 수업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참여자는 원하는 디자인을 검색하고 스케치 작업을 했지만 바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간간히 소품을 만들면서 조금 미싱사용법을 익혔다.

‘특수 의상 만들기’ 수업은 커플 코스튬 만들기, 리폼 코스튬 만들기, 우리 아이 코스튬 만들기라는 주제가 있었으나 참가자들이 주제와 상관없이 편한 요일을 선택해 참여했기 때문에 진행될수록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졌고 서로의 제작품에 어울리는 재료를 가지고 오는 등 예상하지 못한 팀워크가 생겼다. 참여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은 1년 내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훨씬 멋진 작품도 만들고 공동작품도 구상할 수 있다. 단기 프로그램이라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후 축제 무대에는 서지 않은 수업 참여자들도

있었으나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축제에 참가했고 일부 참가자는 수상했다.

‘박스로봇 만들기’는 어린이 대상 만들기 수업으로 부모님 참관 수업이었으나, 작업이 난이도가 높고 축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족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라 어린이들이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르는 모든 작업을 부모님이 맡아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 위주의 작업이 되었다. 한 참가자 어머니는 “축제를 얼마 앞두고 급하게 제작하는 것이 아쉽고, 성인 수업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 대상은 난이도를 낮춰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축제를 마친 수상한 의상실은 ‘껌매소잉’이라는 이름으로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도전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암버링(차가운 공공시설에 털실을 이용해 색감과 온기를 주는 스트리트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했다. 참가자들은 법적 문제는 없는지,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내구성에 대해 걱정했고, 대상지를 아트캠프와 가까운 곳으로 할지, 멀지만 잘 보이는 곳으로 할지 의견을 나눈 뒤 대상지 답사를 했다. 마을과 K-6부대 앞 로데오거리를 돌아본 뒤 미군부대 앞 버스정거장에 있는 노후한 게시판을 첫 번째 대상지로 정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동네를 변화시키는 과정과 결과물에 흥미로워했다. 아트캠프는 다국적 여성들이 ‘쿠킹’뿐만 아니라 ‘재봉’을 통해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관계가 밀도 높게 돈독해짐을 볼 수 있었다.

THE SUSPICIOUS DRESSMAKERS

The Suspicious Dressmakers is a space program planned for residents to make clothes themselves and participate in a village festival called ‘Pyeongtaek Costume Play Festival’ held in Anjeong-ri. The Brand Production Studio was set up in the 1F café where sewing machines were installed and local artisans produced ‘Anjeong Machum’ bags and cushion. As these scenes were exposed to the public, inquiries on visits have exploded. Driven by such interest, a sewing class idea was applied to come up with a clothes making class. Adults made special clothes, and children robots using cardboard boxes. They wore clothes and props they made and took part in the Costume Festival. The Suspicious Dressmakers, after the festival,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Villag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the name of ‘Ggaemae(Needlework) Sewing.’ Having looked around the village, Rodeo Street in front of K-6 Camp, they decided to amend the old signage as the first target standing before a bus stop in front of the military camp.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excited with the changing process and outcome in the village. The Art Camp could witness that participants’ bonding strengthened in the course of forming a community by multinational women through not only ‘cooking’ but also ‘sew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 수상한 의상실 오리엔테이션
- 2 재봉틀 다루기
- 3 의상디자인, 제작 이론수업
- 4, 5 특수의상 만들기
- 6, 7, 8 수상한 의상실팀 코스튬플레이 콘테스트 참가
- 9 박스 로봇 만들기
- 10 K-6 부대 앞 게시판(환경 개선 대상물)
- 11 리폼 디자인
- 12 웨매소잉 합동 제작물



오픈시니어카페

일정

2015. 6. - 12. (총25회)

매월 3,8일 장날

장소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

1층

참가자

김길임, 김정란, 박길자,

방석자, 윤계숙,

정복희(노인회)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안정리가 상인, 미군, 주민들로 북적이다. ‘보글보글 오픈카페’는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시작했다. 이곳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시니어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상인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고소한 원두커피 향과 함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미소를 담고 있는 여섯 명의 바리스타가 있다.

아트캠프 1층 카페는 요리를 통해 다국적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카페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사랑방 공간이다. 2014년 공간을 오픈한 초기에는 쿠킹 수업 중심으로 운영해 쿠킹 수업이나 아트캠프 행사 외에는 닫혀져 있었다. 2015년에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장날 오가는 주민들의 사랑방으로서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트캠프 1층에 위치한 안정통합경로당에 매일 모이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참여를 권유, 운영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상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메뉴와 휴게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선호하는 음료는 원두커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곡물차, 젊은 주부들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생과일주스를 선호했다. 휴게공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매우 이용하고 싶다’를 선택했다. 참여할 운영진 모집 후 운영자들과는 오픈카페에 필요한 운영규칙, ‘애완견 출입금지’, ‘뒷정리 잘 하기’, ‘주류 금지’를 만들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픈카페의 판매 음료는 원두커피로 결정했고, 다른 커피숍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커피머신이 아닌 핸드드립 커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 바리스타 강사를 초빙하여 바리스타 실습 및 서비스 교육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티셔츠와 카키색 앞치마 유니폼을 입고 오픈카페의 운영을 알리는 배너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장이 설 때 배너가 잘 보이지 않아 불편했는데, 아트캠프 앞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은 장날마다 배너를 받쳐줄 상자를 내주신다.

오픈카페 운영 초반에는 손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원두커피에 설탕을 타서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에게 “설탕 넣으세요?”라고 꼭 물어본다. 카페 운영은 세 명씩 두 팀으로 나눠 하고 있다. “우리 팀이 더 잘 팔았어~”, “시누들이 다 사줬지~” 등 농담도 하며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여름에는 특히 아이스음료가 잘 팔려 미리 얼려놓은 얼음이 모자라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급히 슈퍼에서 얼음을 사와 모자란 얼음을 충당하기도 한다.

오픈카페는 아트캠프에 온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모금을 받는다. 운영일마다 모금액들을 정산표에 기록하고 회계장부에 입력한다. 모금액은 카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지원비로 사용되고 매월 운영회의를 통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오픈카페를 운영하면서 아트캠프는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해졌고 방문객도 하루 최대 1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카페가 문을 열면 경로당 어르신이 오셔서 “카페 열었어~”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느린 걸음으로 카페에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일장에 장을 보러 온 외국인도 맛이 좋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오픈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인사를 나눈다. 손님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뿌듯함을 느끼신다.

오픈카페를 하면서 어르신들에겐 또 다른 여가활동과 담소를 나눌 공간이 생겼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카페에 있는 친구를 보시곤 카페에 들어와 한참을 앉아 있다 가는 분도 있다. 카페 운영이 끝나는 시간에 여쭙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응이 아주 좋고,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들도 온다고 했다. 카페운영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재미없으면 안 하지”라고 하시곤 다음을 위해 앞치마와 티셔츠를 깨끗이 접어놓고 집으로 가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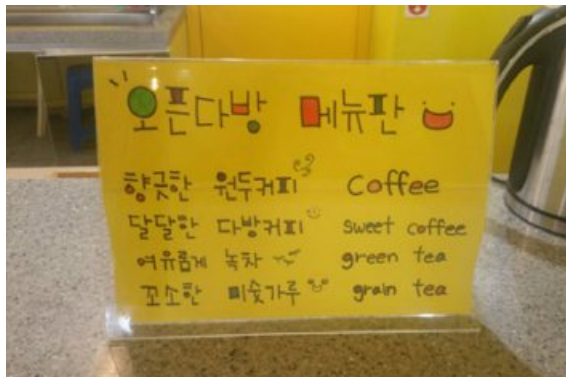
1



2



3



4



SENIOR CAFÉ

When the Five-Day Outdoor Market opens, the village is crowded with merchants, U.S. soldiers and residents. ‘Bogeul Bogeul (a hissing sound in Korean) Open Café’ started with local senior citizens to provide them with a resting place for residents. Seniors trained in barrister courses volunteer to work in this casual welcoming room for merchants and residents. It is home to nutty coffee bean aroma and six barristers with a big heart and a warm smile. The elderly was encouraged to take part who attended Anjeong Senior Community Center on 1F of the Art Camp so that the café could be autonomously operated, its manager was recruited, and barrister training took place.

The Open Café serves beverages to guests and raise a fund in return. On days the café is opened, the fund raised is recorded on a settlement table and bookkept. It is used as a part of the operating expense according to the café management guideline, and the income and expenses are shared among participants through

monthly meetings. The Open Café gave the elderly a place to do leisurely activities and chit-chat. Some would happen to see their friends in the café on their way from grocery shopping and hop in for a long chat. The café gains great feedback from people around and relatives that live near also come there according to those that work there when asked when the café is about to close. When asked if it is not difficult at all to run the café, one old lady said, “I won’t do this if it weren’t fun,” and neatly folded her apron and T-shirt for the next day and went home.

- 1 바리스타 교육
- 2 5일장 카페운영
- 3 운영회의 및 결산보고
- 4 메뉴개발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기간	구성원
2014. 5 - 2015. 12	미군 가족, 다문화센터, 상인회, 지역주민 등
명칭	
구 한미문화예술위원회	
기능	
아트캠프를 거점으로 안정리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치 기구(월 1회)	



2014년 5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자치 기구 ‘한미문화예술위원회’(Korean-American Culture & Arts Committee)를 발족하였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생긴 이래 최초로 주민, 상인, 미군 가족이 문화예술을 교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상인과 캠프 험프리스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으로 구성된 총 36명의 위원은 매 월례회의를 통해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업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2년마다 전임 진출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미군 측 위원이 전출할 경우 공백이 발생하고 아트캠프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서 더 나아가 구성원 간의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6월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로 재구성하였다. 평택국제교류재단, 다문화센터, 상인회 등 지역 유관기관 및 구성원 대표자로 구성하여 평생을 일대에서 일어나는 마을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주민 협력 기구로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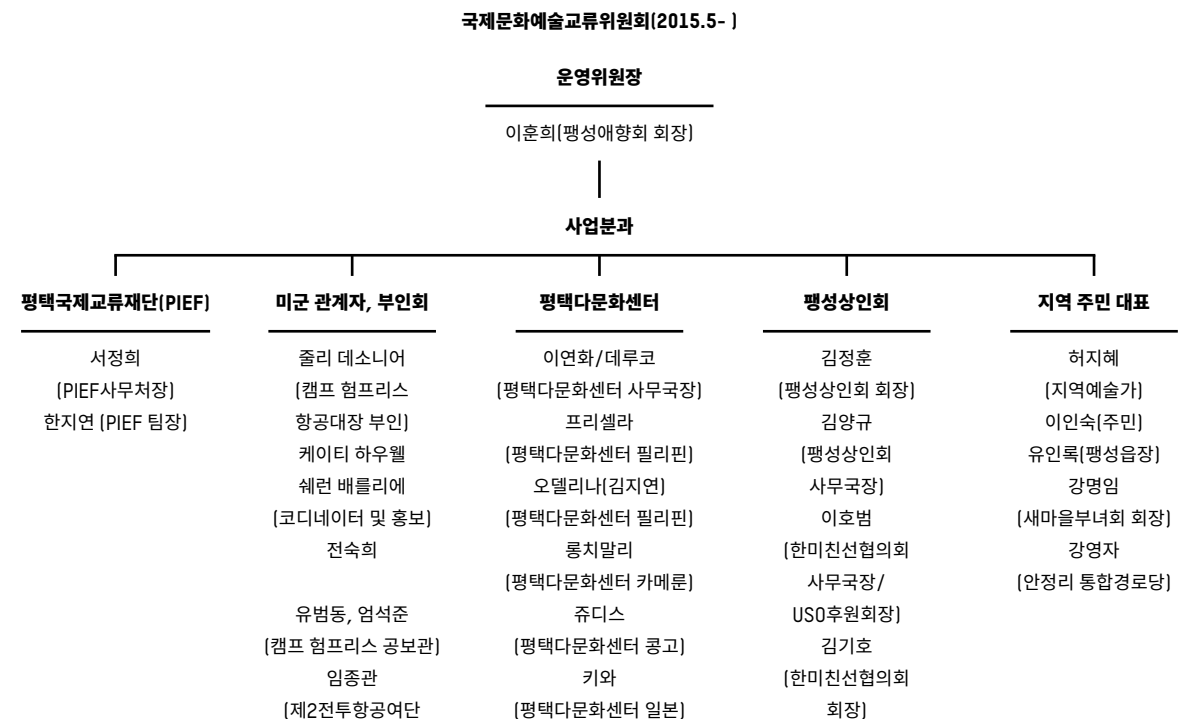
활동

한미문화예술위원회 월례회의

총 13회
2014. 5. 2 / 6. 6 / 7. 4 / 8. 1 / 9. 5 / 10. 3 / 11. 6 / 12. 5
2015. 1. 9 / 2. 6 / 3. 6 / 4. 3 / 5. 1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월례회의

총 6회
2015. 6. 23 / 7. 22 / 8. 26 / 9. 23 / 10. 28 / 12. 11



한미문화예술운영위원회(2014. 5 - 2015. 5)

운영위원장

데비 보렉 Debbie borek
(유나이티드 클럽 회장)
이훈희(팽성애향회 회장)

사업분과장

마토예술제

이호범
(USO후원회장)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김기호
(한미친선협의회장)
미셸 정 Michelle Jung
(캠프 험프리스 장교 부인)

마을이 꽃이다

최인수
(청담중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
수잔 라슨 Susan Larson
(주민)

공간운영ART CAMP

이인숙 (주민)
데비 보렉 Debbie borek
(유나이티드 클럽 회장)

골목(木)공방

강원구 (주민)

운영위원

조성근(팽성읍장), 김은순(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정훈(팽성상인회 회장),
김양규(팽성상인회 사무국장), 이윤상(한국외국인관광협회 평택시지부장),
강영자(안정10리 부녀회장), 김광태(팽성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최승희(부용초등학교 학부모회 부위원), 이연화(평택 다문화 센터장, 일본)
Lori Konkright(캠프 험프리스 사령관 부인), Julie Desaulniers(캠프 험프리스 항공대장 부인),
Edward N. Johnson(캠프 험프리스 공보실장), Howard Seo(캠프 험프리스 USO 매니저),
박주연(Osan AB USO 매니저), Sharon Balilea(미군 관계자),
김기분(주민), 고승현(주민), 곽민정(주민), 박초화(주민), 김정희(주민), 이나미(주민),
최영주(주민), 이소희(주민), 안시정(주민), 김민정(주민), 최경삼(주민), 여광자(주민)



1



2



4



3



5



6



- 1 월례 회의
- 2 위촉식
- 3 선진지 견학
- 4 부대 내 행사 참가
- 5 마토예술제 기획회의
- 6 지역 나눔 봉사 활동
- 7 평택시-경기문화재단 보고회
- 8 K-6 장교부인회

7

8

International Cultural and Arts Exchange Committee

DURATION

2014. 5 – 2015. 12

TITLE

Former, Korean & American culture& Arts Committee

MEMBERS

Camp Humphreys & American Community, Pyeongtaek Multicultural Center, Paengseong traders, Residents

FUNCTION

An autonomous body to discuss and negotiate with local residents to revitalize Anjeong-ri with the Art Camp as the gateway.

The Korean-American Culture & Arts Committee was launched to fully reflect feedback of local residents in May, 2014. Since the U.S. military base came into being in Pyeongtaek, the committee was designed to create an atmosphere where merchants and Camp Humphreys could form trust with one another. The committee consisting of 36 members from Korea, U.S. and Japan has shared roles on proactive mutual cooperation and tasks by sharing ideas and deciding through discussions on projects happening in the village through monthly meetings. However, due to the two-year life cycle of soldiers coming in and out, U.S. members were absent for a while. Moreover, there emerged a need for a consultative body among members to achieve functions beyond the committee's inherent functions to initiate Art

Camp project, the body was restructured into the International Cultural and Arts Exchange Committee in June 2015. the committee consists of heads of related local institutions and members including Pyeongtaek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Multicultural Center and Merchant Clubs. It served as a body for resident cooperation where ideas are shared on village agenda that occur in and around Paengseong-e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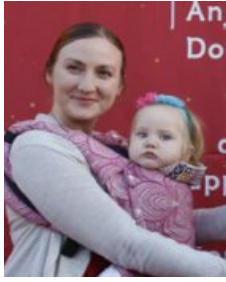
KATIE HOWELL(ICAEC MEMBER)

Hello, my name is Katie Howell and I am a foreigner residing in Paengsong. I moved here with my family in March of 2014 when my husband was stationed with the USFK at the U.S. Army base, Camp Humphreys. Although it is not the experience for all, and possibly not most of the USFK members and families that move to Korea, I have loved having the opportunity to live in Korea from the very beginning. To give another insight into my perspective, I should also say that I have lived in and visited many towns and cities, mostly in the U.S., but also in Latin America and other parts of Asia over the course of my husband's 14 years in the Army. I think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ese things, because due to my nature, and experiences, my perspective is much more accepting of those things that are different in Korea when compared to many small towns in the U.S. that other members of the USFK and their families are accustomed to. So, I feel it is important for me to detail not only my perspective here, but also what I think my fellow foreigners see and think about Anjeong-ri and Art Camp's programs.

To start, I've been asked to explain what my first impressions were of Anjeong-ri. When I first arrived I noted that the village looked outdated and run down. I expected this though, because in the U.S., every Army base I've ever been to has a town outside its gate that is similarly old, unkept, and dirty looking. Other than that, the only thing I felt was culture shock. At the time every business seemed to look uninviting, maybe even a bit intimidating. I have since gotten over that feeling, but I think many foreigners at Camp Humphreys never get over this culture shock, and often choose to stay on the base because of it.

It has been almost two years since those first impressions now, and many things have changed.

There has been wonderful new construction introducing nice modern buildings and businesses to the village. I especially like the new Paradia



building, and the new buildings that have been built close to the gate. With Art Camp and their village regeneration program, there has also been an infusion of beauty into the village. I genuinely hope that in spite of the change in funding, Art Camp will continue the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because I think projects like these take time to take root in the community, and to be noticed and appreciated. Indeed, from my fellow foreigners perspective, I don't think they would feel a difference in the atmosphere of Anjeong-ri overall yet. They don't explore enough to find the beautiful art hiding in the alleys.

So to that point, I will give a few suggestions, though I understand they may be unattainable goals for the project for many good reasons. Firstly, cleaning up the public areas. If it is in any way possible, Americans are obsessed with having trash cans available, and having public trash cans could help keep the streets cleaner. Next, finding a way to work with and encourage the business owners in the village to update their outer look, and to keep their businesses looking more clean and inviting. Lastly,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Art displays throughout the village. Perhaps many of the old buildings owners would even be willing to allow art to be painted directly on the walls. Big displays such as street art would add character and beauty to Anjeong-ri that I am sure would make all residents and visitors pleased. Additionally, perhaps if Koreans and Americans were able to work together on these art displays, everyone would feel a bit more pride in Anjeong-ri.

There are many more ideas I can come up with and share that would make the village more enjoyable for foreigners, but I feel that it is first important to begin with the ideas above. The biggest obstacle is in making it reasonable for the business owners and residents to invest their time and care into helping the progress and image of Anjeong-ri, but I have high hopes that because of Art Camp beginning the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the future will see Anjeong-ri as a place people love to live in and hopefully even visit as tourists some day.

SHARON BALILEA(KATIE HOWELL (ICAEC MEMBER)

When I first wandered Anjung-ri village in June 2013, I did not find it inviting, however, it was adequate to do what we do – find restaurants to take away dinner. Other than that, and an occasional trip to the 5-day market, I found no reason to explore. There were just a few restaurants where I could understand the menus. These were my first impression of Anjeong-ri. And it seemed difficult to adapt myself to this circumstances of the village to me.

But I found interesting place, “Art Camp” in this village. The “project” that I was involved in was with the Art Camp's programs such as cooking, language, gardening. I found them absolutely wonderful!!! And it was an added bonus when there were interactions with the Korean community. I loved the cooking classes where a Korean chef and staff taught us how to make local dishes; the language classes were very well structured; and the gardening meetings where we did designs



with an architect from Dongdaemun Design Center brought out creative juices and team work. Subsequently, I got more involved in promoting Art Camp's other classes including children's pottery, sewing costumes, arts and crafts. It was great Art Camp included the Americans in these events. Furthermore, I did not just stop to take some classes of Art Camp, however. I began finding work to be involved in Art Camp as a coordinator. I arranged the apply of these classes of Art Camp if there were some members of Camp Humphreys and encouraged Americans to get out of the post and enjoy every event of Art Camp.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but Art Camp somewhat bounced back with programs – some even more creative than previous (e.g., displaying children's art in the alley, store, taking a break and having tea during the 5-day market). Art Camp is an absolutely wonderful venue and location – very walkable for those Americans who do not have a car! Please continue to include us in your future classes – pottery, arts and crafts, etc. – just don't make them long term (like more than a month). Also I hope this fabulous place will be maintained with lots of interests from the members of Anjeong-ri village.



VILLAGE PROPERTY

4

마의사

생활사박물관프로젝트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 이웃상회 IN 안정리 VILLAGE ART STORE PROJECT



생활사박물관프로젝트

일정 2014. 3 - 2015. 12	총괄감독 박이창식
대상지 팽성읍 안정리 일대	참여작가 문미희, 김문, 양지영, 김해규, 차경희, 숨, 이한준, 단단, 아오리, 이야기, 이미화, 노에리, 청년생활예술공동체 화수분
활동 안정리 주민의 구술사 · 소장자료 · 기증유물 · 발굴 · 수집, 다큐멘터리 영상작업, 아카이브 전시	



2014-2015 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 ‘안정리 사람들’

박李창식(문화살롱공 대표)

삶의 환경에 의지해 마음이 나아간 자리마다 마음의 흔적이 있으니, 그 흔적이 흘러 모이면 서사(敍事)가 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예술인들은 안정리 사람들의 삶을 담은 생활사박물관 구축을 위해 스스로 가능성을 열고 그 가능성에 화답을 얻고자 주민을 만나면서, 마음에 스친 흔적을 담기 위해 첫눈을 뜨고 말을 배우는 아이와 같이 묻고 또 물어, 안정리에 태(胎)를 묻고 살아온 사람들의 서사를 담아내는 활동을 했다.

평택의 민중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기름진 옥토인 평야를 만들고 마을을 꾸렸으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곳곳에 그들만의 정서와 실체를 남겨놓았다. 하지만 산업화니 공동화니 하면서 새것으로 바꾼다는 이유로 손때 묻은 옛것들을 미련 없이 내다 버리거나 옛 바퀴 먹었다. 긴 시간 안정리 주민과 함께해온 물건은 사용자의 소중한 삶의 기록물이다. 궁핍한 시절의 한과 설움을 함께 이어온 생활 물품은 지나온 삶의 증거로 오롯한 추억이 담겨 있다. 그 정취 어린 물건의 오래된 향기를 통해 안정리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내일을 그려내기 위해 예술인들은 안정리에서의 치열한 삶이 얹힌 물건과 이야기를 담아냈다. 삶을 담은 문화는 거울과도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다. 그런 거울이 없으면 만들어 세우고,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닦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 바른 태도다.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삶을 반영하는 거울을 세우는 것! 진실보다 더 정직한 거울 ‘안정리생활사박물관’을 함께 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생활사박물관 ‘안정리 사람들’ 프로젝트는 2015년 상설전시장(생활사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평택시의 문화예술사업 위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살롱공(대표: 박李창식)의 기획으로 시작했다.

문학 · 미술 · 사진 · 역사 · 영상 관련 예술인들이 모여 안정리의 주민 구술, 소장 자료, 기증 유물 발굴 및 수집, 역사와 문화 · 인문 · 환경에 관한 자료 조사, 다큐멘터리 영상작업 등을 진행했으며, 안정리생활사박물관 ‘사람이 보물이다’ 아카이브 전시를(2014. 12. 5 ~ 2015. 1. 31) 진행했다.

아트캠프 2층에 마련된 상설전시장에는 2014년 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가들에 의해 진행된 인터뷰 및 기록사진, 내용과 기증 유물, 채집 유물, 재현 유물이 전시된다. 안정리 주민의 삶을 모두 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삶을 이루었던 저마다의 흔적과 기억,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삶의 단면을 살필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015년 아트캠프 2층에는 안정리 주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상설전시장’이 등지를 틀었다. 인구수 45만 5,738명, 18만 6,323세대(2015년 8월 말 기준)의 대도시인데도 박물관이 없는 평택에 1호 박물관으로서 우뚝할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유익하다는 상상을 했다. 그만큼 안정리 주민의 삶을 공공의 공간으로 발췌한다는 것은 중요했다. 우리는 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 2년간 주민을 만나면서 그들의 바람을 듣고 또 새겼지만, 여전히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안정리에 국한하지 않고 평택의 젖줄인 안성천을 따라 형성된 여러 마을을 탐방하면서 농어촌의 생활상도 엿봤다. 첫 기착지였던 현덕면 기산리에서 평택 농악의 뿌리를 살폈고, 암 투병 중에도 도랭이(우비)를 손수 만들어 준 공성구 어르신을 통해 농촌의 생활상을 경험했다. 현덕면 신왕리에서는 김인택, 인원환 어르신을 통해 잊히고 사라진 어구를 새롭게 재현하거나 어업노동요를 접하는 기회도 얻었다. 이를 통해 얻은 큰 소득은 이미 잊히고 사라진 생활사 발굴은 어렵지만, 당대 생활상을 잊지 않고 있는 어르신(장인)을 통해 재현해 보존하는 방안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잊히고 사라지는 어촌마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쌈지형’ 박물관 구축, 공동체의 구심점인 ‘풍어제’를 마을축제로 엮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했다.

특히, 기산리-신왕리-삼정리-길음리-당거리-창내리-내리-동창리-안정리로 이어진 길(45Km)을 걸으며 안성천 건너 도두리, 대추리, 동창리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미군기지 건설 현장을 목도하면서 글로 표현하기 힘든 감회도 맞봤다. 이젠 평택에서 미군기지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유전적 결합이 이루어졌기에, 싫든 좋든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갖고 닦아야 할 때다. 그동안 해왔던 낡은 방식인 주한미군 유입 정책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문화에 자긍심을 높일 대안이 필요하며, 영외 거주민 허락된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 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한 중요하다. 이제는 주한미군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기지촌 주민의 공동체적 가치를 높여줄 ‘거리(소재)’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기지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했던 사건과 ‘거리’를 인문적 가치로 묶어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공공의 정책이 필요한바, 아트캠프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활동(안정리 마을재생사업)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4-2015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ANJEONG-RI PEOPLE

PARK-LEE Chang-sik
(Director of MunHwa Salon Gong)

SEARCHING FOR AND STORING THE VESTIGES OF THE MIND

There are the vestiges of the mind that came to be felt upon resorting to the environment in life, and vestiges that float along and get together would become a narrative. Artists put their time and energy in the project of building the Museum of Everyday Life that contains the life of Anjeong-ri villagers from 2014 to 2015. They met local residents to gain insights on artistic possibilities they have tapped onto. Just like the newborns that open their eyes wide, and babies that learn how to speak, they asked them questions again and again to find and store the vestiges of the mind, ended up compiling a narrative of the people deeply rooted in the village.

A MIRROR REFLECTING THE LIFE

The first landers in Pyeongtaek toiled the barren land, turned into a rich field, formed a village and left their own emotions and lifestyle throughout the land driven by their different life experiences. However, what has been there for long and what has left many memories were discarded without any regret or was exchanged with sweet toffies amid industrialization and the hollowing of industries. Goods that have stayed with Anjeong-ri residents are precious records of life for their users. Everyday items that have undergone the regrets/resentment and sorrow during financial struggles are the evidence of the past life and imbue nostalgic memories. Through the nostalgic aroma of the goods full of vestiges, artists tried hard to look into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o portray what was to come. They ended up with artistic works with the goods and stories inside, reflecting the tumultuous life on the land. A life-containing culture reflects things as they are like a

mirror. A proper attitude in life is to make and build the mirror, if it is absent, and cleanses it, if it gets dirty. Setting up a mirror that reflects life of the then in the past is the reason why ‘Anjeong-ri Museum of Everyday Life’ is to be established as a mirror that is more honest than the truth.

PROJECT EXECUTION

The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Anjeong-ri People’ aimed to establish a permanent exhibition hall (Museum of Everyday Life) in 2015. It was co-organiz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 entrusted organization for culture and art projects of Pyeongtaek City Government and MunHwa Salon Gong(director PARK-LEE Chang-sik). They organized and managed the following tasks: exploring and collecting historical data orally described by residents, data they have collected and donated relics; data survey on the history, culture, humanities study and the environment; and documentary video work.

In 2014, artists involved in literature, art, photography, history and video got together for the above tasks, and held an archive exhibition titled ‘People are the Treasure’ of Anjeong-ri Museum of Everyday Life (Dec. 5, 2014 ~ Jan. 31, 2015). In 2015, photography, video and historical work was covered depicting the past life moments and the memories in the village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 brothels for U.S. soldiers and hopes for the future. In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on 2F of the Art Camp, interviews, documentary photography, content and donated relics, collected relics and represented relics all done by artists during the 2014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are exhibited. It is not a 100 percent replica of the villagers but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e vestiges and memories of individuals and their banalities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glimpse at a facet of life.

On 2F of the Art Camp in 2015,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to show a facet of the villagers came into being. In Pyeongtaek that used to have no museum although it is a large city with 455,738 residents and 186,323 households (as of August-end, 2015), it was a pleasing imagination just to grasp the chance to make it the first-of-its-kind

museum in the city. As such, it was critical to extract the life of Anjeong-ri residents into a public space. For the two-year period during the project, we met the residents, listened to their wishes and had them deeply ingrained in our hearts. The answers we got seemed to be wiser than what we asked. During the project period, we visited not only Anjeong-ri but also many villages formed along Anseongcheon Stream, the lifeline of the city, and glimpsed at the lifestyle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the first spot of Gisan-ri, Hyeondeok-myeon, we looked into the roots of the Pyeongtaek nongak (traditional Korean music performed by farmers) and experienced their lifestyle in a farming village through an old elderly named GONG Seong-gu who made raincoats for us even in the middle of being ill with a cancer. In Sinwang-ri, Hyeondeok-myeon, we had opportunities to newly represent forgotten and extinct fishing gear through the two elderly, KIM In-taek and IN Won-hwan, and also to be exposed to fishery work songs. The takeaways were that we could think of ways to represent and conserve the past lifestyle through the elderly (or artisans) who never forget the lifestyle of the past although what is forgotten and gone might be difficult to explore. We thought that one of the options was to build a small museum (‘Ssamzie-style’ in Korean) to offer a glimpse of fishing village lifestyle which is forgotten and waning, and to make a fishing village festival that used to be the center of a community could be retouched to become an official village festival.

My heart was inexplicably touched as I walked on a road (45km long) connecting all these villages – Gisan-ri, Sinwang-ri, Samjeong-ri, Gileum-ri, Danggeo-ri, Changnae-ri, Nae-ri, Dongchang-ri and Anjeong-ri, and witnessed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military camp vastly covering Dodu-ri, Daegu-ri and Dongchang-ri beyond Anseongcheon Stream. Now in Pyeongtaek, the military camp issue cannot be detached anymore to the extent of forming a genetic combination with the city, so it is time to devise and sharpen creative policies for mutual prosperity whether one likes the idea or not. What is needed is an alternative to raise self-esteem for their culture instead of pursuing a conventional and clichéd U.S. military influx policy.

It is also important to institutionally consider their families in the stance of civilians only allowed to live outside the barracks. Instead of considering the soldiers as consumers to revive the local economy, ‘something(instruments/objects)’ to increase the communal value of the soldiers and residents in the military camp village must be developed. To this end, a series of activities initiated at the Art Camp (Anjeong-ri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must serve as a top reference because of a need for public policies as a central point fo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y imposing a value in the stance toward the incidences that have occurred from the moment when a U.S. military camp was set up till now.

아카이브전시 2014

<안정리생활사박물관 – 사람이 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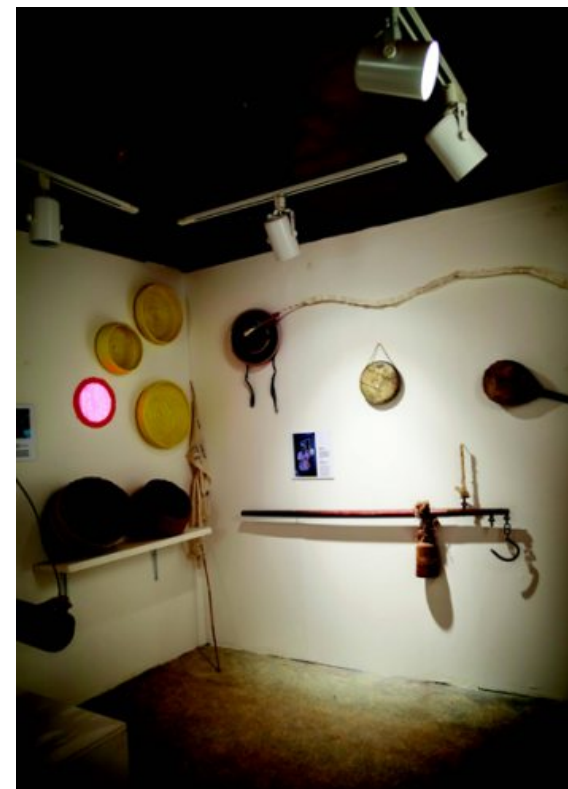
2014. 12. 5 - 2015. 1. 31

생활사박물관(소핑로 4-16)

평택의 민중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기름진 옥토인 평야를 만들고 마을을 꾸렸으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곳곳에 그들만의 정서와 실체들을 남겨 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 새것으로 바꾼다는 이유로 손때 묻은 옛것들을 미련 없이 내다 버리거나 옛 바퀴 먹었다. 긴 시간 안정리 주민과 함께해온 물건은 그 사용자의 소중한 삶의 기록물이다. 궁핍한 시절 한과 설움을 함께 이어온 생활 물품은 지나온 삶의 증거로 오롯한 추억이 담겨 있다. 그 정취 어린 물건의 오래된 향기를 통해 안정리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내일을 그려 내기 위해, 예술인들은 안정리에서 6개월 동안 안정리에서 말을 배우는 아이와 같이 묻고 또 물어, 미군 기지촌의 형성 이전과 이후 태(胎)를 묻고 살아온 안정리 사람들의 서사(敍事)를 담아냈다.

ARCHIVE EXHIBITION 2014

People in Pyeongtaek cultivated the wasteland, created fertile land, and have established their village. And they left their emotion and true nature based on their life experiences. However, we abandoned or changed our old things throughout capitalism and hollowization in order to change everything anew. However, objects that have been together with people are a precious archive of life. Household items that shared resentment and sorrow with people during the austerity years are the evidence of the past time that include intact memories. In order to review the present and derive future through the old smell of these objects, the artists enthusiastically draw out objects and stories in Anjeong-ri for 6 months. Artists asked questions again and again as if they were little children learning how to speak a language for 6 months there, brainstorming on the pre/post-formation of the U.S. military camp village and narratives of Anjeong-ri people.



참여작가 2014-2015

노에리

‘2014년 안정리 사람들’

문화해설사 이상열(30min./HDV)

시인 박종만(30min./HDV)

작가는 문화 교류를 실천하고 있는 두 노인의 시각으로 안정리를 살폈다. 안정리 주민과 미군의 교류는 일차적으로는 상인과 고객의 관계맺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국내 물가상승과 변화하는 미군의 관심과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안정리는 언제부터인가 낙오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상점을 하루 종일 지키고 있는 노인들과 군복을 입고 활보하는 젊은 미군들의 모습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서로 흡수되지 못하는 세대 간의 벽이 느껴진다. '상인과 고객'이라는 안정리 주민과 미군의 대상화된 관계맺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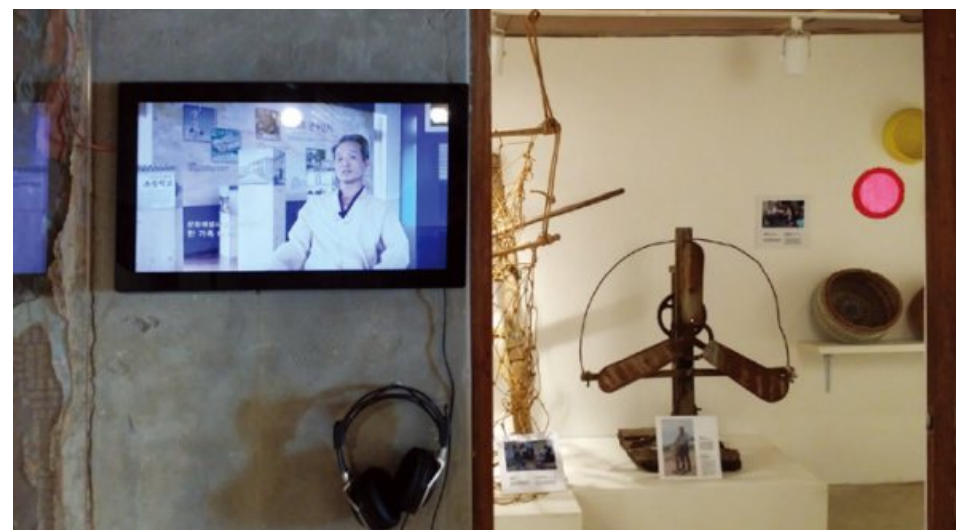
좀 더 나아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문화교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작지만 희망적인 움직임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다.

1. 문화해설사 이상열(30min./HDV)

작가는 공직생활 은퇴 후 자신의 영어 능력을 살려 평택지역 영어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열 씨와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평택지역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2. 시인 박종만(30min./HD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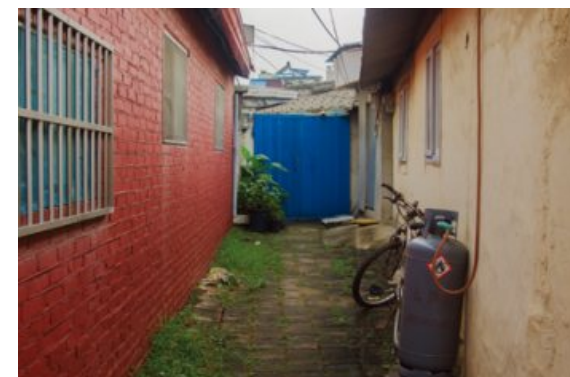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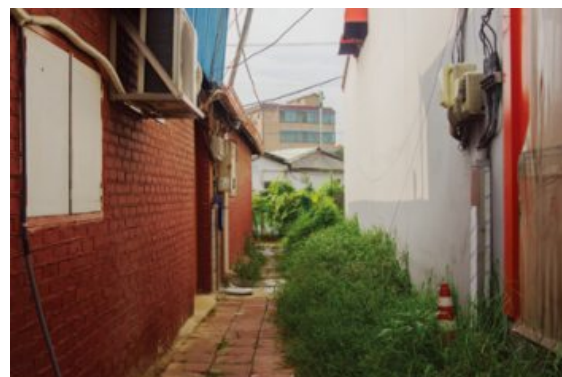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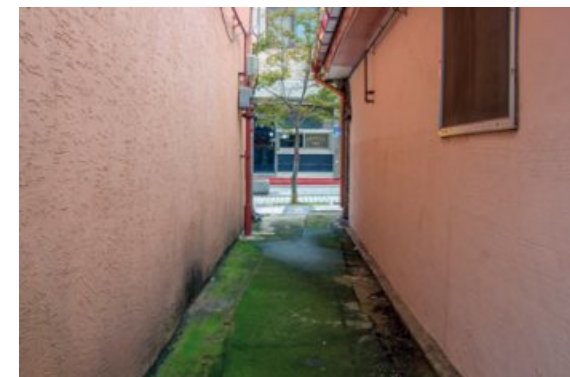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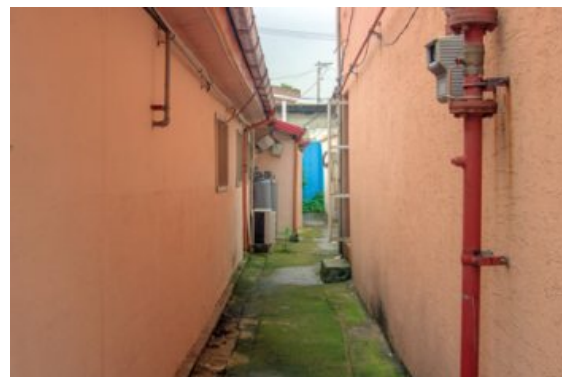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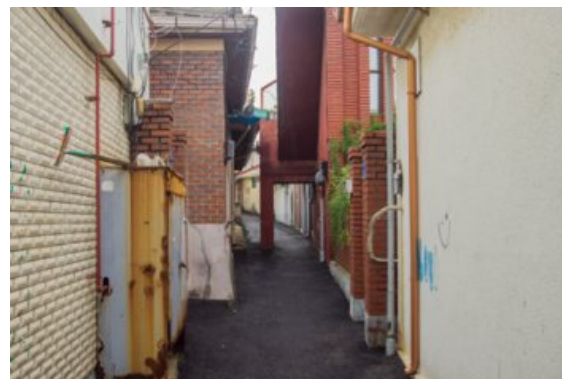
신문보급소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는 박종만 씨는 오래전부터 영시를 쓰고 있다. 그는 이미 700여 편 이상의 자작시를 창작했으며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영상은 그의 삶이 반영된 세 편의 시로 챕터를 나눠 구성했으며, 한 편의 영시가 완성되는 과정과 그의 개인사, 그리고 그가 직접 낭독한 시가 소개된다.



이야기

‘사잇길’

작가는 경제활동을 위해 구축된 로데오·클럽 거리의 이색적인 모습보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주거활동으로 일구어진 사잇길(각각의 상가들을 이어주고 있다)의 보편적인 켜와 결에 관심을 두어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토착민과 이주민, 거주자와 방문자 등의 이분법적 구도를 홀고 복합적인 관계망 안에서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자 했다. 작가는 골목 안팎의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사진으로 담는 타임랩스(Time Lapse) 기법으로 세대와 시대, 인종 등 안정리의 혼재된 상황을 기록했다.



숨	이한준	단단
‘백일몽’	‘삶의 기록— 그들의 먹고사니즘’	‘채집과 기록’



숨(문학) ‘백일몽’

작가는 안정리 주민을 만나면서 장래희망이나 밤에 꾸는 꿈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주로 살아온 역사와 현재의 삶에 대해 질문했다. 들려주는 대로, 보여주는 표정 그대로 기록했다. 땅 파인 곳에 물이 고이듯, 삶이 파이고 마음이 고여 꾸게 되는 꿈 말이다. 웅덩이에 낀 꿈들은 한낱 개인사로 그치지 않고 모여서 안정리의 얼굴 하나가 된다. 소문난사진관 사장님, 들림글방 책대여점 사장님, 안정리에 벽화를 그린 화가, 명문부동산 사장님, 길을 다니며 들었던 또 다른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했다. 같이 채집된 물건들은 유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증거다. 이런 삶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그래서 꿈이 있었다는 증거. 그 삶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증거다. 아름다운 과거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를 비추는 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들여다보아야 웅덩이가 왜, 어디서 파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정리의 오늘은 그 웅덩이 속에서, 백일몽 속에서 볼 수 있다.”

이한준(문학) ‘삶의 기록—그들의 먹고사니즘’

작가는 안정리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했다. 먹고사는 문제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의 대다수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김새, 말투, 표정, 성격 속에 그들의 역사, 즉, 어떻게 먹고살아왔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인의 역사가 모여 이웃이 되고 마을이 된다. 그런 점에서 안정리는 먹고사는 문제에 충실했다. 로데오거리, 클럽거리, 가구거리 등 같은 업종끼리 모여 거리를 형성했다. 소비자의 성향, 특징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일은 먹고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미군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작가가 만난 사람들은 ‘안정리에서 먹고산다.’ 종사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미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신문배급소를 운영하며 영어로 시를 쓰는 전직 미군 부대 근무자, 안정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환전소, 미군들의 옷을 맞춰주는 테일러 숭, 부대 내 막사를 건설 중인 부대 근로자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을 끄집어내고 기록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부박하지 않은 그들의 ‘먹고사니즘’에서 다양한 삶의 기록을 그리고 다양한 안정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단단(미술) ‘채집과 기록’

작가는 개별 작업을 유보하고 주민의 삶에 얹힌 흔적에 집중했다. 사실 유물이라고 하기에 채집된 자료들은 여전히 진행형의 흔적들이다. 물론 과거 어떤 행위의 흔적이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살아 있는 사물을 오히려 박물관에 집어넣음으로써 영구박제라는 죽음을 언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그러나 안정리가 단지 기지촌의 형태로서만이 아닌 다른 삶을 꿈꿔볼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삶의 흔적들은 서로에게 공유되고 알려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채집된 자료들은 낯설고 신기하고 더는 찾아볼 수 없는 흔적이라는 역사성 보다는 삶의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물들이 다수였다. 채집은 인터뷰를 하며 글쓰기 작업을 진행하는 두 작가(숨, 이한준)의 주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진행했다. 숨 작가의 ‘백일몽’과 이한준 작가의 ‘삶의 기록’이라는 주제에 맞춰 안정리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이다. 의미 있는 사물 또는 유물을 채택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인터뷰를 병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미화

‘인정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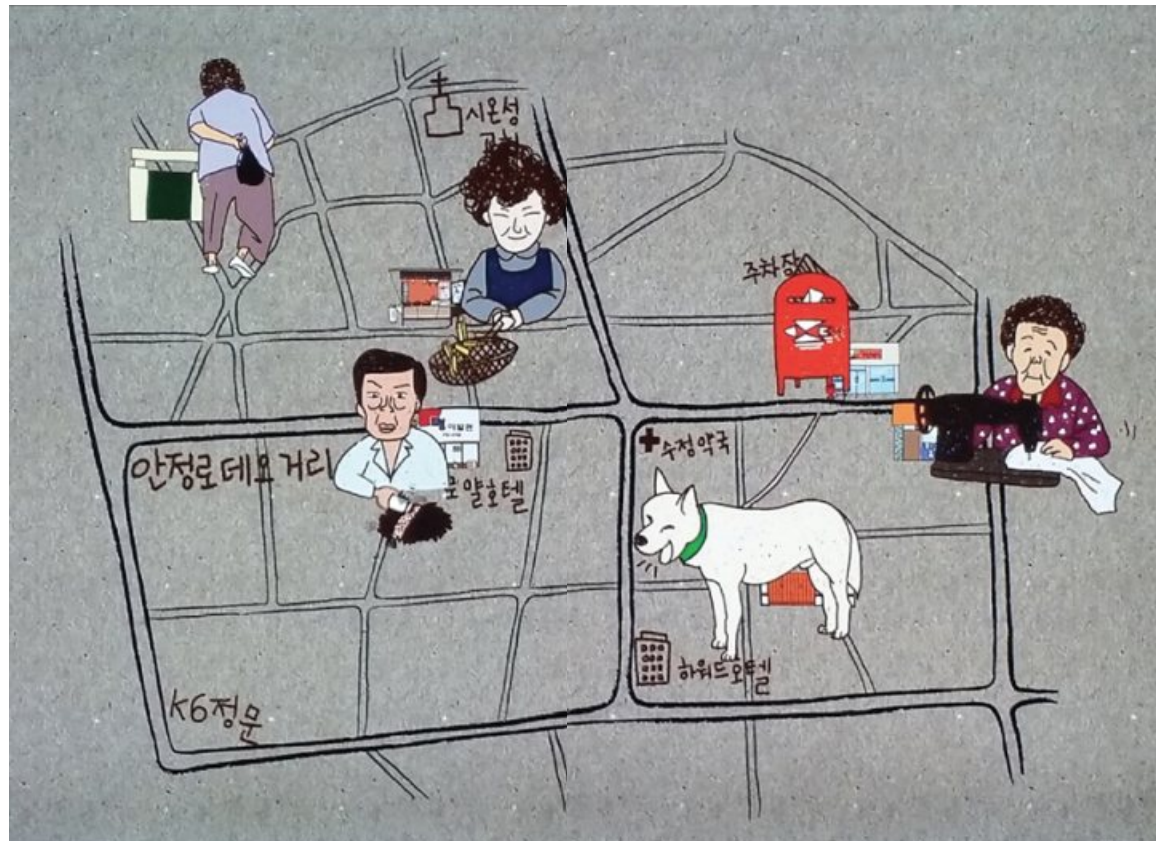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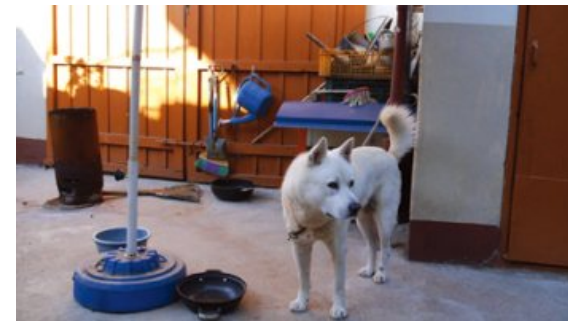
작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기지 주변 마을로 변모해온 지역적 특성을 가진 안정리에서 '2014 안정리생활사박물관 소장품'을 제작했다. 이미화의 '이웃상회'는 안정리 풍경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소로 '미군복'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위장을 목적으로 전장 환경을 모방해 제작된 획일화된 군복의 자연 문양에 미군기지가 건설되기 이전의 안정리 옛 지형도를 덧입힌다. 광복 이전의 지형도인 1914년 평택 근대지도를 근거로 재편집된 이미지다. 이웃상회가 제시하는 이 이미지는 안정리 장인 'Girl 실크스크린 디자인' 강규호 사장과 '수선집' 이기선 할머니의 기술력을 통해 제작·가공되며 이 일련의 과정은 의존에서 주체로 전환되는, 불편한 이웃과의 상생을 은유하는 이웃상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작가는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리의 물리적 형상(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때 그 시간 속에 살았던, 그리고 살아온 ‘안정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군클럽, 상가와 상인,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낡은 건물과 신축건물의 생경한 이미지, 삶의 고된 역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안정리 사람들을 통해 안정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안정리 지역의 고유한 정서가 담긴 풍경을 드러내기 위해 오래된 단독주택을 배경으로 낙후된 환경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개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안정리 사람들을 기록했다. 낙후된 환경 덕인지 안정리는 우리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정겨운 풍경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당 안에 자리 잡은 감나무, 고운 꽃밭과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장독대, 메주와 도토리…… 모두가 정겨운 풍경이다. 자본은 모든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한다. 그럼에도 인간 본래의 순박한 토속성만큼은 안정리 주민의 몫이다. “우리 누굴 원망하거나 바라는 거 없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산다”는 어느 안정리 아주머니의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작가는 안정리를 태어난 고향이라기보다는 살면서 만든 고향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재한 곳으로 보았다. 소소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상가와 주택)과 사람, 길을 하나의 열개로 엮어냈다. 다큐멘터리 영상에 담긴 맛나튀김, 우체국, 수선집, 명이발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안정리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으로 우뚝했다. 치장된 삶이 아닌 웅덩이로 흘러 고인 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래에 오늘을 헌정했다.



청년생활예술공동체 화수분

문화유목민 ‘잇다’

기증유물, 채집유물, 재현유물

평택 농업과 어업의 생명줄이라 일컫는 안성천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면서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만나 그들의
생활사를 직접 경험하며 사진과 영상, 구술, 채집, 재현
활동을 통해 평택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고 이를 안정리
생활사박물관에 담아내기 위한 활동을 했다. 기간은 2014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였으며, 현덕면 기산1리를
시작으로 신왕리, 삼정리, 내리, 안정리를 잇는 총 45Km에
달하는 거리였다. 프로젝트 기간 살펴본 평택은 주한미군
주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평택항, 삼성산업단지유치
등 꽃과일처럼 날것의 향기가 들끓고 있었으며, 개발과
이기(利己)로 민중의 땅인 평택은 몸살을 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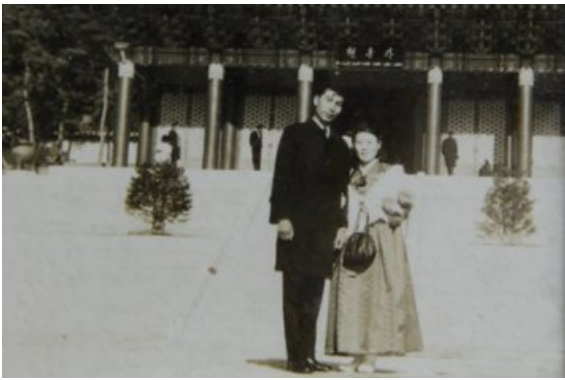
‘안정리 좌상’

안정리 사람들은 어떤 의지, 의욕, 희망, 소망, 바람,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보다는 먼 과거, 또는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안정리 사람들. 안정리 좌상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안정리 주민 개인들의 모습이다. 안정리 어르신 여든일곱 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에 얹힌 이야기를 인터뷰한 영상을 전시했다.



‘하얀 민들레’

민들레는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꽃이 아니다. 꽃을 피운 뒤 맺은 씨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싹을 틔운다. 안정리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한국 토종 하얀 민들레를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에 김기호 씨 부부가 살고 있다. 작가는 1967년 24세 때 잘살고 싶은 꿈을 안고 안정리에 자리를 튼 김기호(1943년생), 최정희(1942년생) 부부의 삶을 담는다. 이 부부의 삶이 안정리 주민의 삶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미군 기지촌에 기대어 살아온 삶의 순간과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덩달히 듣고 기록했다. 기록된 사진과 기증 유물, 인터뷰 내용은 부부의 살림집을 모티프로 제작된 구조물에 담겨 상설전시장에 전시된다.



상설전시

‘안정리생활사박물관 – 안정리 사람들’
2015. 12. 8. —
아트캠프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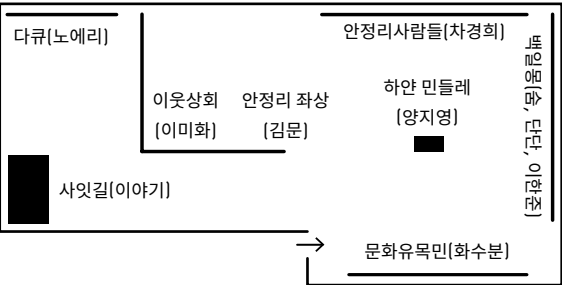
2014-15년 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가들이
진행한 인터뷰 및 기록사진, 기증유물, 채집유물, 재현한
유물 중 일부를 전시했다.
안정리 주민의 삶을 모두 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삶을 이루었던 저마다의 흔적과 기억,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삶의 단면을 살필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PERMANENT EXHIBITIONS

The Museum of Everyday life Anjeong-ri
2015. 12. 8 —
Art Camp 2nd floor

Carried out in 2014, 'The Museum of Everyday Life
Project' has been working on oral interviews of
the residents, data collections, excavating and
collecting relics, archive research on local history,
culture, humanity, environment, production of
documentary film with artists from various fields
of literature, art, photograph, history and film.
Although it cannot contain every piece of residents'
life, it triggered to take a look into their legacy,
memories and banal life.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 이웃상회 in 안정리

기간 2015. 3. - 12.	프로젝트 이웃 안정리 지역 장인 김기분, 차동길, 신미숙, 강규호(Girl실크스크린), 황신혁(Dr.Trash)
장소 안정리 팽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강민정, 김나나, 김정현, 그래픽 스튜디오 OH000, 황주영, 이다혜, 이웃상회
프로젝트 총괄기획 및 디자인 이웃상회(이미화)	
사진기록 김정현	
번역 추명지	



사업개요

브랜드 01. C-Ration(Culture- Ration) 문화배급/이웃상회의 아트 에디션

C-Ration은 Combat Individual Ration의 약자로 미군 전투용 개인 식량을 의미한다. 전투 시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C-Ration을 차용하여 안정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정서를 소개하는 문화 에너지를 Culture Ration 한 팩에 담았다. 호전적 열량 소비를 문화 소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아트 에디션이다.

브랜드 02. 안정맞춤/ 지역자산 활용형 핸드메이드 제품

'꼭 들어맞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기도 안성의 '안성맞춤'을 차용한 마을 브랜드. '안정맞춤'은 철저히 미군들의 수요에 맞춰 개발되어온 지역 장인들의 30년 된 재봉 및 실크스크린, 티셔츠 디자인 등의 탄탄한 기술력이 예술가의 제안과 만나 완성되는 지역자산 활용형 핸드메이드 브랜드이다. 가방, 쿠션, 파우치와 같은 핸드메이드 생활용품을 위주로 보다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는데, 제품의 원단에 평화와 마을의 역사, 서정적 풍경 등의 이미지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Brand 01. C-Ration (Culture-Ration Culture Distribution)

C-Ration is an acronym of Combat Individual Ration that is Borrowing the components of C-Ration that are indispensable sources of energy for soldiers in combat, we developed design products that introduce cultural heritage and emotions in Anjeong-ri. It is an art edition symbolizing the intent to convert the hostile consumption into a cultural consumption.

Brand 02. Anjeongmachum

Anjeongmachum, just like a well known Korean word 'Anseongmachum' which means 'suit perfectly', is a local brand producing perfectly suit souvenir for Anjeong-ri with local artisans.

Master skills including sewing, silk screen and T-shirt designing of local artists with 30 years of experiences are married with suggestions of artists to produce local asset-driven hand-made brands. Lifestyle items are derived from producing hand-made productions such as bag, pouch, and cushion and T-shirts are produced, considering their mass appeal in mind. The images used in the products depict peace, the village history and lyrical landscape

안정리 마을 브랜드 제작소 (ART CAMP 1층)

<안정리 마을 브랜드 제작소>는 이웃상회(이미화 작가)와 평택 지역 장인의 협업(co-working)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가 반영된 예술 상품을 기획하고 자체 생산한 지역 자산 활용형 상점이다.

아트캠프 1층 보글보글 카페의 한쪽 공간에 공업용 재봉틀을 설치하고 원단을 재단하고 재봉할 수 있는 제작소를 조성하였다. 지역 장인에 의해 완성된 마을 브랜드01 'C-Ration'은 마을브랜드02 '안정맞춤' 과 함께 론칭하여 제작소 옆에 진열된 매대에 전시되었으며, <안정리 마을 예술상점>을 정식 오픈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다.

<store NEIGHBOR in Anjeongri> (artist Lee Mi-hwa) that is going to operate as a participatory project with artists and local residents for 2 months will experiment a possibility as a revival place of local pride from the existing environment of military base-dependent service industry as a core business. Fabrics are cut and sewed with rented industrial sewing machines in one side of Bogeul Bogeul Cafe on 1F of the Art Camp. Along with Brand 02. 'Anjeongmachum', Brand 01 'C-Ration' is showcased on the shelves near the studio. It has officially opened a village brand <Anjeong-ri Art Store> which is now up and running.

이웃상회 IN 안정리

이미화(이웃상회)

브랜드(brand)는 낙인(烙印)에서 유래된 말이다. 고대에 소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에 달군 인두를 우피에 찍어 흔적을 남겼던 낙인 행위로부터 시작된 ‘브랜드’는 대상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브랜드는 근래에 와서 제품이나 서비스 및 인물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차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었다.

안정리는 태생적으로 특수한 마을이다. 전국에서 미군부대 안팎의 일자리를 찾아온 국내 이주민들이 집거함으로써 생성된 이 마을은, 대체적으로 상업과 서비스업의 3차산업과 부대시설 근로 및 미군 대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이 지역 주민의 대다수를 이뤘다. 철저히 미군 의존적인 서비스업 위주로 조성된 마을이기에 소위 말하는 기지촌인 이 마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굵지만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경제호황기의 정점을 찍은 뒤 이제는 옛 시절을 회상하는 인적 드문 동네가 되어버린 안정리는 근현대사의 아픈 흔적을 안고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 상권 쇠락으로 인한 마을의 슬럼화 등으로 낙인찍힌 현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정리는 2007년부터 진행되어온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는 기지 규모 면에서 현재보다 4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미군 수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캠프 험프리스와 밀접하게 위치한 안정리 마을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유흥 지역으로 낙인찍힌 오욕의 지역적 특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마을 브랜드 확립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이웃상회 in 안정리’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는, 안정리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양장점, 양복점 장인들의 기술력과

예술가의 제안이 결합해 완성되는 지역 자산 활용형 마을 브랜드인 ‘안정맞춤’과 예술가가 읽어낸 지역의 숨은 가치와 메시지를 가시화한 ‘Culture Ration’, 두 가지 브랜드의 예술기획상품 40여 개를 선보였다.

‘안정맞춤’은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의 유흥 기술력을 재가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 간 공통의 관심사를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시작했다. ‘안정맞춤’ 제작을 위해 안정리의 티셔츠 제작 장인, 양장기술 장인, 양복 기술 장인이 참여했고, 안정리의 역사·풍경·문화유산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제품들을 공동 제작했다. ‘Culture Ration’은 유흥을 제공하는 지역으로서의 안정리가 아닌 문화 향유 지역으로서 안정리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하나의 마을 기업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작 이전에 유통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양한 제품 제작 및 콘텐츠 실험과 보다 많은 수의 다국적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수요 파악이다. 또한 지역 외 유통 채널의 확보도 첫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감사하게도 지역 장인 다섯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첫 프로젝트 ‘안정맞춤’ 브랜드가 완성될 수 있었다. 마을 브랜드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공통의 관심사가 형성된 자리였다. 이 자리는 앞으로 다국적 이웃과의 상생에 대한 미래적 방법을 제시하는 마을 브랜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자, 더불어 문화로 공감하는 자리로서 지속되어야 한다.

순우리말인 ‘마을’은 여러 집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을 뜻한다고 한다. ‘이웃상회 in 안정리’는 안정리라는 마을에 놀러 온 다국적 이웃들에게 한판의 문화 놀이를 선사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VILLAGE ART STORE PROJECT STORE NEIGHBOR IN ANJEONG-RI

LEE Mi-hwa(Store Neighbor)

The word ‘brand’ derives from ‘to burn’ - recalling the practice of producers burning their mark (or brand) onto their products

Branding was a means to distinguish livestock in the ancient times by differentiate one person’s cattle from another’s by means of a distinctive symbol burned into the animal’s skin with a hot branding iron. The word ‘brand’ is now used in many ways to distinguish objects including products, services and people.

Anjeong-ri is a born-to-be unique village. The village was formed as domestic immigrants were clustered here to find jobs inside and outside military camps from all over the country. Most of the households were engaged in the tertiary industries of commerce and service, labor work in military facilities and the manufacturing business for the soldiers. Due to the village environment dependent on the U.S. soldiers driven by the service industry, people outside sometimes looked down upon the village. After the economic peak in the ’70s and early ’80s, Anjeong-ri has become a somewhat empty village that merely brings back its memories of the past. Currently spotlighted topics that have been branded in the society that the village is subject to are: comfort women for U.S. soldiers and the village turning into a slum town due to the waning commercial district.

Against this backdrop, the village is witnessing the near-completion of the U.S. military camp relocation project in Pyeongtaek that has been carried on from 2007. Camp Humphreys is expected to be extended four-fold than now along with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U.S. soldiers. Anjeong-ri located near Camp Humphreys is to prepare for its new future at this critical juncture. The ‘Store Neighbor in Anjeong-ri Project’ began to make an attempt for solutions due to a need to establish a new village brand that would replace the stigma of being a sexually entertaining place for U.S.

soldiers and also the local specificities. The project ended up showcasing 40 artistic products of two brands: ‘Anjeong Machum’, a village brand utilizing the local assets where dressmaking artisans and master tailors that experienced the good old days in the village could have their techniques combined with suggestions of artists; and ‘Culture Ration’ that visualizes the local hidden values and messages interpreted by the artists.

‘Anjeong Machum’ kicked off to pave the way to revitalize the idle techniques of villagers and to make a common interest among them. For the production of ‘Anjeong Machum’, artisans participated by skill: T-shirt making, dressmaking and tailoring. They co-produced products to introduce the village’s history,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s. The focus was on the regional identity of Anjeong-ri as a culturally invaluable region instead of the one for cheap entertainment.

In order for this infant at its infancy to settle in the region as a village enterprise instead of a one-time event, many tasks must be addressed. What is needed to secure a safety net in the distribution prior to production is to identify the level of demand through exchanges with many multi-national neighbors instead of making various products and experimenting with content.

Thankfully, the brand ‘Anjeong Machum’ could be finalized on as the first branding project through passionate participation of five local artisans. It was a ground to form the common interest as they took part in the branding project, which must be continued on as an occasion to collaborate on branding suggesting future-oriented ways for mutual growth with multi-national neighbors and also to empathize with the culture.

The word ‘maeul’ meaning ‘village’ in English refers to a place where many households are clustered together and also ‘the act of hanging out in neighbors’ house.’ Store Neighbor in Anjeong-ri, hopefully, could serve as a place to offer cultural play to multi-national neighbors that have come to visit Anjeong-ri.

프로젝트 소개

출발

‘예술로 이웃 만들기’를 실천해온 이웃사회는 지난해 안정리 사람들의 삶의 이상을 담아내는 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1차 리서치 사업인 ‘2014 사람이 보물이다—안정리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안정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안정리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가 위치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해군 시설대 302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점령하면서 기지 주변으로 일거리를 찾아 모여든 이주민들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1970년대 인천 부평의 보급부대와 정보부대가 안정리로 이전하면서 미군 수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전성기를 맞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안정리 풍경

2014년 7월. 낮 2시경 안정리 로데오거리에 도착했다. 캠프 험프리스(K-6)와 안정리를 구분하고 있는 철조망 아래 육중한 벽돌담장. 손님맞이를 준비하는 가게 앞을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사막 색 군복을 입은 미군 무리들. 연로한 어르신이 지키고 계신 간판 없는 옷 수선집. 이 풍경들은 상권이 쇠락하고 슬럼화된 안정리의 현안이 응집된 듯 안정리에 대한 첫인상으로 각인되었다. 이웃사회는 지역의 자금심 회복을 위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미군들의 수요에 의해 개발되어온 지역 장인들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미군들에게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했고, ‘2014 사람이 보물이다—안정리생활사박물관 프로젝트’에서 ‘안정맞춤’ 시리즈를 통해 현재의 시점에서 읽어낸 안정리의 가치를 Girl실크스크린 디자인의 강규호 사장님과 수선집 이기선 어르신의 기술력을 통해 가공하여 소개했다. 이 과정은 의존에서 주체로 전환하는, 불편한 이웃과의 상생을 은유하는 이웃사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안정맞춤’ 소장품은 올해 진행한 ‘이웃사회 in 안정리’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브랜드로 확장되었다.



‘이웃사회 in 안정리’란?

지역 주민과 함께 제작하는 마을 브랜드를 통한 지역의 자금심 재생

‘이웃사회 in 안정리’는 예술가들의 개입을 통해 안정리 지역의 가치를 가시화한 다양한 예술기획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 브랜드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지역 자산 활용형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이다. 2015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의 기간 동안 다섯 분의 지역 장인(김기분, 차동길, 신미숙, 강규호, 황신혁)과 일곱 명의 예술가(강민정, 김나나, 김정현, 그래픽 스튜디오 OH000, 황주영, 이다혜, 이웃사회)의 참여로 두 개의 마을 브랜드에서 총 40여 개의 예술기획상품을 개발하고 제작했다.



1



2



3



4



- 1 K-6 부대 안정리 브랜드 예술 상품 전시
- 2 K-6 부대 바자회 참가
- 3 평화나눔콘서트 마켓 참가
- 4 당진시청 관계자 견학 방문

진행과정

마을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역 리서치 (201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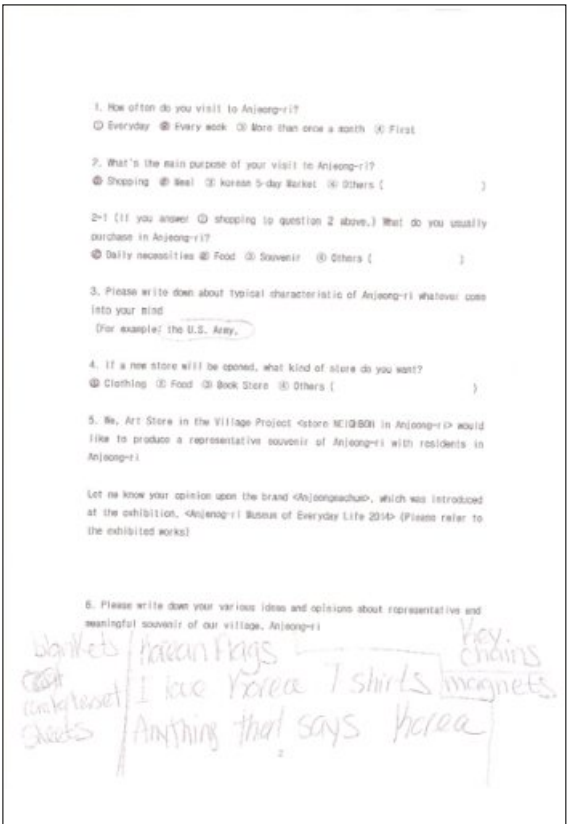
마을 브랜드 제작에 앞서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에서 주관하는 마토예술제에 홍보부스를 개설해 지역 주민 및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도 조사를 4월과 5월 축제 기간 중에 실시했다. 지역 주민 및 주한미군 총 100인이 참여한 설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 전통 문화 향유의 기회, 전통 공예품, 가족 대상 예술 교육에 대한 요구, 귀국 후 안정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념품 등 다문화 교류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군들은 대체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 국기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념품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미군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다.



마을 브랜드 개발을 위한 이웃상회의 수요도 조사. 마토예술제 부스 참여



마을 브랜드 개발을 위한 이웃상회의 수요도 조사. 설문 참여 중



마을 브랜드 개발을 위한 이웃상회의 수요도 설문지 (부분)

마을 브랜드 예술기획상품 제작 (2015. 6-9.)

문화 에너지로 리필(Refill)된 Culture-Ration.

미군 식량으로 대표되는 C-Ration은 1980년대 이후 MRE(Meal Ready to Eat)로 개명되었다. 주식과 부식, 음료수 등으로 구성된 기존 MRE의 디자인을 차용하고 내용물은 문화 에너지로 채운다는 기획하에, 총 다섯 가지의 구성품이 포함된 Culture-Ration 브랜드의 첫 번째 시리즈인 MRE (Memories Ready to Enjoy) 에디션을 완성했다.

우선 기존의 MRE(Meal Ready to Eat)는 안정리를 기념하는 Memories Ready to Enjoy와 Memorable Anjeongri로 대체되었고,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우치로 제작했다.

마토예술제 리서치 기간 중에 접하게 된 다소 놀라웠던 내용 중 하나는 많은 수의 K-6 캠프 험프리스 미군들이 자신들이 주둔한 지역인 '안정리'의 지역명조차도 모른 채 귀국한다는 사실이었다.

안정리는 단지 그들의 유흥을 위한 서비스 지역으로만 기억되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안정리 지역의 문화유산 및 안정리 풍경에서 얻을 수 있는 서정적 정서들을 MRE 패키지에 담기 위해 향교 · 농성(農城) · 객사 등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했고, 그 중 안정리와 가장 근접한 농성을 소개하기 위한 몇 가지의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

MRE 첫 번째 시리즈는 MRE 파우치, 노트, 나무 자, 메모지, 스카프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농성을 소개하는 노트와 함께 농성의 하늘과 땅이 맞닿아 만들어진 선을 그대로 재현해 2015년 농성의 풍경을 기억할 수 있는 나무 자를 제작했고, 한국의 전통 음식인 백설기의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한 메모지, 안정리 가족들의 지붕 이미지를 담아낸 스카프를 파우치에 담아냈다.



기존의 미군 전투식량 MRE



MRE 파우치, 약 21*33cm



MRE 노트, 약 12*21*1.6(H)cm



MRE 노트, 약 12*21*1.6(H)cm



경기도 기념물 74호 농성(農城). 2015년 7월

MRE 노트 내용 중

농성(農城)의 둘레길과 가을 하늘

경기도 기념물 제74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41-5번지

캠프 험프리스의 안정리 게이트를 나와 길 건너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직진해, 길의 끝에서 좌측으로 약 10분가량 걸으면 경기도 기념물 제74호인 농성이 있다.

농성은 안정리 마을의 북쪽 논 가운데에 있는 흙으로 쌓은 성이다.

잘 다듬어진 둘레길을 반 바퀴 돌면 계단을 통해 높이 4m 내외의 농성으로 올라가 볼 수 있다. 타원형의 전체 모습과 맞닿아 있는 안정리의 하늘은 특히 가을 무렵에 맑고 높다.

*농성을 쌓은 이유는 삼국시대에 도적 때문에 쌓았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신라 말기 중국에서 건너온 평택 임씨의 시조인 임팔급이 축조하여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설과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설이 전한다. 성 바로 옆에는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여름철에는 찬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성은 평지에 만든 소규모 성으로 이런 흙으로 쌓은 성곽들은 대부분 초기 국가의 형성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지역의 토착 세력 집단들이 그들의 근거지로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Walkway around Nong Seong (農城) and autumn sky

Gyeonggi Provincial Cultural Asset No. 74
San 41-5, Anjeongri, Paengsung-eup,
Pyeongtaek City, Gyeonggi Province

Come out from the gate of Anjeongri in Camp Humphreys, cross the street, go straight from the entrance of rodeo street, turn left at the end of the road and walk down for 10 minutes, there is Nong Seong, the Gyeonggi Provincial Cultural Asset No. 74.

Nong Seong is an old earthen rampart at the middle of rice field in northern Anjeongri village.

Walking halfway around the well-developed walkway, we can go up to almost 4-meter-high Nong Seong. The sky in Anjeongri which meets the whole oval shape of Nong Seong is especially clear and high in autumn.

There exist several opinions on the origin of Nong Seong. The theory that Palgup Lim, the progenitor of the Lim clan of Pyeongtaek who exiled and away from old China in the end of Silla Dynasty constructed this rampart for develop their living base is the most convincing among others. And there are other views about its origin like, for prevent invasion by Japanese raiders during Koryo Dynasty or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n the Joseon Dynasty. And it is said that there is a well just next to the rampart that have warm water in winter and cold water in summer.

Small scale earthen rampart on flatland like Nong Seong is mainly appeared in the early stage of formation of state and Nong Seong was estimated to be constructed as a living base by power group of indigenous people in this area. (extracted from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cademy of Korean Studies)

‘안정맞춤’의 제작 현장- 안정리 마을 브랜드 제작소

이웃상회는 팽성예술창작공간 아트캠프 1층의 보글보글 카페를 ‘안정리 마을 브랜드 제작소’로 만들고, 지역 장인 세 분과 함께 디자인 논의 · 소재 연구 · 테스트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째 마을 브랜드 ‘안정맞춤’ 생산을 시작했다.

‘안정맞춤’은 이웃상회가 디자인한 총 다섯 가지 종류의 텍스타일을 기본으로 가방, 파우치, 쿠션 등의 생활용품 위주로 제작했는데, 안정리 골목마다 피어 있는 꽃들을 군복 천에 재편집해 위장(Camouflage)을 해체하거나 철조망 담장 풍경 속에서 발견한 평화의 메시지 등을 상징화하고, 또 광복 이전 평택 지형도(국립지리정보원 제공)를 근거로 평택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기 이전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크스크린 제작업체 Girl실크스크린의 강규호 사장님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해 고무나염 기법으로 안정맞춤 티셔츠를 제작했다. 안정리 오일장의 풍경을 담은 강민정 작가의 드로잉과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을 집적해 완성한 황주영 작가의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티셔츠 디자이너 황신혁(Dr.Trash) 작가가 고안한 평택역과 안정리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20번 Bus의 정겨운 모습이 티셔츠로 제작되었다.



1970년이 되던 해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약혼자를 따라 안정리로 오신 뒤 지금까지 40년 이상 제2의 고향인 안정리를 지키고 계시는 김기분 어머니(1947년 생)는 처녀 시절 배운 양재기술을 살려 기지촌 여성을 상대로 하는 양장점(서울 양장점)을 30년 이상 운영하셨다. 당시에는 기지촌 여성들이 클럽 홀에서 입던 옷을 ‘홀복(Hall服)’이라고 했는데, 몸선에 맞춘 화려한 색상의 의상들을 만들며 치열한 삶을 이어오신 또 한 분의 안정리 장인이다.



안정리 장인 신미숙 어머니 [안정리 40년 이상 거주, 양장점 운영]



안정리 주민 이순인 어머니와 설악초



안정리 장인 차동길 아버지 [안정리 40년 이상 거주, 양복점 등 운영]



안정리 마을 브랜드 제작소 풍경

‘이웃상회 in 안정리’ 브랜드 론칭 및 운영 (2015. 9. 26. ~11. 26.)



‘이웃상회 in 안정리’ 안정리 장인—김기분 어머니, 차동길 아버지

마을 브랜드 예술기획상품 소개

브랜드 01 C-Ration



MRE 파우치

약 21*33cm

기존의 MRE(Meal Ready to Eat)는 안정리를 기념하는 Memories Ready to Enjoy와 메뉴 Memorable Anjeong-ri로 대체되었다.

MRE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우치로 제작했으며, 한 패키지 안의 구성품은 총 네가지로 노트, 메모지, 자, 스카프이다. 각각의 구성품은 안정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MRE 파우치 구성품



1



2



4

- 1 **메모지** 한국 전통 떡인 콩설기를 소재로 한 메모지를 제작했다. 14*14*0.5(H)cm
- 2 **노트** 기존의 메인 디시 상자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안정리 인근의 지역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한 노트를 제작했다. 12*21*1.6(H)cm
- 3 **나무 자** 팽성을 안정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기념물 제74호인 농성이 2015년 가을 하늘과 맞닿은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체리목으로 제작한 자. 26x7.5x0.3(H)cm
- 4 **스카프** 안정리의 서정적인 지붕 풍경을 소재로 제작한 스카프. 50*50cm

브랜드 02 안정맞춤



1



2



1



3



3

- 1 광복 이전의 근대지도를 편집해 안정리 지역을 이미지화한 텍스타일 — 가방 35*42cm (전체길이 65cm), 파우치 28*21cm
- 2 광복 이전의 근대지도를 편집해 안정리와 현재 캠프 험프리스 위치를 이미지화한 텍스타일 — 가방 35*42cm (전체길이 65cm), 파우치 28*21cm
- 3 안정리 지역주민들이 가꾼 꽃을 위장용 군복에 재편집한 텍스타일 — 가방 35*42cm (전체길이 65cm), 파우치 28*21cm

마을 브랜드 예술기획상품 소개

브랜드 02 안정맞춤



1



1



2



3



3

HEART & PEACE

- 1 가방 35*42cm (전체길이 65cm)
- 2 쿠션 50*50cm
- 3 머그컵 11온스



4



5



6



7

- 4 안정리 풍경 — 디자인 강민정
- 5 안정리 로데오 거리 — 디자인 황주영
- 6 20번 버스 — 디자인 20번 버스를 타고 정류장 K-6에서 평택역까지 — Dr. Thrash(안정리 주민)
- 7 HEART / 길조—까지 — 군용휘장 7*8cm

ENVIRONMENT

5

환경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 '꽃피는 안정리' BLOSSOMING ANJEONG-RI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 '마을이 꽃이다' VILLAGE IS FLOWER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 ‘꽃피는 안정리’

사업기간 2015. 7-10.	진행사업 골목갤러리 2곳, 다문화갤러리 1곳 조성. 원데이 페인팅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희망이 자라는 텃밭, 골목 텃밭 울타리 2곳, 주민 벤치 4개 제작. 설악초 피는 풍경, 문 외벽 레터링 및 페인트 보수. 꽃피는 안정리 도자벽화 1곳 설치. 패브릭 그래피티 게시판 1곳 조성. 아트캠프 도자수업, 재봉수업, 골목(木)공방 협업 프로젝트 운영. 골목길 콘서트, “정이를 찾아라” 골목길 게임 이벤트 진행. 다문화 정원 조성.
사업장소 안정리 골목-안정로13번길 35 ~ 안정순환로238번길 18 (약 350미터 구간, 4개 블럭), 1·2차 다문화정원	
참가자 작가 김민선, 지역 아티스트 허지혜 현민우 정가혜 외, 지역기관 팽성초등학교 팽성청소년문화의집, 지역커뮤니티 캠프험프리스 보이8걸스카우트 외, 프로그램 강사 김현정 홍지혜 정미라 김승환 신성일 외, 안정리 거주 주민 및 청소년	



사업개요

‘꽃피는 안정리’는 낡고 삭막한 분위기의 골목마다 예술로 ‘꽃’을 피워 ‘안정화(花)’하는 작업이다.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시간을 견딘 역사가 담기듯 골목마다 예술로 꽃을 피우는 과정은 실제 조성되어 있는 골목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텃밭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고추꽃과 가지꽃, 노란색 물탱크 안에 가득 핀 이름 모를 다양한 꽃들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여기, 안정리 사람들의 삶을 담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문화 정원’은 캠프 험프리스 구 정문 입구에서 로데오거리로 차량이 접근 가능하도록 도로가 확장되면서 생긴 자투리 공간(2구역)을 녹지화한 마을공원이다. 2014년에는 다문화 가정과 1구역을 조성했고, 올해 나머지 한 곳을 조경 시공하며 일부 꽃밭을 마을 청소년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가꾸었다.

‘BLOSSOMING ANJEONG-RI’, THE VILLAG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Capsicum annuum flowers and eggplant flowers dotting a flower bed, and many other unknown flower blossoming in a yellow water tank. As diverse as these diverse flowers, a variety of people live here with different stories to tell. ‘Multi-cultural Garden’ is a process of having their stories blossom. It refers a village garden that turned a peripheral space (District 2) into a green zone as roads got expanded for vehicles to access Rodeo Street at the entrance of Camp Humphreys. District 1 was formed with multi-cultural families last year, and one remaining zone was landscaped with some flower beds designed and decorated with village youths.

‘Blossoming Anjeong-ri’ is a project to ‘stabilize’ the atmosphere for the better with the flowers of art blossoming on each street that used to be shabby and barren. Just like the history that has withered away the course of planting seeds and flowers blossoming is tinted in the area, the course of blossoming flowers with art is to make the existing streets more beautiful. Flowers vary there: chilly flowers and egg plant flowers clustered on

flower beds, and many anonymous flowers filling up yellow water tanks. Just like the diversity of flowers, people have diverse stories to tell here. It is a trajectory to blossom the life story of Anjeong-ri villagers. The ‘Multi-cultural Garden’ is a green garden that utilized a peripheral space (District 2) as a result of expanding the road so that vehicles could access Rodeo Street from the old entrance Camp Humphreys.

During the villager survey prior to the opening of the Art Camp in 2013, most of the residents claimed they needed ‘green space’ within the village. It was felt that they were hugely interested in the green space and gardening as they toiled the fields together for empty spaces on streets and took care of flowers or trees without neglecting any empty space in front of their gates and fences. 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Our Village is a Flower’ in 2014, the ‘School Gardening Contest’ was held, and a workshop was organized to form flower streets on Rodeo Street and invite multi-cultures in order to induce arouse residents’ interest in joint gardening, thus making a better village to live in. In the same vein, a garden in the Multi-Cultural District 2 was completed in 2015. Going beyond the gardening, ‘Blossoming Anjeong-ri’ imbued artistic spirit throughout streets to brighten up the mood. Village visitors can appreciate the following there: wall paintings with their motif from a flower named ‘snow on the mountain’ blossoming in Anjeong-ri; lettering walls portraying stories of residents; wall paintings for ruined houses that looked dismal; and street galleries and multi-cultural galleries participated by diverse people beyond race and age. A labyrinth-like street showcases Anjeong-ri’s story and scenery. If resident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ject formed a community, steadily kept in touch and create an environment to voluntarily decorate a village garden, the Villag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ill prosper even better satisfying both residents and participants.

추진과정

마음속에 박힌 못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마음속에 박힌 말뚝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꽃」 - 정호승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350여 미터의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대문을 기웃거리며 집주인을 찾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바라보던 주민들은, 골목 환경을 개선할 거라는 우리의 이야기에 언성 높여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토로했다. 더위가 가시고 옷깃을 여밀 만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쯤엔 “수고하네”라고 인사를 건네고 손주와 함께 공놀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살며시 뒤에 방울토마토와 커피를 놓으며 권하기도 하셨다.

2015년 7월 지역역사학자 김해규 선생님을 모시고 ‘평택’이 어떤 곳인지, ‘안정리’는 어떻게 유래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미군기지와 함께 근대 격동의 시기를 견뎌온 마을에 대한 이해가 프로젝트 관련자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11월, 참가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소 짧고 작은 프로젝트 규모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변화가(로데오거리)와 가까운 곳으로 규모를 확장해나가자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의 회의와 30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청소년, 성인, 한국인, 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프로젝트의 방향과 진행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정에 대한 참가자 개개인의 생각은

매우 다양했으나, 노후한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어 모두가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공통된 마음에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의미 없이 그려 넣은 벽화들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콘셉트이자 마음가짐이었다. ‘이 골목이 원래는 엄청 시원한 곳이었지’, ‘추억이야 낡은 게 좋고, 희망은 새것일수록 좋은 거지’, ‘원래 이 집에도 사람이 살았었어. 그때는 참 골목이 왁자지껄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와 같이 인터뷰 중에 나온 주민들의 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그려 넣었다. 또 폐가가 을씨년스러워서 다니기 무섭다는 의견이 있어 미군장교 부인이 디자인 재능을 살려 폐가를 적당히 가려줄 벽화를

그려 설치하는 등, 자신들의 의견과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는지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안정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도자프로그램, 목공방 등과 연계하여 골목을 예쁘게 개선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지역 청소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캠프 험프리스 내 스카우트 학생들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갤러리를 조성, 다문화 정원 가드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모두 함께 ‘꽃피는 안정리’를 만들었다.

1



2



3



4



5



6



7



8



- 1 청담중학교 하비스트 청소년
- 2 캠프햄프리스 걸스카우트
- 3 프로젝트 김민선 작가, 어시스텐트
- 4 지역예술가
- 5 원데이 페인팅 클래스 외국인 참가자
- 6 팽성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
- 7 연계 대학생 벽화 작업
- 8 벽화 작업

안정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2013년 아트캠프가 문을 열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의 주민들이 손꼽았던 것이 마을 내 ‘녹지’의 필요성이었다. 골목의 공터를 다함께 공동 텃밭으로 일구고, 대문 앞, 담장 앞의 빈 공간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꽃이나 나무를 가꾸어온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녹지와 가드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마을이 꽃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 스쿨가드닝 콘테스트와 로데오거리 꽃길 조성, 다문화 정원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공동 가드닝으로 이끌어내며 어떻게 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지 고민했다.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2015년 다문화 2구역 정원을 완공했고, ‘꽃피는 안정리’를 통해 가드닝을 넘어 골목 곳곳에 예술의 온기를 불어넣어서 좀 더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보고자 했다.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림들이 벽에 난무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참여하여 직접 만들어갈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337명의 지역 주민과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약 350미터의 골목 12길을 조성한 ‘꽃피는 안정리’는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이 열린 10월 31일에 맞추어 ‘골목길콘서트’와 ‘정이를 찾아라!’라는 골목길 게임 이벤트로 손님을 맞이했다.

안정리를 찾은 손님들은 안정리에 많이 피어 있는 꽃 ‘설악초’를 모티브로 한 벽화부터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레터링 벽, 을씨년스러운 폐가를 위한 벽화, 인종과 나이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골목 갤러리와 다문화 갤러리를 따라가며 미로 같은 골목골목마다 숨겨진 안정리의 이야기와 풍경을 감상했다.

무엇보다도 2014년에는 가드닝과 정원 조성에 주력했다면, 2015년에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페인팅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다원화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캠프 험프리스 어린이들과 팽성초등학교 미술 특기적성반 학생들 등 국적이 다른 지역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마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아트캠프 공간프로그램과 환경개선 프로젝트가 협업하여 도자벽화 · 공공가구 · 패브릭 그래피티 등을 만들어내며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3~4개월의 짧은 프로젝트 기간으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으며, 이후에는 마음을 많이 열어주었지만, 외지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적잖이 놀라 프로젝트 종료까지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한 가구들이 많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음에도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릴 워크숍과 사전조사 및 의견 청취, 주민대표 및 구성원 회의 등을 통해서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프로젝트 참여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꾸준히 교류하여 자발적으로 마을정원을 가꿀 여건을 조성한다면, 주민과 참여자 모두 만족할 더 멋진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무슨 꽃인들 어떠리
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내에 취해
절로 웃음 짓거나
저절로 노래하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 최두석

1



2



3



4



5



- 1 골목길
- 2 폐가 대문
- 3 횃집 벽
- 4 골목 벽
- 5 다문화 정원 가는 길



- 1 바람이 머무는 자리
- 2 '문 The Door' by Amy Lee
- 3 '꽃피는 안정리' 도자벽화
- 4 설악초 피는 풍경
- 5 다문화갤러리

간담회 리뷰

2015. 11. 19

김윤환(아트캠프 총감독)
조지연(경기문화재단)
전수린(매니저)
케이티 하웰(미국인 코디네이터)
윤수진(팽성청소년문화의집)
원혜영

윤수진 · 원혜영: 프로젝트 내에서 제작되었던 작품들, 조형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던 골목길을 새롭게 발굴한 것 같으며, '우리 동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디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향후 어떤 계획이 또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진행 후 골목의 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케이티 하웰: 이번 프로젝트 대상지가 미군들은 다니지 않는 골목들이어서, 예쁘게 잘 꾸며놓았어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게 아쉽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이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이 프로젝트를 향유하고 즐길 사람이 제한적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참가 인원이 너무 소수였다. 한국, 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져 더 많은 참가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윤수진: 프로젝트 대상지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이나 변화가로 넓혀서 이 프로젝트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상인들이나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만족도뿐만 아니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케이티 하웰: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참가자들을 더 모집하는 것 외에도 이번에 반응이 매우 좋았던 미군 보이с카우트 · 걸스카우트와 연계한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키면 좋겠다. 부대 내의 초등학교 등 청소년 기관들과 협력하여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 신설해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수진: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행한다. 한 학기 동안 교과과정 없이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현재 내년에 진행할 자유학기제 커리큘럼을 구성 중인데, 이러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청소년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환: 이러한 교육제도와 미군 내의 협력기관을 좀 더 확대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더욱 다변화하고, 안정리 지역 특색에 맞도록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마을환경개선 프로젝트 '마을이 꽃이다'

사업기간
2014. 6.

사업장소
안정리 일대 (로데오거리,
골목길, 예술인광장)

기획
오경아(오가든스)

참여자
김정란, 최옥희, 최화자,
윤계숙 외 주민 18명,
강예인, 김나경, 김태호,
김용환, 권희인, 서혜원 외
부용초·송화초·팽성초등학교
학생 14명,
캠프햄프리스 Selena
Hopson Victoria Steger
Kayia Jordan 외 2명(총
48명)

사업개요

안정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정원 축제로, 이미 사라져버린 추억과 색다른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마을에서 꽃을 피워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로데오거리에 화단 꽃길을 조성하여 꽃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엄마가 쓰다 버린 냄비와 먹고 버린 페트병 등으로 자기만의 톡톡 튀는 꽃밭을 조성하는 스쿨 가드닝 콘테스트, 쓰레기가 쌓인 빈 공터를 아름다운 텃밭으로 바꾼 안정리 주민들의 정원 20곳을 마을 정원으로 뽑는 주민 가드닝 콘테스트를 통해 마을 곳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나갈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또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마을 유휴부지를 마을 공동 정원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주체들과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고 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안정리와 정원에 대한 서로의 생각 및 미국과 한국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주민 가드닝 콘테스트	2014.6.1-6.21	안정리 인근 우수 텃밭정원 대상으로, 전문 가드너의 심사를 통한 아름다운 텃밭정원 선정, 시상 과정 및 결과: 후보지 총 50곳 중 최종 20곳 선정
스쿨 가드닝 콘테스트	2014.6.1-6.21	팽성을 내 3개 초등학교(부용초, 송화초, 팽성초) 4-6학년 대상으로 정원디자인 설계, 식재 조성 콘테스트 과정 및 결과: 총 56팀 출품, 20팀 본선 참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7팀 선정, 시상
로데오거리 꽃길 조성	2014.6.18	로데오거리 중앙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이용한 식물 식재 작업
아카이브 전시	2014.7.21-10.31	'마을이 꽃이다' 프로젝트 진행과정 사진 전시



스쿨 가드닝 콘테스트



로데오거리 꽃길 조성



다문화 마을정원 만들기

일정 2014. 5-12.
장소 신설도로 옆 마을공유지(시 매입지) / 안정리 136-6, 280m²
기획 김연금(조경가)
참여자 지역주민, 외국인 40명

‘다문화 마을정원 만들기’는 안정리의 버려진 공간을 녹지와 예술이 결합한 다문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다문화가 공존하는 안정리 지역에서 주민들 간의 교류와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총 2번의 주민설명회와 2번의 마토예술제 체험 프로그램, 4번의 정원 설계 워크숍을 통해 실제 마을정원이 만들어졌다.

주민 가드닝 콘테스트	1차 주민설명회	6.6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주민 참여자 모집 최종 설계안 논의
	2차 주민설명회	8.25	최종 설계안 논의
정원 설계를 위한	1차 설계 워크숍	6.19	사업 설명, 이름표 만들기, 꽃그림 그리기, 정원에 대한 생각 나누기
주민 워크숍	2차 설계 워크숍	7.10	대상지에 대한 설계 방향을 정하고 모형 만들기
	3차 설계 워크숍	7.14	서로의 얼굴 익히기,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보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4차 설계 워크숍	8.14	이전 워크숍에서 제안되었던 콘셉트 구체화, 의자 및 정원 모형 만들기
마토예술제 참가	마을정원 홍보 및 참여 유도, 홍보 현수막 만들기(꽃그림 그리기), 현수막 걸기 국기 그림을 통해 다문화 콘셉트 구현, 안정리 다문화 마을정원에 들어갈 참여 벽화 만들기		



정원 설계 어린이 워크숍

아트캠프 옥상정원 조성

2014년 3월 아트캠프가 개관하고 여전히 쓸모없이 남아 있던 1층 주차공간과 3층 옥상에 주민들을 위한 작은 휴게공간 조성(디자인 시공 에이트리)



3층 옥상 정원



1층 정원

- 1, 2 정원 설계 미니어처
- 3, 4 정원 설계 주민 워크숍
- 5 다문화 정원



FESTIVAL

축제

마토예술제 MATO FESTIVAL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COSTUME PLAY FESTIVAL

마토예술제

사업기간

2015. 4. 18(토), 5. 16(토),
(6. 20 메르스로 취소),
9. 26(토) 12:00~18:00

사업장소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

사업내용

2015년 ‘마토예술제’는 지역 주민, 미군, 다문화권 거주민,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마음껏 즐기는 오감”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각 진행 달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듣고, 보며 즐기는 축제 속에 교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축제는 크게 지역민, 외국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작업한 수제 공예품 프리마켓과 지역 외국인 상점들의 푸드코트, 문화예술 공연이 결합했다.

관람인원

회당 평균 4천여 명,
총 3회 1만 2천여 명

참여기관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팽성상인연합회,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다문화센터, K-6공보실, USO

프로그램 2015

4월	예술인광장	마음껏 먹는 토요일 —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	참가자 40명 현장 접수 (초등 15명, 성인 25명)
	로데오거리	아맛나! 월드 푸드코트 — 다국적 음식판매 다있다! 프리마켓 — 국제교류장터 만들새! 아트캠프 — 아트캠프 전시 및 홍보 안정리! 온스테이지 — 라이브 공연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필리핀, 일본 외 내국인 5팀 핸드메이드 소품 및 생활용품 거래 아트캠프/이웃상회/골목[木]공방 전시 및 홍보 봉산탈춤/퓨전국악/버블아트 각 1팀, 버스킹 공연 3팀
5월	예술인광장	마음껏 보는 토요일 — 전통공연 및 마임·연극	봉산탈춤누리패 봉산탈춤 및 사자놀이, 송신무용단 태평무 등 전통무용, 이미지헌터빌리지 마임 및 연극
	로데오거리	아맛나! 월드 푸드코트 — 다국적 음식판매 다있다! 프리마켓 — 국제교류장터 만들새! 아트캠프 — 아트캠프 전시 및 홍보 안정리! 온스테이지 — 라이브 공연	일본, 카메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내국인 3팀 핸드메이드 소품, 생활용품 거래 및 체험 등 (30개 팀) 아트캠프/이웃상회/골목[木]공방 전시 및 홍보 저글링 공연/다도 퍼포먼스 및 체험/코미디 서커스/ 브레이킹 댄스 각 1팀
9월	예술인광장	마음껏 어울리는 토요일 — 세계 전통춤 공연	팽성시스타 치어리딩 공연, 한국/몽골/태국/스리랑카/ 중국/아프리카 전통춤
	로데오거리	아맛나! 월드 푸드코트 — 다국적 음식판매 다있다! 프리마켓 — 국제교류장터 만들새! 아트캠프 — 아트캠프 전시 및 홍보 안정리! 온스테이지 — 라이브 공연 안정리! 아트스트리트 — 신진 작가 작품 전시	일본, 카메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내국인 3팀 핸드메이드 소품, 생활용품 거래 및 체험 등 (44개팀) 아트캠프/이웃상회/골목[木]공방 전시 및 홍보 한국 전통놀이 체험 및 포토존, 국악 공연, 장구 체험 및 투호 회화, 그래픽, 가구 디자인 등 야외 전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다국적 민족들과 함께 예술장터를 열다.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는 10여 년 이상 슬럼화된 지역이다. 아니 지금도 슬럼화가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은 건물이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기도 한다. 서울시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이 안정리 미 K-6부대로 이전할 예정이고, 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미군 주둔지 중에서는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부대 앞의 상인들은 예전처럼 부대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복적이는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이전이 시작되었지만 부대 앞 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부대 밖으로 나오는 장병은 많지 않다. 미군부대 확장과 병력 증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예전과 달리 가족 단위의 병력이 이전하기에 이에 따른 대응 체계 또한 달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를 접목하여 지역재생과 지역민들의 자발적 문화프로젝트를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적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다국적 시민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마을 전체의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의 확신이 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참여와 향유의 두레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일반적 관람 위주의 축제를 지양하고 예술과 교육 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고 참여형과 체험형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상인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축제를 시작했다. 마지막 토요일에 예술제가 펼쳐진다 하여 외우기 쉽고 부르기 쉽게 마토예술제로 이름을 정했다. 토요일에 만나는 이색적인 다문화예술제 및 장터 개최는 지역민과 K-6부대(USO)와의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추진된 만큼 시작 전부터 기대를 안고 갈 수 있었다. 지역 주민과 미군 가족, 그리고 지역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마토예술제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즐기는 평택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지역 예술가와 예술작가, 지역민들을 섭외하고 K-6부대의 USO와의 면담을 통해 꾸려진 예술장터는 단체장님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토예술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안정리 상인들은 예전의 활기찬 로데오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과연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예술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한 눈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민과 상인들은 예전의 호황을 누리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고,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슬럼화된 안정리에서 마토예술제는 새로운 콘셉트를 논하기 전에,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성을 유지할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하여 마토예술제가 내발적 요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마토예술제 행사장에 빼곡이 게시된, 주민과 상인들이 작성해준 2,013장의 마토예술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에 큰 힘을 받으면서 마토예술제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마토예술제는 3년 동안 10회 개최되면서 주민, 미군 가족, 지역 예술가 누구나 알 만큼 안정리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에는 아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작은 모임들, 시니어 치어리딩팀 팽성시스타·골목(木)공방·예술상점 이웃상회 등이 셀러로, 공연팀으로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리 주민 공동체들이 이끄는 축제로의 첫발을 내딛었다.

무엇보다 매회 셀러들이 증가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다. 안정리, 객사리, 송화리 등의 팽성읍과 인근 안성, 수원, 천안, 청주, 양평 등의 셀러들이 찾아왔으며, 가족 단위 참여가 증가했다. 가평폴빛미술축제의 협조를 받아 신진 미술작가 8인의 미술작품 전시가 처음으로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되어 핸드메이드 프리마켓 뿐만 아니라 로컬예술마켓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마토예술제는 다양한 문화권(미국, 터키, 중국, 일본,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의 세계 전통음식과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예술물품시장도 운영했다. 마토예술제 참여진들은 불건전하고 낙후되었다는 안정리의 지역 이미지가 ‘축제하는 동네’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정리 상인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참여 비중이 낮았다. 프리마켓에 참가하는 셀러들이 매년 반복되어 볼거리 측면에서 지루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마토예술제는 2년 동안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다가 3년째에 잠시 날짜가 변동되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어 다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옮기기도 했다.

다문화권의 참여 비율도 크게 증가했으나 더욱 더 많은 지역 자원을 개발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장치를 더 고민해야 한다. 셀러 선별과 발굴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셀러와 외부 방문객들이 더 많이 증가하리라 본다.

4월



MATO ART FESTIVAL

Open an art marketplace with multi-national people on the afternoon of the last Saturday every month

Anjeong-ri, Paengseong-eop in Pyeongtaek City used to be a slum town for over 10 years. The slum ambience has not been dispelled yet, while some areas there see buildings demolished and rebuilt. U.S. soldiers stationed in Yongsan, Seoul are expected to be relocated to the U.S. K-6 Camp in Anjeong-ri, and once it is completed, it would be one of the largest scale among U.S. military camps. Merchants in front of the camp expected to see a bustling atmosphere like before as streets are frequented by those from the camp. However, even with the camp relocation kicking off, the streets in front of the camp have not changed much. There are not that many soldiers getting out of the camp. There is a remaining issue to be solved: how to align the military camp expansion and increases in the number of soldiers with the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So, we came to think of residents' voluntary cultural project along with regional regeneration by attaching culture to it. What had to be there was an artistic culture program that is filled up with local residents.

One of the critical elements in this project would be to spread the heart to revitalize the region and enhance the communal sense through cultural exchanges with multi-national citizens, and to disseminate the donation culture to transform the private domains throughout the village to the public domains. Above all, it was critical to make a path for everyone to freely participate, while raising the sharing and community spirit instead of making a one-time event. There had to be avoidance of the typical one-directional festivals where visitors would come and just see what is going on. There had to be, instead, art and education within, based on which programs were crea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experience-based concept.

We started with a festival where many people could come driven by the demand of merchants. The art festival was decided to take place on the last Saturday of a month ('Ma' is the initial letter of a Korean word 'Ma-ji-mak' meaning 'last', and

'To' is the initial letter of a Korean word 'To-yo-il' meaning 'Saturday', which make up a new word 'Ma-To'). So the festival was named the 'Mato Festival' which was easy to remember and pronounce. It aroused high expectations even before it started as it was initiated through numerous meetings among residents and K-6 Camp (USO) on organizing unique multi-cultural art festivals and marketplaces on Saturday.

Anjeong-ri merchants would love to see the good old days on Rodeo Street, but seem to wonder a lot about possible effects of a voluntarily initiated art festival. However, it is a sure-fire fact that residents and merchants remember the good old days, and wish to bring back the honor of the past. Mato Art Festival, I think, will require active and voluntary acts of residents, which will be a driving force of its continuity even before talking about its new concept in the village that has turned into a slum due to many reasons. This, I hope, will lead to re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along with the spirit of voluntary efforts.

Mato Art Festival began backed up by big support from encouraging messages amounting to 2,013 pages written by residents and merchants in the exhibition hall of the festival. It was held 10 times for three years to settle as an iconic event in the village to the extent where any resident, soldier family and local artist would recognize. In 2015, small clubs formed through the Art Camp Program, Paengseong Sista, a senior cheerleading team, Street/Woodwork Studio and Neighbor Store in Anjeong-ri were both sellers and performers, taking the first step as a festival spearheaded by Anjeong-ri resident communities.

Above all, the number of sellers increased each time, and they were from various areas: Paengseong-eop including Anjeong-ri, Gaeksa-ri and Songhwa-ri, and other regions nearby including Anseong, Suwon, Cheonan, Cheongju and Yangpyeong. Participation of families increased as well. Sponsored by Gapyeong Light Art Festival, the exhibition of works by eight emerging artists was held on Rodeo Street in Anjeong-ri, which was expanded to not only a handmade flea market but also a local art market. Mato Art Festival

also included an art market where international traditional food of various cultures (U.S., Turkey, China, Japan, Thailand, Sri Lanka, Philippines, Republic of Congo, South Africa and Peru) and their handmade products were showcased. Staff of Mato Art Festival evaluated that the local image of the village that used to be unsound and backward is improving as 'a village of festivals.' Despite the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local participants, but their attendance is low except for food booths. Many complained that the same sellers in the flea market show up again and again, so there is no continued excitement in terms of what is out there to watch.

Although the participation rate of multi-national people skyrocketed, it would be essential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ore local resources to take part in the festival. More efforts must be there to arouse proactive participation of merchants through interesting programs. Once a systematic and stable management system is in place by selectively exploring sellers, there would be even more sellers and outside visitors.

5월



9월



추진과정

마토예술제는 한미문화예술위원회(現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축제 분과위원 주축으로 평성상인연합회, 평택시 다문화센터 등 지역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성과 보고회와 함께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불거리를 위해 매회 색다른 콘셉트와 방향을 설명하고 더 많은 운영진의 참여를 권장하며 위원들의 의견을 나눴다.

축제 분과위원 중에 캠프 험프리스 장교부인회 멤버는 프로그램 일정과 방향에 대해 세밀한 협의를 하고 K-6 공보실은 부대 내에 홍보 및 SNS 홍보를, MWR은 부대 내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축제 뿐만 아니라 아트캠프와 긴밀한 운영체계를 이루어 홍보에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USO는 축제 프로그램 상품 기부와 부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에 홍보를 이끌어내어 마을축제에 미군 측의 참여가 증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평택 다문화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리랑카 전통춤 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카메룬 음식점 등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과는 지역기관과의 협력 교류 차원에서 9월 마토예술제를 공동 추진하였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놀이 체험 도구와 운영 인력을 파견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은 2016년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 아트캠프 운영을 맡고 있다.〕

간담회

일시 2015.11.23 (월)

참석자 김윤환, 정흥택, 허지혜, 문선민 외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서 예술제라는 축제 이름에 맞는 행사가 되었다는 의견과 불건전하고 낙후한 안정리 지역 이미지가 축제하는 동네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과 상인이 운영주체로서 참여가 순조롭지 않다. 안정리 상인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참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고 축제 준비과정에서 상인들과 마찰도 적잖게 발생하였다.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토예술제는 초기부터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만큼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프리마켓에 참가하는 셀러들이 매번 반복되어 볼거리 측면에서 지루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다문화권의 참여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 축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치어리딩과 골목(木)공방 같은 아트캠프 프로그램과 축제 콘텐츠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지역민들의 도움 및 반응

로미오와줄리엣(상인): 오늘날 같았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김기호 한미친선협의회회장: 아주 좋았다. 발전시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훈희 평성애향회장: 전체적인 행사는 좋았으나 종료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

정영택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회장: 기존의 행사와 다른 모습들이 좋았다.

보석당(상인): 아주 좋았다. 이대로 발전해 활력이 넘치길 기대한다.

명이발관(상인):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유범동 K-6 공보관: 매우 좋았고 K-6부대 측에서도 이런 행사를 원한다. 좀 더 발전시켜 지속되었으면 한다. 열심히 홍보하겠다〔직접 현장을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홍보하겠다〕.

김승호 평택시의회 의원: 미군부대 이전 이후 지금까지 시도한 행사들 중에서 제일 좋았다. 외국인이 제일 많이 나온 행사였다. 마토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매주 진행하는 매토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와서 모처럼 로데오거리가 생동감이 넘쳤다. 영내에 체류하는 미군과 가족들이 나와 주민과 함께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오명근 평택시의회 의원: 행사가 좋았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호범 외국인시설관광협회 평택지부장: 개인적으로 바라던 콘셉트이다. 더욱 더 발전시켜 문화의 거리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조행원 평성상인회장: 2,013장의 소원깃발 등 여러 가지 발상이 좋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바자회와 베품시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좋다. 그러나 행사가 너무 일찍 끝났다.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지역 유지, 단체장, 동네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보멘슈퍼(상인): 평상시보다 볼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아졌다. 라파스타(상인): 홍보가 더 많이 되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1



2



3



- 1 월례회의
- 2 마토예술제 분과회의
- 3 마토 운영자 간담회

마토예술제 2014

일정

2014. 5. 31(토), 6. 28(토), 9. 27(토)

13:00~18:00 (총 3회)

장소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

참여규모 총 157팀

집객규모 약 1만 명

마음껏 즐기는 축제,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는 마토예술제는 날이 좋은 봄과 가을 안정리에서 벌어지는 예술품물시장이다. 지난 2014년에는 ‘단오’, ‘여름’, ‘가을’의 월별 주제로 단오선 만들기, 전래놀이 운동회 등 체험 행사와 지역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플프마켓 그리고 먹거리 장터와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역예술가와 상인들,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만들어진 마토예술제는 이제 안정리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가 되었다.



	5월	6월	9월
주제	단오	여름	가을
참가자	46팀	58팀	61팀
활동	단오 체험: 탈 만들기, 단오선 만들기 예술장돌뱅이, 버룩시장(의류, 도서 등), 수공예품(천연비누 등)	전통 체험: 다도, 도예, 전각, 숯대 핸드캐스팅, 클레이 아트, 칠보공예 등	전통 체험: 전래놀이 운동회, 손수건 민화, 물레 수공예품, 중고물품, 후원물품, 칠보회화, 디지털유화, 책갈피 스트랩 소품 외 공연: 퓨전가야금, 버스킹, 마술쇼 등



마토예술제 2013

일정

6. 29(토), 8. 31(토), 9. 28(토), 10. 26(토) (총 4회)

장소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



예술마당

누구나 참여하여 무엇이든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시장, 아껴, 나눠,
바꿔, 다시 쓰는 문화의 확산

열린 무대

지역 내 아마추어 작가 발굴 양성,
주민 참여 유도, 예술가들 교류
유도

6월

희귀 동물로 가방 디자인(박영희),
작품 전시 및 판매(김수향,
심현아), 캐리커처(김다혜),
비디오편집(조배성),
필러비즈(문선민), 소망그림
그리기, 인형극—내사랑
안정리(조경숙) 등

남서울대풍물패 ‘소리터’, 평택
‘노래쟁이’, 팽성청소년문화의집
‘Girls’, Kelly and friends의
노래 공연, 반성현(경찰),
김택환(시온성교회)의 색소폰 연주
등

8월

팽성청소년문화의집, 캐리커처,
필러비즈, 영상편집, 예술장돌뱅이

평택 소리여행, 평택문화원 청소년
현악팀, 평택 노래쟁이
평택풍물단, 스리랑카 전통춤,
평택 리듬을 찾는 사람들
강박수밴드

9월

팽성청소년문화의집,
캐리커처(김다혜),
필러비즈(문선민), 타로
상담(김수진, 권부연), 그리기
체험(조미진), 미술작품과
핸드메이드 작품(Liz Galluzz),
물레 체험(한국소리터 화수분) 등

평택민요 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57호 이수자
어영애의 평택민요 공연, 팽성을
‘대송회’ 이장님 10여 명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거리연극
‘오크트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응원동아리
‘인트루드(Introludel)’
평택문화원 청소년 현악팀,
퓨전국악소리그룹 ‘여흥’
걸스힙합팀 ‘브라운클릭(Brown
Clique)’

10월

팽성청소년문화의집,
캐리커처(김다혜),
필러비즈(문선민), Jay 한지공예,
가죽공예(백설아), 장신구
제작(한혜진), 타로상담(김수진,
권부연), 어린이 오감놀이
체험(히히호호), 물레
체험(한국소리터 화수분) 등

위하탈 봉산탈춤누리패, 헬러원 탈
만들기, 웃다리문화촌 이경태,
장승깎기, 바람종(김현종) 통기타,
Busking Crew 힙합댄스, LOTPOY
힙합댄스, 캠페밀리(아프리카
젬메), 카니라티노(에콰도르 음악),
평택농악 모듬북



코스튬플레이 페스티벌

사업기간

2015. 10. 30(금) 19:00, 10. 31(토)
12:00~18:00

사업장소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

사업내용

2015년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은
10월 마지막 날인 할러윈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코스튬플레이어 위주의
축제가 아니라 관람객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모두의 코스튬’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3회째에서는 전야제를
열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의 참여와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본행사에는 관람객

모두가 코스튬플레이 문화에 빠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 뮤지컬과 코스튬
거리 공연, 의상 관련 체험프로그램,
할러윈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다.

관람인원

7천여 명

참여기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다문화센터,
팽성상인연합회

출연진

극단 나무, 서울괴담, 에스콜라
알레그리아, 이츠스타 엔터테인먼트,
조이브라스, 코시스, 프리윙즈 주니어,
플레이씨



프로그램 2015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전야 행사 10. 30 (금)	예술인광장	코스튬 음악회 — 코스튬 밴드 공연 무대정리 세계 민속춤 공연 — 아프리카 전통춤 공연 코스튬 콘테스트 시상
본행사 10. 31(토)	로데오거리	거리 퍼포먼스, 코스튬 밴드 버스킹 종이인형 옷 체험 및 전시 — 종이인형 옷 채색, 착용 체험 정이를 찾아라 —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캐릭터 의상 체험 —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의상 세계 전통의상 체험 포토존 할러윈 이벤트 — 마을 상인회 상가 150팀 코스튬 플레이어 퍼레이드 — 전 참가자 퍼레이드
	예술인광장	플레이존 체험 — 대형 젠가 게임 외 10종 박스 피규어 제작 체험 전문 및 일반 코스튬 콘테스트 — 주민, 외국인 참가자 30팀 + 애완동물 코스튬 10팀 캐릭터 뮤지컬 — 사이퍼즈 공연팀 1팀 전문 코스튬 플레이어 공연 — rz코스튬 4명 외 커뮤니티 30팀 전문 및 일반 참가자 시상식 — 각 대상 1팀, 우수 2팀
안정순환로 120번길	중고 장난감 마켓 — 장난감 관련 중고물품 판매 10팀	
안정순환로 138번길	월드푸드코트 — 평택 다문화센터 및 지역 상가 10팀	



다국적 이웃들의 놀이

코스튬플레이는 코스튬(복장)과 플레이(놀이)의 합성어로, 특정한 문화나 양식의 옷을 입고 가공의 인물이 되어 역할놀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스프레’로 많이 알려져 있다. 안정리는 미군 주둔지이자 다국적 시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에, 여러 국가의 복장을 통해 다국적 이웃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코스튬플레이 축제를 구상했다.

안정리에서 코스튬플레이 축제를 열겠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 침체가 길었던 안정리에 신선한 문화적 이슈가 필요했고, 젊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코스튬플레이 축제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안정리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 코스튬플레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에게는 낯설고 거부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됐지만 마을 주민들이나 지역 대표들, 미군 가족을 연계해 주었던 K-6 USO 관계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 미군기지 앞마을에서는 헬러윈 축제의 코스튬 놀이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은 마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대표 축제를 만들어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마을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코스튬플레이는 젊은 층의 마니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유입 효과도 좋을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코스튬플레이와 관련한 문화산업, 동호인 모임, 공방이 자리 잡을 것이고, 이는 마을의 경제적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코스튬플레이 관련 인터넷 카페 관계자, 코스튬플레이어, 관련 저자, 코스튬플레이 사진가, 미디어 계열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스튬플레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들의 협조와 자문을 받아 축제 운영의 세부적인 틀을 준비했다. 축제는 코스튬플레이 콘테스트, 마을 구석구석을 배경으로 코스튬플레이어를 촬영하는 촬영회, 전통 복식과 다양한 캐릭터의 거리 행진 퍼레이드, 다양한 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튬 의상 대여 코너, 코스튬 관련 체험놀이터, 플레이어 및 일반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 운영, 축하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코스튬플레이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 안정리가 알려진 마을이 아니고 교통도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안정리로 오는 왕복버스를 운행했다. 인근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워크숍을 진행하고 평택역과 안정리 마을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다.

행사 당일, 비가 왔다.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코스튬플레이어들이 참가했지만 기상 악화로 일반 관람객이 많지는 않았다. 비가 온 탓에 코스튬 의상 대여

코너와 코스튬 퍼레이드, 코스튬 체험놀이터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축제를 보러 온 인근 마을주민들과 상인들, 동네 어린이들, 지나가던 미군과 다국적 시민들은 모두 멈추어 코스튬플레이 무대와 거리를 활보하는 코스튬플레이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지금까지 안정리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화기획 전문가들조차 ‘코스튬플레이어들의 축제’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고 이것은 코스튬플레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게임·만화 캐릭터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에 대한 연구와 세련된 색감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작하고 포즈와 퍼포먼스를 통한 행위 구현까지, 마니아들의 열정과 총체적 요소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다. 또한 노후한 마을에서 이질적인 캐릭터들의 결합은, 이 행사가 앞으로 마을에 어떻게 녹아들고 변화할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첫 회였다.

그러나 상금을 걸고 열린 단독 코스튬플레이 축제인 만큼 코스튬플레이어들의 열기와 관심이 대단했는데, 불미스럽게도 심사 결과에 대한 코스튬플레이어들의 공정성 시비가 벌어졌고, 결국 심사 집계 오류로 재심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카페 코사모 회원들과 수상자 사이에 오고간 온라인상의 설전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것은 방향과 목적이 다른 커뮤니티가 축제 과정 속에 합류되지 않고 동원된 콘텐츠로 얼룩진 운영상의 한계와 갈등을 보여준 한 사례였다.

2회 축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민과 미군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박한 마을 축제로 운영했다. 한편으로는 전년도에 화려함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도 한 축제였다. 3회 축제는 전문 플레이어들의 참여와 동시에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로 만들고자 준비과정에 비중을 두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이 선보이는 캐릭터가 다양해지고, 더 이상 관람하는 축제가 아닌 일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이고 즐길 준비를 하는 안정리 주민들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은 다국적 시민이 사는 마을에서, 그간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두드러지기보다는 공유하는 문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코스튬플레이가 주로 만화·영화·게임 등 이미 글로벌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문화를 즐기는 다국적 시민들에게 코스튬플레이 축제는 일시적으로나마 문화적 공통기반으로 작동한다.

어벤져스 히어로·디아블로·만화 원피스·원더우먼·캣츠·스티브 잡스가 안정리 거리를 활보했고, 여러 나라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매년 다양한 캐릭터가 안정리 마을을 가득가득 메울 것으로 기대한다.



PLAY OF MULTI-NATIONAL NEIGHBORS

The word ‘costume-play’ is a combination of ‘costume’ and ‘play’, referring to a role play where people wear clothes of a certain culture or style and become some characters. It is better known as ‘cosplay.’ Since Anjeong-ri is a village of the U.S. camp and multi-national citizens, we thought of a costume play festival as a ground for understanding multi-national cultures and having mutual exchanges among them via international costumes.

Making a decision to hold the Costume Play Festival at Anjeong-ri was not easy. A fresh cultural issue was needed in the village of a long-term downturn, and the Costume Play Festival already supported by many young fans could be a big trigger. However, it was not sure how to link the idea of costume play with the cultural context of the village. Despite concerns as such, since a costume play culture in the Halloweens Festival in front of a U.S. camp is something people find familiar with, the whole idea came to be regarded naturally.

The Costume Play Festival aimed to invite visitors to give life to the village as an iconic festival to promote the village. Since a costume play was mainly driven by its young fans, it would have great inducement effects, and encourage the settlement of a costume play-related cultural industry, related clubs and studios over the long term, which could even facilitate the economic growth in the village.

We could understand overall about a costume play through meetings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prepared a specific framework for the festival management based on their cooperation and advice. The festival ended up including the following programs: a costume play contest; a photo-taking session to take pictures of costume players in different parts of the village; a street parade of people wearing traditional clothes and those of various characters; a costume rental section for people to experience various apparels; a playground to have experiences to do with costumes; a photo zone for players and ordinary visitors; and a congratulatory performance.

It was finally on the festival day. Despite worries and concerns, a big crowd of costume players took part, but the bad weather hampered many ordinary visitors to come. Due to the rain, a costume rental booth, a costume parade and a playground to experience costumes did not work that well.

Nevertheless, nearby villagers who have dropped by to see the festival, merchants,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passer-by U.S. soldiers and multi-national citizens were mesmerized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

by costume that walked around on the stage and streets, witnessing an unprecedentedly magnificent scene in the village. Even cultural even planners were culturally surprised with the ‘festival of costume players,’ which changed the awareness about costume plays. Interestingly enough, the players were not merely mimicking game/animation characters but produced a design reflecting sophisticated color tones along with a study on their characters, which were translated into specific postures and performances all driven by the aficionados’ passion and attention to details. Gathering of seemingly exotic characters in an old village was arousing interest on how this event would melt in here and evolve. The first event reaffirmed on the possibilities in the future.

Costume players’ passion and interest were enormous because it was the sole costume play with prizes, but judgment results, unfortunately, led to controversies about fairness, and the final judgment had to be made again due to an error in compiling each judge’s scores. Meanwhile, verbal fights online between members of CoSaMo (an online community of costume play lovers) and winners left scars in their hearts. It was because a community



Festival

whose direction and purpose are different from the festival failed to melt in it, especially hampered by limitations and conflicts in handling all the relevant issues.

The festival held for the second time was not as grandiose, but was in the form of a modest village festival mostly led and participated by families of U.S. soldiers. On one side, it was regrettable since it was not as fancy as the previous year’s. The third one focused on its preparation phase to make a resident-driven festival with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players. As each year elapsed, the characters showcased by amateurish players diversified in the festival which was not just to look at but as a part of an everyday life culture and a change to be embraced and welcomed by Anjeong-ri villagers.

In retrospect, the Costume Play Festival was a trigger for people to think about the presence of a culture that can be shared instead of individuals trying to show themselves off in the multi-national citizen village despite few exchanges with each other. Since the costume play was based on global mass cultures including animation, films and games, it was a common platform in a cultural sense for such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that enjoy a mass culture as such.

Avengers Hero, Diablo, manga series ‘One Piece’, Wonder Woman, Cats and Steve Jobs strode through streets, and it is expected that children and adults of different nationalities that turn into various characters will fill up Anjeong-ri every year.

추진과정

2015년 코스튠플레이페스티벌은, 2013년 첫 회에 전문 코스튠플레이어들 중심으로 선보였던 프로그램과 2014년에 진행한 일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절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마을의 어린이, 주민, 미군 가족, 다문화 가정 등이 다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모두의 축제로 느끼고 주체자로 참여하게 하는 데에 주력했다. 아트캠프 프로그램 ‘수상한 의상실’과 ‘박스로봇 만들기’에서 어린이와 지역 주민, 다문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코스튬 의상과 장식 소도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이 중에 총 다섯 팀이 콘테스트에 출전했고, 각자 제작한 캐릭터로 변신하여 자유롭게 축제에 참여했다. ‘종이인형 옷 만들기 체험’은 지역 예술가 원영혜가 디자인과 진행을 직접 맡기도 했다. 팽성상인연합회가 주관하여 상가 150여 곳이 할러윈 이벤트 ‘trick or treat’를 진행했고, 교통통제와 시설 이용 후원도 이루어졌다. 팽성청소년문화의집은 행사장 운영을 맡았고, 통역 자원봉사자 42명이 행사를 지원했다. 이처럼 지역의 유관기관, 지역 예술가, 주민들이 몇 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협의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접 코스튬 축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마을 축제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했다.

코스튬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왜색 중심의 코스튬 캐릭터에서 벗어나 한국 애니메이션과 게임 위주의 플레이어들을 초대했으며, 홍보물에도 한국 애니메이션 스푸키즈(키링스튜디오)의 이미지를 후원받아 삽입했다. 팽택시 국제교류재단, 팽성상인연합회, 팽택다문화센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계의상 체험, 할러윈 이벤트, 프로그램 후원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한 축제에는 한층 다양해진 캐릭터로 코스프레한 어린이, 가족, 젊은 층, 외국인 등 전문 코스어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급증했고, 양 이틀 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7천여 명의 관객이 축제를

즐겼다. 특히 축제 콘테스트에 어린이, 일반 주민, 전문가 등 130여 팀이 참여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전문 부문 수상자는 정철, 변현정, 이연주이, 일반 부문은 로베카 보우맨, 노지현, 한혜진, 김연옥, 세이야마 나오미가 수상했다. 심사는 주민들의 현장투표와 전문 심사단의 심사로 이루어졌다.

이날 함께 진행된 마을 스탬프 투어 ‘안정리 퀘스트’는 마을 곳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다음 장소를 찾아다니는 미로 형식의 게임으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다. 또한 미군부대 앞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클럽에는 ‘귀신의 집’을 설치하여 젊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식 공포 체험과 함께 팔죽을 먹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세계 전통의상과 캐릭터 코스튬 체험, 종이인형 옷 만들기, 대형 보드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팽성상인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사탕 주기’는 어린이들이 상점을 다니며 사탕을 받는 행사로 거리 곳곳에서 이국적인 명절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이날 코스튠플레이어들의 거리 퍼레이드는 로봇, 게임 캐릭터들이 총출동하여 코스튬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침체된 거리를 호박 등과 스푸키즈로 장식하고, 석고 퍼포먼스, 대형 종이 코끼리 행진이 이어지면서 이날만큼은 평소에 텅 비었던 마을 거리에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코스튠플레이 전문 칼럼니스트는 “대도시 안에서의 코스튬은 문화산업이지만, 작은 마을 안에서의 코스튬은 소통이자 일탈이다.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등 다문화가 공존하는 마을 안에서 이날만큼은 가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폭발하듯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군부대 앞의 부정적 이미지로 움츠러든 주민들의 감정이 축제를 계기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어린이, 주민,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축제 콘텐츠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한다.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2014

일정 2014. 10. 18 (토) 12:00~20:00
장소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

관람인원 2,000여 명

공연 및 이벤트	프로레슬링 공연, 파워레인저 공연, 비보잉 힙합 공연, 요들송, 마술공연
코스튬 퍼레이드	요들합창단 선발대에 이어 관객과 참가자가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를 통과하는 행진 퍼레이드.
헬러원 이벤트	안정리 로데오거리 주변 상가 100개소 참여
‘Trick or treating’	해당 상가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행사
복식 체험	‘경기도 박물관’과 ‘평택다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전통 의상 등 50여 벌의 의상을 일반 관객에게 무료 대여. 강아지 옷, 캐릭터 컵, 캐릭터 의상 바자회. 관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캐리커처, 바디페인팅 부스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2014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2013

일정 2013. 11. 2 (토) 10:00-18:00
장소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 일대

관람인원 2,500여 명

코스튬플레이 콘테스트	부문별 콘테스트 진행 전문부문 콘테스트 / 일반부문 콘테스트 /어린이 코스튬쇼 축하공연: 여흥, 소울 버스터즈, SID SOUND, 쾌도 홍길동—막강서경, 걸프렌즈
코스튬플레이 촬영회(사진콘테스트)	코스튬플레이어와 사진가가 자유롭게 촬영
의상 대여 및 복식 체험	안정리 마을의 포토포인트 맵 제작·배포 다양한 캐릭터 의상 및 전통복식 대여 및 체험
포토존 설치·운영	서경대학교 무대의상연구소가 코너 운영 총 3개 포토존 설치 • 배경막 포토존 및 참여형 포토존
부대 프로그램 ‘체험놀이터’	페이퍼토이, 헤나, 사진 촬영과 즉석 출력, 페이스 페인팅 & 네일, 펠러비즈, 가죽 공예, 캐리커처
퍼레이드 및 평택역 홍보쇼	수문장의 궁궐 전통행렬과 다양한 캐릭터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퍼레이드 및 홍보쇼는 우천으로 취소





코스튬플레이페스티벌2013 —
코스튬플레이 콘테스트 수상내역
전문부문



대상 — STINGER — ‘디아블로3’



최우수상 — 장민서·김상우 — ‘뱀파이어의 무도회장’



우수상 — 김예진 — ‘블레이드 & 소울 -포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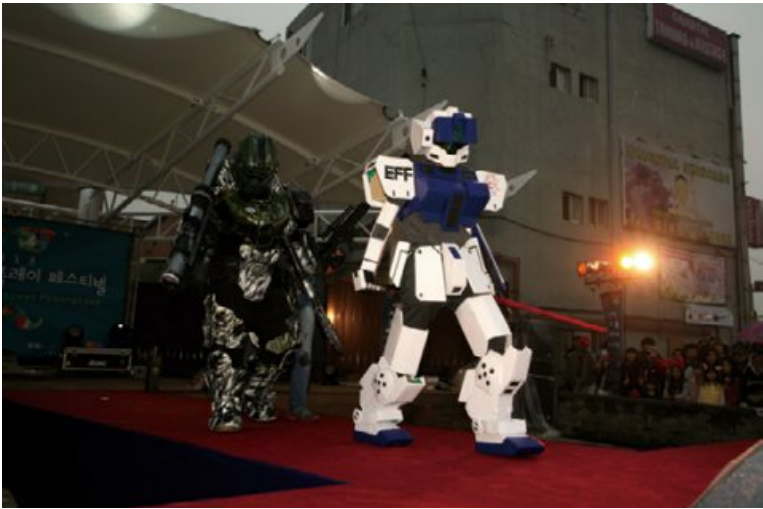
우수상 — 권오선 — ‘트리니티블러드-아스타로세 아스란’

결선진출자 명단

김유경, 김지영, 김지원, 노재영, 명혜인, 모란, 박선우, 박한솔,
서명길, 심현보, 양지원, 이셋별, 이하늘, 이호은, 정다영, 정유진,
조민영, 조우리, 주희연, 지용환, 현미영, 현봉수, 스티븐



우수상 — 어벤져스 — ‘어벤져스 히어로’



입상 — 스펙트럼 — ‘게임 콜라보레이션-플레닛 브레이커스’



‘코스타니움’ — 양은영 — 양은

입선 명단

고희아, 황윤희, 이지형, 엄숙자, 김정인, 원영혜, 강지영, 한슬기, 김양규



대상 — 이상진·이단비 — ‘해적단’



최우수상 — 서우성 — ‘공포의 권법가’

코스튬플레이 촬영회 베스트포토상

코스튬플레이어와 사진가가 안정리 거리 구석구석에서 사진 촬영회를 진행하고, 사후에 출품작을 심사하여 베스트포토상을 시상하였다.



대상 — ‘최강여전사’ (사진: 유선철 / 코스어: 김예진)



최우수상 — ‘원피스-페로나’ (사진: 유지훈 / 코스어:이셋별)



우수상 — ‘캡틴 아메리카’ (사진: 김무환 / 코스어: Penaz)



우수상 — ‘아이온템페르 수석교관의 고결 여로브’ (사진: 김태형 / 코스어: 김정인)



뮤지컬 캣츠 (사진: 문병철 / 코스어: 모란)



리그오브레전드-자르반4세 (사진: 권대혁 / 코스어: 현봉수)



사이퍼즈 피터 (사진: 권혁성 / 코스어: 김수정)



미르카 (사진: 노형석 / 코스어: 이호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사진: 이명현 / 코스어: 이예지)



블레이드 앤 소울 (사진: 이명현 / 코스어: 이예지)



디아블로3-악마사냥군 (사진: 조영호 / 코스어: 이재준)



제목없음 (사진: 홍영우 / 코스어: 김유경)

비하인드안정리

‘안정리 마을재생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겁도 없이 사용했다. 2013년 4월, 평택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안정리 국제문화특구 구축사업’이었고 이후 재단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으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명칭에서 나타났듯 ‘국제문화’와 ‘지역문화’ 두 가지의 목적 중 지역문화에서 출발한 셈이다. 물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리가 미군통합기지로써 그에 걸맞은 국제적 문화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문화적 교류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두 가지 모두 순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인 셈이다. 국제문화특구 조성보다는 교류기반을, 교류기반보다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광역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을 재생’으로 방향성을 재설정한 것은 언뜻 시기적으로 도시재생 붐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구성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매개 역할보다는 형클어진 마을을 다시 찬찬히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을의 히스토리를 들여 보거나 사업으로 주민을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감지하게 된 ‘개발’과 ‘팽창’, 곧 다가올 대형 개발 쓰나미를 앞두고 진지하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솔직히 사업 초기에는 ‘문화를 매개로 마을을 재생시키다’라는 타동사적 의미로 ‘재생’을 차용한 듯 했다. 돌이켜 보면 마을을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나? 마을 주민들이 이해관계 대립 선상에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을 내 집처럼 소중히 다룰 때, 그런 주민이 많아질 때 비로소 마을이 마을답게 되살아나고 그것이 재생 아닐까.

왜 재생을 하는가?

그러면 “안정리를 왜 재생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 어차피 곧 6만여 명의 미군이 이주하면 자연적으로 상권이 커지고 마을 환경이 개선될 텐데……. 그렇다면 기지촌 상권을 문화적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일까? 안정리는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요인은 아니다. 비록 기지촌이 타의에 의해서 형성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어려운 시절 가족의 생계를 이어주고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준, 서로 돕던 공동체 문화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파편화된 주민 간의 갈등은 심각하다. 게다가 외지인들의 땅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예전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공공

영역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을이 어떻게 마을답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재생이 필요했다. 이런 고민은 주민과 인사를 나뉘면 더 깊어진다. 사전에 어떻게 재단에 대해서 소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라도 하면 뉴타운 취소로 인해 시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요구와 함께 뉴타운에 버금가는 ‘재건’을 기대했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 마을이 바뀌길 고대했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상됐던 일이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덮어두었던 갈등이 이 사업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3년간의 사업을 마치면서 마을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 마을에 어떠한 문제가 뚝, 하고 날벼락처럼 떨어졌을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2004년 미군 통합기지 발표 이후 이 마을에 생긴 변화는 무엇일까? 2010년 뉴타운 취소로 마을은 어떻게 되었나? 안정리 주민들이 원한 대로 땅값이 올랐을까? 평당 천만 원이나 하니 오르긴 엄청 올랐다. 그러나 마을의 건물 소유주 절반이 외지인이라는 점은 씁쓸하다. 이미 투자 붐으로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 더 오르기 전에 시청은 부대 앞에 일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개선된 것인가? 안정리 마을은 오랫동안 기지촌 상업시설을 갖고 있던 지역이니 당연히 미군 통합기지 조성을 공식적으로 찬성했고, 바로 옆 마을이 지금은 사라진 대추리 마을이다. 안성천을 끼고 해 질 녘 갈대밭이 보여준 풍광은 최고인데 이런 삶을 없앤다니 날벼락 같은 노릇이다. 그런데 안정리 일부 주민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대놓고 찬성 시위까지 해 인심을 잃을 대로 잃었다. 이렇듯 마을 주민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 의해서 던져진 문제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감내하는 방식도 오롯이 주민들이 터득해야 하는 몫이다.

한편으로 이런 풍파를 겪고 나면 조용했던 주민들도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는 데에 익숙해지는 모양이다. 사업 초반 의견을 수립하고자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보니 마을 내 주민 조직이 30여 개가 넘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보조금을 타기 위한 것이라고 누가 설명해줬다. 조직이 세부화된 것은 다양해 보일 수 있으나 들여다보면 중복자가 많다. 그렇다면 예측해볼 만하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이장단과 상인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참여를 기대했기 때문에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사업설명회, 매 행사마다 결과 평가회,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회 등 첫 1년 동안의 회의가 80회가 넘었다. 너무 회의가 많아서 당시 실무진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고생을 많이 했다. 매회 30여 명 이상의 주민 대표가 참석했다.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뜨거웠다. 마치 모두 이런 자리를 기다린 듯 반가움과 격려,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런 데에는 당시 사업추진단장을 맡아 지역 유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이어 온 경상현 단장이 큰 역할을 하셨다. 불교신자가 교회까지 다니고 마을체육대회를 찾아다니며 인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과 안면을 트고 공을 많이 들인 덕분에 사업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용병 다루기

서둘러 시작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열리는 예술제, 마토예술제가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상인들이 셀러로 참여하기도 하고 전통놀이 체험과 음식 판매로 평상시에는 오가는 사람이 전혀 없던 로데오거리가 외국인 가족들로 북적였다. 주민도, 상인도, 시청 관계자도 놀렀던 첫 회였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것도 가족이 찾는 거리가 되었으니 유흥 상가거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경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클럽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밤문화만 있던 안정리에 낮문화가 생겼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곤 했다. 하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행사 이벤트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거리는 온통 쓰레기 더미로 뒤덮였는데 어느 누구도 쓰레기를 줍지 않고 파라솔 하나 설치하거나 철수할 때 돕는 주민이 없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온전하게 아트캠프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재단이 사업에 합류하기 1년 전에 ‘기본 좋은 QX’에서 수요조사와 연구를 수립 진행했다. 안정리의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5년간 6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마스터플랜이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시의 의지와 함께 향후 청사진이 공개되었고 주민 대표자는 보고서를 한권씩 갖고 있었다. 이것이 사업의 발단이기도 한데, 평택기지로 미군기지가 통합 이전하면서 평택시가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왜 찬성한 안정리 마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마을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강한 반발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이미 주민들과 타당성 검토를 끝냈고 재단은 수행할 용역회사, 용병인 것일까? 첫해에는 매 행사가 끝날 때마다 예산집행 보고회를 열었는데 상가 매출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비쳐지면 어김없이 질타를 받았다. 상가 앞에서 거리극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받아도 시끄럽다고 보따리 장사 짐 옮기듯 옮기는 일이 빈번했다. 하물며 상인회는 시 소유 야외공연장

배전판에서 사용한 전기료로 몇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 지원으로 구입한 상인회의 음향장비 사용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상인회와 이장단의 요구사항이 달랐다. 상인회는 많은 행사성 이벤트 유치로 미군부대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모객하길 바랐고, 이장단은 마을 환경 개선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행사 이벤트 성격은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도로·주거환경 정비를 요구했다. 미군 가족과 지역민 간의 교류보다는 이장단과 상인회 간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으면 잦은 마찰로 사업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 분명했다.

향토 권력

마을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은 공간 조성 과정에서 더 크게 드러났다. 재단과 시청이 협약을 맺을 단계만 해도 재단은 교류기반 구축사업으로 한정했고, 옛 보건지소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다. 시청 건축과는 이미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이 공간의 기능은 테이스터센터[가칭 taste center]로 하고, 안정리 상인들이 다문화 음식을 실험하며 배워보는 공간이자 다문화 음식축제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제2의 이태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생활문화의 공방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도면에는 사무 공간을 상인회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상인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연구 보고서로 요즘 쿠팡 트렌드를 포함하여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 실행 단계에서 살펴보니 안정리에는 음식축제 성격의 외지 방문객을 위한 공간보다 주민들 간의 교류의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작은 규모로 세부화된 교육실 수를 줄이고 공방, 연습실, 카페, 회의공간 등 기능별 공간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였다. 교류공간을 통해 주민 활동을 활성화하고 차츰 단계적으로 부대 안의 다문화 가족들을 초대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했다. 그래서 재단은 사업방향과 공간기능의 재설정과 그에 맞는 리모델링의 필요성, 이 사업을 재단에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평택시청에 설명했다. 놀랍게도 평택시청 문예관광과는 행정 절차상 무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어려운 작업 환경이었지만 시청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건1. 공사 가림막 철거: 그렇게 시작된 리모델링은 건축디자인부터 최정화 작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했다. 작가는 작업 중 공사 가림막으로 마을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가림막 설치 공사가 있던 날 강력한 항의 전화가 있었다. 마을의 한 이장님이 마을을 우습게

여겼다면서 광고 현수막을 공사 가림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쓰레기 마을이지만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하니 당장 철거하라는 요구였다. 이것은 마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청과 재단에 번갈아 육두문자를 날렸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작업을 시작한 그날 오전에 바로 작업이 중단되었고 오후에 철거하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다.

사건2. 화장실 공사: 이후로도 공간 배치를 두고 큰 의견 충돌이 있었다. 리모델링 범위에는 5일장이 열릴 때 사용되던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었는데 공간 규모가 너무 커서 조정하고자 했으나 한 이장님이 건물 2층에 신설될 화장실을 감안하지 않고 절대로 변기 수를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허한다며 고성인 오가는 상황이 되어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건을 통해 이장님의 존재감이 독보적으로 자리했다.

사건3. 카페 공사 : 사건1과 사건2에 등장하는 이장님은 동일 인물인데 이러한 사건이 끝난 뒤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 단계에서 그 이장님이 지역 업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땅히 그래야 하니 적정 부분을 지역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다. 근처에서 부엌 가구 설치업을 하시는 이장님은 공간 1층에 있는 경로당 가구를 이미 말아 설치했는데, [이 공사는 읍사무소가 진행했다.] 공간 1층 카페 공사를 본인 말고 다른 외부지역 시공업체가 한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이 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 이장님을 만날 수 없었다. 물론 침묵하시는 분은 아니시기에 그 이후로도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대표성을 띤 분들은 공공적 영역에 있지만 지극히 사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민원보다 더 절대성을 지녔다.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거나 송전탑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러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몫 보다는 대표자에 의해 사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게 형성된 사적 파위가 대단하여 주민들조차 눈치를 보며 참여를 꺼린다. 문화를 통해 통합되기보다 이로 인해 제2의 갈등이 빚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마을의 주체

아트캠프가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발의하셨던 지역 대표자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장년 여성들만이 아트캠프와 함께한다. 작은 모임, 활동을 통해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주체로 남았다. 책자에 소개된 커뮤니티활동을 보면 카페 운영자로, 골목(木)공방 회원에서 운영자로, 연습실 연습생에서

팽성시스타로, 마을브랜드제작소 지역 장인에서 수상한 의상실의 강사이자 운영자로 각 공간별 모임의 활동 주체로 남았다.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의지 있는 상인의 역량을 키워 직접 사업을 꾸릴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던 주민만이 남았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주체를 만나기 쉽지 않다. 훈수 두는 이장님과 상인회는 많지만 같이 일구는 주민은 많지 않다. 주한 미군 가족 6만 명이 2년마다 순환하니 일시적이거나 이들에게서도 또 다른 마을 주체를 끌어낼 수 없을까? 사업 2년차에 장교부인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주한 다문화 가족들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의식이 강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무료는 없다. 반드시 10\$ 이상 지불하고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대 안에서도 지역사회 봉사 관련 커뮤니티가 세분화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쿠킹클래스, 마토예술제, 수상한 의상실, 공방 등 아트캠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모든 수업이 통역 없이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고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아트캠프는 점점 더 국제적 여성들의 규방문화 아지트가 되었다.

이렇게 2년차에 벌써 국제적 분위기로 급물살이 들자 예산 비중도 늘고 지역의 부정적 의견도 사라졌다. 기대하지 않았던 미군 측과의 교류가 2년차에는 명확한 성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도 사건이 있었다. 열성을 다하고 영어 소통이 자유로웠던 재단 담당 팀장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자 부대측 운영위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모든 협조에서 손을 떼겠다는 억지를 부렸다. 이런 반응도 이상했지만, 우리나라 부대 측이나 사람이 바뀌기는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은 성격의 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였다. 이로 인해 후임자가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인근 지역에 평택시 국제문화 교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교류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유사업무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임에도 두 공공기관 간에 서로 업무영역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해프닝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지만 어차피 재단은 지역 유관기관과 주민, 일시적인 주민과의 관계를 이끌어내고 이들이 주체가 될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주민들의 상처를 함께 나누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리 중장년 여성들과 그들의 며느리들, 아이들과 나눈 소중한 관계 속에서 기대를 해본다. 3년이 지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상인회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처음에는 아트캠프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작은 공간에서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작은 공간에서 단단한 모임, 활동을 갖는 것이 오히려 안정리에 필요하고 맞는 것 같다.”고 진심어린 격려를 하셨다. 아트캠프에 자주 오시지는 않았던 분이지만 먼발치서 지켜보신 분이리라.

마을의 주체는 모두일 것이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안정리에는 400개 하던 클럽이 몇 개만 남아 있는데 이 클럽을 주관하는 관광협회가 막강한 힘을 지녔다. 하지만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중에는 힘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진정 마을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트캠프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변 상인을 설득해 준 이호범 회장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진정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마을이 대상화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참여하는 예술가에게 당부 드렸다. 여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문화예술을 수단 삼아 마을에 문화적 활력을 갖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술적 실험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했다. 마을을 자원화하여 관광화가 가능하다고 한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위해 상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부대 안 사람들이 부대 밖으로 나오길 바란 것 외에 어느 누가 마을에 외지인이 많아지는 게 반가운가.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모습을 지우려 했고 남은 집과 건물 모두 초라하니 새 건물을 짓기를 희망했다. 예술가에 따라서는 옛것이 좋으니 건물을 부수는 것을 반대했었으나 실상 예술가도 여기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외지 예술가와 주민 사이에서 오는 시각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안정리재생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예술가는 마을이 이토록 훼손된 데에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주셨다. 특히 마을의 삶을 돌아보며 마을을 지킨 안정리 사람들이 보물이고 그 가치를 발견해주었다. 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무엇인가를 제작하고 생산해낸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분들이 얻은 자부심이야말로 큰 동기 부여가 되었고 앞으로 마을을 일구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조지연(경기문화재단 문화재생팀)

3년간 함께 한 분들

경기문화재단

평성예술창작공간 ART CAMP

총감독 김윤환

진주희, 지용근, 김세미, 정흥택,

이예슬, 전수린

평택사업추진단

단장 경상현

박태웅, 이정은, 김희재, 박재현, 유은미,

피어라, 김드보라, 원정선, 이세원, 안현주

사무처 문화정책실

사무처장 이광희

실장 장덕호

문화사업팀장 조광연

선임 이민아

문화예술본부

본부장 박희주, 차재근

문화재생팀장 안세웅, 구정화

선임 조지연

평택시청

문화관광과

과장 박홍구, 한병수

팀장 이영복, 이학영,故최순태, 남성진

주무관 정은애, 이의현

생활사박물관프로젝트

총괄감독 박이창식

문미희, 김문, 양지영, 김해규, 차경희, 숨,

이한준, 단단, 아오리, 이야기, 이미화,

노에리, 청년생활예술공동체 화수분

마을 예술상점 프로젝트

총괄 이미화

김기분, 차동길, 신미숙,

강규호, 황신혁

마을환경개선프로젝트

오경아, 김연금, 김민선, 허지혜, 현미우,

정가혜, 평생청소년문화의집

골목(木)공방

이윤기, 홍순영, 김승환

바위와 씨앗프로젝트

총괄감독 최정화

김대광, 이호은

커뮤니티연극워크숍

극단 몸풀

국제문화예술교류위원회

이훈희, 김기호, 이호범, 김정훈, 허지혜,

이인숙, 강명임, 강영자, 데뷔 보렉, 줄리

데소니어, 케이티 하우웰, 웨런 배틀리에,

데루코 등 지역 관계자 여러분

조사·연구·평가

기분좋은 QX

2013-2015 안정리 마을재생 프로젝트

책임편집 조지연

교정교열 김은주

번역 최기원

디자인 일상의실천

인쇄 조은문화사

ISBN 978-89-999-0048-8 93600

발행인 조창희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5. 12. 31

본 자료집은 평택시와 경기문화재단이 협력으로

추진한 <2013-2015 안정리 마을재생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입니다. 본권에 실린

글은 평택시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00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pdf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